



10

198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10호

(루계 396)



◇◇◇◇◇◇◇◇◇◇

## 차례

◇◇◇◇◇◇◇◇◇◇

고귀한 의리 .....	4
당을 생각하는 마음 .....	13
카툰의 화불 .....	14
당에 영광을 .....	16
해바라기 .....	19
당의 은혜로운 해발아래 개화발전한 우리 문학의 자랑찬 성과 .....	20
다듬은 말 .....	30
우리 당이 창건된 력사의 나날 .....	31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결정적담보 .....	35
고귀한것 .....	42
백두삼천리벌에 밀바다 설레인다 .....	55
광부의 말 .....	56

조국의 밤 .....	59
어머니당에 인민은 감사를 드린다 .....	60
무리 등 .....	62
행복의 창가에서 .....	75
참된 당원에 대한 생각 .....	77
높은 열정, 자랑찬 결실 .....	79

## 고귀한 의리

김수범

보슬비는 밤새도록 내렸었다.

소리도 없이 내린 비는 대지와만 몰래 풍년을 약속한듯싶었다.

비안개를 가시며 아침해가 떠오르자 더욱 넓어 진듯한 대지가 포장도로 량옆으로 끝없이 흘러갔다.

곧게 뻗은 길과 가로수들, 벽체 하얀 농촌문화 주력들과 과수원의 언덕들만이 마주 달려오고 승용차는 도리어 한자리에 가만히 서있는것 같았다.

어렵게 마련되고 빛나게 커가는 인민의 기쁨이 지금 저렇게 흘러간다면 아뢰이듯 따라오는 태양도 이 승용차에서만 찬란히 빛나고있었다.

차창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든다. 무수한 풀벌레소리같은 가로수의 설레임도 들려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래우에 수수한 흰 여름 양복을 입으시였다.

불어드는 바람을 시원히 맞으시며 한 녀의사의 편지를 읽으시던 그이께서는 실눈을 지으시였다. 한주일에 한번씩 꼭꼭 편지를 보내오는 녀의사는 벌써 단발머리 간호원시절부터 장길녀어머니한테 치료해주려 다녔었다. 편지에 의하면 며칠전까지 어머니의 건강은 아주 좋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도 나와 논밭에서 김을 매는 농장원들을 차창밖으로 내다보시였다. 농사는 봄부터 이 여름까지 류별나게 잘되는 셈이다.

오늘 이른새벽에 어느 한 농장별로 나가신 그이께서는 나이가 90이 넘는다는 늙은이들을 세명씩이나 만나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를 뜨는 그 로인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때 로인들은 저마다

《지금 세월이야 머리 셀 일이 있습니까. 자고로 서리란 나이에서 내리는게 아니오라 마음에서 내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는 웃고

《저는 아직도 틀이가 아닙니다. 좋은 세월에 자꾸만 젊어지는것만 같습니다.》

하고는 웃었으며

《자물쇠처럼 집만 지키자니 당초 못할 일입니다. 그래 늙지 않는 예방주사를 맞는격으루 이렇게 소일삼아 나옵니다.》

하더니 위대한 수령님 앞에서 어려움도 잊은듯 해방직후에 부르던 노래까지 하는 할머니도 있었다.

그바람에 로인들이 다 웃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으시였다. 아직 마음들이 그냥 젊은 로인들은 지금껏 해방의 감격과 함께 땅의 주인이 되던 그 시절, 그 기분으로만 내내 살아온듯하였다...

(좋은 시절! 좋은 계절!)

이렇게 속으로 외우는 부관의 눈에는 하늘땅의 온 공간이 햇빛으로가 아니라 그이의 웃음으로 가득찬것처럼 보이였다.

승용차는 벌써 평양의 한쪽 관문인 감북동에 들어선다. 갑자기 화려한 꽃물결의 흐름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각이한 옷차림을 한 젊은 녀인들이 젓살 오른 어린애들을 안고 출근길에 오른것이다. 학교로 가는 소년단원들도 있었다. 손에손을 잡은 유치원포래들이 세상은 자기들것이라고 뽐내듯 노래를 부르며 깡충깡충 뛰어가기도 한다. 어느 대렬에서 몰래 빠져 나왔는지 모를 두 소년단원이 날쌔게 어른들을 비집으며 무작정 뺄스를 타는것도 보이였다.

웬 중년사나이는 땅에 떨어진 책가방을 주어들고 그 소년을 타이르는데 치마폭이 넓은 한 녀인이 그 애들 편역을 드는듯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그 광경을 유심히 내다보시였다.

《뺄스를 보자 같이 가던 동무들을 다 잊었군

…》

여전히 웃으시던 그이께서는 차를 대동강쪽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시였다.

(혹시 대동강의 아침풍경이라도 구경하시려는 것일까.)

부관은 잠시 영문을 알수 없었다. 이제는 저택으로 들어가시여 잠시나마 휴식하실줄 알았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혈압이 180이라고 했지?》

그이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에야 부관은 지금 수령님께서 장길너어머니를 찾아보시려는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늘아침, 농장벌에서 만난 로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도 분명 그 장길너어머니생각을 하신것 같았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계시였다.

비행기를 두세번씩이나 갈아타며 대륙을 넘은 한 외교대표부부를 친히 만나주신것이 이틀전이고 형제나라의 대표단을 접견하신것이 어제였으며 아프리카의 한 국가수반이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는것은 바로 오늘 오후가 아닌가. 게다가 또 래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부관의 가슴은 더욱 더 후더워졌다. 혁명의 모든 문제를 헤아리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길너어머니 한 분한테 돌려오신 사랑만도 한량없이 고귀한 의리의 긴 역사를 이루고있는것이다. 해방직후, 고향인 갑산땅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시여 어머니를 모셔온 그때로부터 수십년간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은정을 아직 세상은 다 모르고있었다. 그렇지만 일찌기 결을 떠나간 어머니의 아들과 딸과 며느리를 대신하지 못하는 것만 같으시여 언제나 마음을 쓰시는 그이시였다.

《왜 갑자기 혈압이 올랐을까?》

부관에게라기보다 자신께 물으시듯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어머니를 모셔오던 해방직후인 1946년 8월말을 생각하고계시였다.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하여 대중적정당으로서의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하는 력사적인 대회가 있는지 이틀밖에 안되는 날, 어머니가 와있는 저택으로 술한 항일혁명투사들이 모여왔다.

소박한 저녁상이 들어왔다. 어머니의 식기에만 흰밥이 담겨져있었다.

그러자 한사코 밥그릇을 바꾸어놓으려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으시며 그이께서는 의미심장하게 웃으시였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머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어머니의 잔에다 술을 부으시였다.

《?!…》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딸들이 이렇게 다 모여왔습니다.》

그러시자 너무도 뜻밖인듯 의아해진 어머니는 점도록 장군님만을 우러러보았다.

그러더니 한손으로 술잔을 막은채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본능처럼 채머리를 떨었다.

나이는 들어도 녀자의 몸인 어머니에게 있어 술이란 자기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남자들의 세계였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인 장군님께서 부어주신 술잔을 받는다는것이 어머니로서는 끝없이 황송하고 외람된 소행으로만 느껴졌다.

더군다나 오늘이 자기의 생일인지 아닌지도 전혀 알수 없는 어머니였다. 가난한 소작농의 딸이였던 어머니는 여섯살에 마지막 생일을 언감자떡으로 쇠여보았다. 시집도 가난하고 그다음에는 잔밥에 빠지고 자식들이 오금을 뜨자 야학이요, 반일회요, 빼랴요 하는 일에 나선것이 죄가 되어 밤낮없이 달려드는 경찰놈들앞에서 가슴을 놀래우며 살아왔었다. 자식들때문에 속을 태우고 그것들을 잘 갖추어 내놓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파몰래 온 그 나날들속에 망각으로 흘러간 생일이 있었을것이다. 한숨과 설음으로 남모르는 눈물로써 지내온 그 허구많은 세월에 어머니가 과연 생일이란것을 생각이나 했었던가. 기나긴 세월을 거쳐 그럭저럭 생겨난 그 타성은 녀자의 생일이란 열살미만에서만 죄는줄로 알게 하였다.

《참, 어머니두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산에서 싸울 때 마철민동무는 음력으로 이날을 잊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조국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첫생일을 쇠게 되었습니다.》

장군님의 인자하신 이 말씀에 그이를 그냥 우러러보던 어머니의 두눈에는 차츰 불깃한것이 어리고 그 다음에는 스르르 가슴이 녹아내리는듯 물기가 펴 어리었다. 그러더니 어머니의 입가에는 경련이 일었다. 무서운 자제력으로 용케 눈물을 참아가던 어머니는 급기야 목이 꺾 메여버려 떠듬거리며 긴 말을 못하였다. 하고싶은 말을 다 하다가는 자기도모르게 울음이 터질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겨우

《젊은것들을 일찌기 앞세운 에미한테두 생일이 있소다.》

하고는 두눈을 습벅이며 눈물을 찌우더니 술을 흘리면서 세번만에야 장군님의 잔을 채워드리었다. 아들이 부어올리자면 술이라면서.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안색을 확 흐리신채 대범히 웃으시었다.

《어머니, 이렇게 술한 아들딸들이 곁에 있는데 어머니가 왜 생일을 쇠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는 너투사들의 흐느낌소리가 터져나왔다.

《자, 어머니! 드십시다. 일제와의 싸움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함께 드십시다.》

장군님의 음성도 무척 갈리졌다.

《장군님!!-》

어머니는 종내 한손으로 입을 막은채 어깨를 마구 떨며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곁을 떠나간 자식들생각에서가 아니였다. 그들이 있어도 대신할 수 없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이 고마와서였으며 강반석어머님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그 진정이 하도 기가 막혀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잔을 낸 어머니의 손목을 잡으시었다. 그러시더니 산에서 싸울 때 마철민동무는 고향생각이 나거나 어머니생각이 날 때면 늘 노래를 부르곤했다고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달이 밝은 밀영의 밤, 설레이는 나무에 기대여 노래를 부르던 전사의 모습을 그리시듯 조용히 《사향가》의 가사를 뇌이시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그이의 절절한 음성을 들으며 어머니는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저 기가 막히여 터질듯한 가슴을 어루만졌다.

《장군님, 이제는 불성한 그것들을 부디 다 잊소다.》

물기어린 어머니의 속삭임에 투사들은 그만 얼굴을 가리우고 모두 울었다. 추위와 굶주림과 중상의 고통속에서도 웃으며 싸워온 그들이건만 이 순간에는 북받치는 눈물을 그 어떤 힘으로도 목 새길수가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수십년전 일이였다. 벌써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는 지나간 그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달려온듯 아름답리 은행나무를 예뻐아 자그마한 정원앞에 와서 멈춰섰다.

추억이 정지된것처럼 주위는 조용하였다.

다만 은행나무가지에서 새소식의 새인 까치 한마리가 동네방네 소문내듯 환희롭게 우짖고 은행의 깃털을 가진 호두알만한 고운 새는 승용차의 앞머리에 내려앉아 두눈을 또릿거린다.

허리에 두손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니가 계실 단층집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도 큰 집이였다. 말동무 하나 없이 지금쯤 자리에 누워계실 어머니를 생각하시자 그이의 마음은 한결 무거우시었다.

《자, 조용히 들어가지요.》

부관과 함께 발자국소리도 없이 대문가로 다가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었다.

부관의 얼굴에도 의아한 표정이 어리었다. 뜻밖에도 어머니는 저쪽 담장밑에서 분명 무슨 일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머리에다 모자모양의 흰 수건을 쓰고 모시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는 혼자소리로 줄곧 누군가를 탓하며 자빠진 줄당콩넝쿨을 손질하였다.

《사람이 먹는 곡식을 이렇게 만들다니. 세상에 고약한놈들이지.》

어머니는 줄당콩넝쿨과 화풀이를 하는것 같았다.

《참, 답답하시군요. 교외도 아닌 수도의 한복판에서 글썄 줄당콩농사가 다 무업니까. 몇포기 되지도 않는데서 소출이 나면 얼마나 나겠다구.》

부판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나와 일손을 잡은 어머니를 보시는것이 못내 기쁘시였다. 일손 없이 못견디는 그 성미만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여전한것이다.

무슨 일감이든 있어야 몸과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어머니고보면 몇포기 안되는 저 줄당콩이 소출을 바라서 가꾸는 단순한 농사가 아닌것 같으시였다.

어머니의 그 구체적인 심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해하실수 있는 세계였다.

하지만 그이께서 그 어떤 명상의 실눈을 지으시며 조용히 트랙으로 들어서시는 순간, 장길녀 어머니는 벌써 인격기로서도 가장 인자하신분이 오셨음을 알아맞히신듯 머리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환히 피어나시였다.

《아니, 장군님!...》

어느새 일손을 놓고 옷매무시를 바로잡은 어머니는 허둥지둥 마주 걸어나오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가만 계십시오. 어머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활달하신 걸음걸이로 마중나가시더니 어머니의 잔약한 어깨를 품에 안으시였다. 어머니는 그이의 팔소매를 어루만지며 웃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몇십년만에 만나시는듯한 기분으로 어머니의 얼굴색과 눈빛을 이윽히 굽어보시였다. 어쩌면 열흘전에도 어머니를 찾아오셨던 그이갈지를 앓으시였다.

《어머니한테 벌써 오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일이 두루 밀려서 이제야 왔습니다.》

《아니, 이 늙은것때문에, 원 장군님두...》

《그런데 좀 편안히 누워계시지요. 복더위철에 트랙일을 그렇게 하시면 혈압이 오를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어머니의 귀전 가까이 속삭이고계시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주름투성이인 얼굴에 시름과 안타까운 기색을 지으며 손세를 씻다.

《아 글썄 장군님, 이걸 좀 보시우다. 사방에 술한 아동공원을 뒤두고 하필이면 이 할미의 줄당콩밭에 들어와 말짱 해적질을 해놓을건 뭐겠소다. ... 이제 겨우 꽃이 지고 콩꼬투리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하긴 내 불찰이오다. 제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귀할수록 엄하게 자라울 생각은 못하고 그것들이 내 집트락에 들어와 이 할미의 말동무를 해주는게 대견해서 으늑으늑했더니 이제는 아주...》

비로소 이제야 사연을 짐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음을 참아가시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시였다.

안타까운것은 부판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얼마나 바쁘신 몸이라는것을 전혀 모르고있는 어머니에게 좀처럼 귀뜸을 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소연은 계속되였다.

《콩알이 다 영근 가을철이면 일있소다. 아무래두 저희들 입에 들어갈걸, 작년에두 요앞에 있는 유치원에 가져다주었더니 맛 있다고 잘만 먹습디다. 내 그래 그녀석들을 한사코 쫓아나갔소다. 한놈이라두 붙잡아야했는데 숨만 차구... 아, 글썄 다리들이 긴것들이나 그랬으면 덜 분하지오다. 정쟁이가 한뼘씩 되는것들이 빠르긴 왜 그렇게 빠르오다. 해곤해곤 뒤를 돌아다보면서 골목골목으로 빠지는데 한놈두 못붙잡았소다. 그저 5년전만 하면...》

두볼이 오무라들어간 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정으로 분해하는 기색이 력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맞추어 드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정말 교약한 녀석들이구만요. 넘려 마십시오 어머니! 내가 오늘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그녀석들을 꼭 찾아 버릇을 똑 떼여 놓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인 그 소탈한 말씀에 부관은 혼자 소리없이 웃고있었으나 어머니는 한결 마음이 개운해했다.

《장군님, 그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원래 저놈들이 세월이 하 좋으니까 당초 난알 중한줄을 모른단말이오다. 저것들이 제멋대로 그냥 자라며는 난사오다 난사... 지금 농사라는건 농장원들만 하오다? 학생들두 하구, 배우들두 하구, 간부어른들두 하구, 나중에는 군대들까지 하는데 어려서부터 난알 중한줄을 모르고 자라며는 이담에 커서 나라농사를 망치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못 신중하신 표정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시였다. 백번 웃은 어머니였다. 이렇게 생각하며 한생을 살아온 어머니기에 그의 아들딸들은 빛나는 죽음으로 빛나게 사는 길을 택할수 있지 않았을가.

그러고보면 몇포기 안되는 어머니의 이 줄당콩이 미래를 위해 소출을 내는 큰 농사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부관의 얼굴에도 웃음이 사라졌다. 고려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나라를 위하는 어머니의 높은 정신력앞에 스스로 머리가 수그러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어서였다.

《아이구, 내 이 정신을 좀 보오다. 장군님을 만나 기쁨김에 줄당콩애기만 하다나니.》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기에는 집이 루추하다고 생각한듯 부랴부랴 안으로 들어갔다.

《난알 중한줄을 모르고 자라면 이담에 나라농사를 망친단말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자빠진 콩순대며 삼검불처럼 형클어진 녁쿨을 새삼스럽게 굽어보시였다. 그러시노라니 그이께는 불현듯 방금전의 네거리에서 보셨던 그 소년단원이 생각키우시고 어머니가 방금 어느 에미들이 낳은자식들인지 모르겠다면 청원이 재삼 상기되시였다.

《수령님! 어머니의 혈압이 이 줄당콩때문에 어제부터 갑자기 오른게 아닐가요?》

부관의 말에 그이께서는 그저 웃어보이시며 몸소 어머니가 하다 만 일을 마저 하시였다.

《수령님,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가만있소. 우리가 간 다음에도 다시금 손질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정성껏 해야 하오... 그 노끈을 좀 쥐여주오.》

부관이 노끈을 가져다 올리자 그이께서는 나라의 장래가 이 일에 달려있기라도 하신것처럼 일귀세운 콩순대에다 상한 녁쿨을 하나하나 조심히 비끌어매시였다.

부관도 땀을 흘리며 일손을 다그쳤다.

《이만하면 기본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머니의 혈압을 낮춰드리는 일인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관을 돌아보시며 소리없이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더니 잠시후에야 그이께서는 일손을 터시며 들어가시려는데 무심히 마주 나오던 어머니가 세상에 이런 변이 어데 있느냐는듯 부랴부랴 몰대야며 수건을 다시 들고나왔다.

《아니, 장군님! 집에서 가만히 노는 늙은이가 그 일이 힘들어서 못할가봐 그러오다. 이처럼 오셨다가...》

《아닙니다 어머니, 어데서나 줄당콩을 더 많이 심자고 내가 먼저 범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대로 일귀세워진 줄당콩숲을 그 무슨 포도원처럼 바라보실 때 어머니는 부관의 뒤에서 저쪽 담장쪽을 향해 엄한 표정으로 발을 굴러보이였다. 담장우에 조롱조롱 열리였던 대여섯살씩 먹은 조무래기들의 머리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사는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해변침대 옆에는 상두대가 놓여있고 상두대 우에는 전축이 달린 라디오와 자동차화기가 있었으며 두개의 안락의자와 랭동기가 있었다. 그 랭동기옆에는 현대적인 가구에 어울리지 않는 갑산판에서 가져온 듯한 모랭이가 놓여있었는데 거기에는 가을에 심을 상갓나물씨앗이 두어줌가량 담겨져있었다. 평



양에 올라온지 20년이 넘어도 삼수갑산사투리를 완고하리만큼 버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이 하나의 모랭이와 상갓씨앗에서도 여실히 느끼실수 있으신 수령님이시기에 그 좁쌀알같은 씨앗을 음미하시듯 손으로 매만져보시기까지 하시었다.

그러시더니 그이께서는 여전히 우선우선 한 표정을 지으시며 다정하신 음성으로 명숙이가 요즘도 더러 들리느냐고 물으시었다. 명숙이란

위대한 수령님께 편지를 보내오곤하는 녀의사였다.

《매일 오우다.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꼭꼭 들려서는 한참씩 앉아 놀다가 가오다. 어떤 때에는 같이 앉아 좋아하는 당콩밥도 먹고 늦으면 자고 가겠다고도 하는데 집에서 부모들이 기다릴 생각을 해서 내가 한사코 밀어보내오다. 그러면 별로 서운해서...》

어머니는 얼굴의 주름을 펴며 웃었다.

《그래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도 들으신듯 환히 웃으시었다.

《그저 오기만 하면 응석받이 막내처럼 곁에 붙어 돌아가며 무슨 영화를 본 얘기, 어디서 로력 영웅이 난 얘기, 어떻게 하나 기어이 나를 웃겨 놓고야마오다. 이제는 선생인데 저렇게 그냥 아이같아서 신랑감이 나설 가요다?》

어머니의 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큰소리로 웃으시었다. 실로 기쁘셨던것이다.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바라신대로 명숙이는 간호원이나 의사이기전에 어머니가 정을 붙인 딸로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명숙이가 왜 자기를 그처럼 따르고 부모들이 기다릴 집으로 돌아가라면 늘쌍 서운해하였는가를 전혀 모르고있었다.

명숙이한테는 부모가 없었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하고 어머니는 《치안대》놈들한테 끌려가 피살당한후 명숙은 학원에서 자라난 당의 딸이었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길녀어머니와 명숙이가 지금같은 사이로 가까와진것이 제일 기쁘시었다. 또 이렇게 되리라 믿었고 바라신 수령님이시었다.

《그러기에 이제는 곁에 말동무만 하나 있었으

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시니... 아무래도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셔야 할가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었다. 혁명에 아들딸들을 바친 어머니가 자기혼자뿐이 아닌데 이 나라의 그 술한 어머니들을 저택이 얼마나 커야 다 데려가겠느냐고 대답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래도 다른분들한테는 한두자식이나마 다 있고 또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동무를 할 간호원이라도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으로 가시든지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웃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웃음은 인차 눈물로 바뀌였다. 장군님께서 자기때문에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 일이 가슴뜨거웠고 끝없이 고맙기도 해서였다. 만민이 다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데 어찌하여 자기만이 유독 그이를 이처럼 속태위드릴가싶어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내렸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자 자신께서도 안색을 흐리시며 애써 웃음을 지으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장군님의 그 안색을 보며 연신 두눈을 슴벅이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쓰린 가슴에서 샘처럼 솟구치는듯한 눈물이 두볼의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두손을 마주 잡으시었다.

《어머니! 그 간호원문제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승낙을 해주셔야 합니다.

밤늦게 일하다가도 불현듯 어머니생각을 하면 한시간이건 두시간이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방안을 거닐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곁을 떠나간 아들딸들이 있다면 지금쯤 얼마나 잘 모시겠는가...》

그러자 어머니는 어깨를 떨며 흐느끼고 부관은 돌아서서 얼른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갔다.

《실사 그것들이 다 살아서 내곁에 있다고 하시오다. 그러나 말은 바른대로 저들이 아무려면 저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대

신함직하오다.》

어머니는 그냥 눈물을 흘려가며 자기의 아들딸들은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채 술한 일을 남겨두고 일찌기 가버렸다고 했다. 그들은 지금도 마땅히 그 어데서건 장군님을 도와드려야 하며 그래야 장군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실것이라는것이였다.

그들이 하다못해 어데서 벽돌 한장 굽거나 흙한삽을 뜬다 해도 장군님께서서는 아마 지금처럼 일이 바쁘시지는 않을것이라고 했다.

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실눈을 지으시였다. 열아홉살 처녀로 자기 생애를 마친 어머니의 외동딸은 가슴에 다섯방의 적탄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어머니 대신 조선혁명만세를 불렀고 동지들의 겨울군복을 짓던 채봉대에서 적들의 포위에 든 어머니의 머느리는 자기의 군모와 군복저고리와 아직 판이 안난 신발을 벗어 동지들에게 남긴채 원썬들속으로 달려 들어가 수류탄으로 자폭하였으며 파괴된 지하조직을 복구하고 부대로 돌아오다 체포된 어머니의 아들은 조직의 비밀과 사령부의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의지로 자기 혀를 끊었었다.

그가 혀를 끊기전에 마지막 말로 남긴것은 《어머니, 저는 장군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이께 꼭 인사를 올리십시오.》였다.

그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영원히 잊을수 없는 백두산밀영에서 눈물로 복수를 맹세하는 대원들과 함께 잠도 끼니도 잊으신채 눈보라 사나운 밀림속을 얼마나 거니셨는지 모른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그들이 너무 아까우시여 대원들 몰래 손수건을 꺼내셨고 딸과 머느리와 아들까지 잃은 장길녀어머니를 생각하시여 차마 수저를 들수 없으셨던 그이시였다.

그러나 며칠후, 지하공작원이 가져온 장길녀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었다.

《장군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내 아들딸들이 집을 떠나갈적에는 어수룩한 화전민의 자식이였지만 지금은 모두 혁명가로, 장군님의 몇몇한 전

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셋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 나는 자꾸만 대견해서 읊니다. 사람은 너무 행복해도 우는 모양이지오다. 그러나 놈들은 내가 슬퍼하지 않는것이 꽤씸해서 별지랄을 다 부리지만 아들처럼 이기기 위해 밥을 팡팡 먹소다.》

그때 밀영에서는 어머니의 그 편지를 보고 힘을 냈었으며 비로소 작식대의 칼도마소리가 높이 울리기 시작했던것이다. 대원들은 장군님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을 위해 수저를 드셨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쇠물도 뿔고 대포도 만든다는것을 믿지 않으시며 우리 나라에서 유독 자기자신만이 고이 앉아 허송세월을 한다고만 생각하실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먼저 열렬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없이도 지금 자기가 가르치고있다는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감하신 긴숨을 내쉬시면서 어머니의 무릎에 두손을 얹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정히 속삭이시였다.

《어머니의 아들딸들은 지금도 저를 도와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또 나는 일하기가 점점 쉬워지는겁니다. 이제는 그저 어머니만 몸성히 오래 앉아계시면 나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그 간호원이야기를 꺼내시였다. 낮에는 병원에 나가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다하고 밤에만 어머니곁에 와서 같이 자면 어떻겠느냐고 의논하시였다.

어머니는 마침내 눈물과 흐느낌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일손이 딸리는 나라의 원로력이 아니라서만은 아니였다. 그처럼 마음쓰시는 장군님께 어머니도 이이상 더는 걱정을 끼쳐드릴수가 없었던것이다.

《어머니, 이제는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일할수 있습니다. 침대도 하나 더 가져다놓읍시다. 줄당콩농사도 같이 짓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몹시 기쁘시여 줄곧 환히

웃으시였다.

어머니도 눈물어린 두눈을 쏘프리며 세상에 시름하나 없는 그러한 표정으로 웃고있었다...

날씨는 그 이튿날도 무척 좋았다. 풍년작황을 위해서는 안성맞춤으로 찜뭉꾸었다. 집무실안에 까지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는 정원수의 섀레임만 없다면 바람기가 아주 없는 날씨로 생각할수 있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한시간쯤 앞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일시다 뒤로 미루시고 부관이 안내하여온 한 처녀부터 만나시고계시였다.

탄력보다는 부드러움이 더 느껴지는 조용한 처녀였다. 지성은 겸손과 소박성숙에 있고 말은 가슴속에만 깊숙이 간직되어있는듯한 얼굴이였다.

(이런 처녀가 어머니앞에서는 그렇게 명랑하단 말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손을 잡아 처녀를 자리에 앉혀주시였다. 자신께서도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 처녀곁에 자리를 같이 하시였다. 그러시더니 마침내 처녀의사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아주 중대한 일을 의논하시듯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명숙이한테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녀의사는 자리에서 조심히 일어났다.

《수령님,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십시오.》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하고 대견하시여 녀의사를 자리에 앉게 하시였다.

《가만, 명숙동무는 장길녀어머니가 마음에 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녀의사의 머리라도 쓰다듬어주시듯 이윽히 바라보시며 평범하게 물으시였다.

처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그 웃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하시였다.

《명숙동무는 오늘부터 장길녀어머니의 건강을 전적으로 돌봐드려야 하오. 어머니의 곁에서말이야... 그러니까 혁명초소는 오늘부터 병원이 아니

라 장길녀어머니네 집이요.》

녀의사는 너무도 뜻밖의 숭고한 세계를 체험하고있었다. 실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있어보지 못한 소문없이 빛나는 의사의 초소였다.

《알았습니다. 수령님! 꼭 해내겠습니다.》

《부탁하오. 동무는 일이 바쁜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곁으로 가는거요.》

두손으로 그이의 한손을 소중히 잡아진 처녀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친히 돌리시는 수령님의 은정을 직접 받아안은 심정으로 어깨를 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녀를 친히 정원에까지 나와 배려주시며 어머니의 줄당콩농사도 잘 도와드리라고 타이르시였다.

《자기의 아들딸들을 어떻게 키웠으며 조국을 위해 준엄한 시련들을 어떻게 헤쳐왔는가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듣고...》

《알았습니다, 수령님!》

녀의사는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갔다.

《수령님, 정치위원회가 열릴 시간은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부관이 곁으로 다가갔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소?》

나라의 중대한 사업들이 언제나 그이를 이렇게 기다리고있었다.

처녀의사를 배려주시던 정원에서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잠시 창가에 다가가시였다. 잘 익은 감빛하늘을 배경으로 쉽없이 섀레이는 정원수의 무성한 가지사이에서 작열하는 저녁해를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저 해빛을 받는 땅, 물을 가진 저 땅에 뿌리를 박은 정원수만이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펼칠수 있었다. 해빛을 받아 영양소를 만드는 가지와 잎사귀가 있어 줄기와 뿌리가 보존되며 커질수 있었다.

이제는 한갓 레사로와진 그 생물학의 원리도 이 순간 그이께만은 하나의 단순한 자연법칙으로가 아니라 정원수에 고유한 어떤 의리로만 느껴

지시였다. 바로 저것, 법칙과도 같이 어길수 없는 저런 의리가 없이는 사람도 참되게 살수 없었다. 정의로운 의리를 떠나 힘과 무장만으로는 혁명을 할수 없었다.

의리가 없는 참된 인간이란 있을수 없듯이 의리가 없는 애국자, 혁명가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그것을 지녔거나 지향한 사람만이 미래와 함께 남을수 있는것이였다. 더 높은 도덕과 더 높은 의리를 낳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뒤집을 지신채 그냥 방안을 거니신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시였다. 종래의 력사는 어째서 크나큰 위훈을 세웠거나 조국을 지켜 용감히 싸운 사람들만을 가리켜 애국자나 영웅으로 불렀을까. 그러한 애국자들과 영웅들을 소문도 없이 키워내고 조국을 위해 것처럼 사랑하던 자기의 아들딸들을 눈물도 없이 바쳤으며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조국으로부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어머니들은 어째서 애국자로 영웅으로 될수 없는가.

이런 생각에 잠겼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침내 책상으로 다가가시여 부관이 가져온 문건을 펼치시였다. 그러시더니 방금있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토의안건에다 친히 마지막 세번째로 《전국어머니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라고 써넣으시였다.

.....

력사적인 전국어머니대회가 열리는 대극장은 승엄한 정적속에 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인 어머니들은 한없는 흠모와 충성의 열정을 안고 이제나저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석단으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길녀어머니로 하여 휴계실에 지체하고계시였다.

어머니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괜히 가슴을 설레이며 진정하지

못하던 장길녀어머니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석단으로 나가자는 말씀을 하시자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제가 어찌 그런 높은 자리에...》하고는 따라온 명숙이를 부둥켜안은채 그냥 어깨를 떨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흐리신 안색으로도 애써 웃음을 지으시며 잔약한 어머니의 어깨를 껴안으신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드리시였다.

《어머니야말로 저 자리에 떳떳이 나갈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를 훌륭히 키워내여 오늘을 위한 혁명에 바치신 어머니야말로 온 나라의 존경속에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에 어머니는 더욱더 흐느끼고 명숙은 어머니의 두손을 안타까이 잡아 흔들며 그만 우시라고 했다.

《어머니, 지금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한참만에야 겨우 어머니를 진정시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석단으로 통하는 휴계실의 문을 활짝 여시였다.

순간, 장내에서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웃도 머리도 깨끗이 하얀 어머니는 겨우 참고 그쳤던 흐느낌을 다시 터쳤다.

친히 손잡아 자신의 곁자리에 어머니를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래도록 서시여 박수로 답례하시였다. 감격에 겨운 만세의 환호성이 점점 더 고조되자 그이께서는 어머니의 한손을 잡아 높이 드시였다.

그 환호성이 몇기를 기다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자식들을 영웅으로 키워 혁명에 바치고 자신 또한 혁명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는 장길녀어머니를 영웅으로 소개하는 말씀을 하시였다.

연방 터져오르는 박수를 받으며 어머니는 내내 흐느껴울었다.

# 당을 생각하는 마음

김석주

우리 다는 몰라라, 당이어  
그 사랑 그 품  
그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지

봄날의 아지랑이마냥  
가슴에 피여오르는  
이 행복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것이나

당을 생각할 때면  
가슴에 푸근히 젖어드는  
인자한 어머니 모습  
그 자애로움과  
한없는 따사로움

그대를 우러르는  
우리의 눈빛은  
애무의 정이 어린  
어머니의 그 얼굴을 쳐다보는  
맑은 눈동자

그대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은  
멀리 문밖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들어서던  
천진한 시절의  
순결한 마음

그러하더라, 당이어  
기쁜 때면 기뻐서 먼저 찾게 되고  
어려운 때에도 먼저 부르게 되던  
그런 어머니

깨끗한 양심으로  
숨은 사연도 더놓고싶고  
꾸지람할 때조차

그 음성 다심하고 정다웁던  
그런 어머니...

무엇이라 이야기할수 없구나  
그 정다운 품  
한마디로 다 이야기할수 없어라  
고마운 당의 품을

사람들은 비기더라  
그 사랑 하늘의 넓이에  
그 품을 바다의 깊이에

하지만  
그 하늘  
그 바다  
그 땅도  
다 안겨있더라  
어머니당의 품에

비길수도  
헤아릴수도 없으려  
우리모두의 운명도  
조국의 오늘과 래일도  
그 품이 다 안고있기에  
시작도 끝도 없는  
그렇듯 위대한것 아니던가

백두에서 안아온  
노을빛 기폭에 싸여  
우리모두 첫 삶을 받아안았고  
그대의 마음을 닮고  
그대의 숨결을 지닌  
영원한 당의 아들

그대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어떤 품이  
따로 있으랴

그 품에서  
가슴에 품는 맑은 피도  
영생으로 빛나는 삶도  
받아안았기에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긴  
그렇다, 우리는 위대한 당의 아들

그대 없이 우리 무엇이라  
우리가 하나의 별이라면  
그대는 수억만 별에 빛을 주는  
태양

크나큰 그 품이 있어  
이 땅위에 살고있는  
천만심장들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뜻으로 뭉쳤고

그 빛발아래  
언제나 가슴에 가득한  
말없는 기쁨도  
가슴속 행복이 비낀  
우리의 얼굴도  
이처럼 밝은것 아닌가

언제나 봄날의  
그 들길을 가듯  
당의 향도따라  
밝은 앞날을 향해  
우리 성스러운 위업 받들어나가고

백두산정에 흐르는  
해돋이의 노을처럼  
우리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희망을 안고  
날마다 당의 뜻 꽃피워가리

당이어, 향도의 해발이어  
우리는 영원한 당의 아들  
언제나 맑은 눈동자로  
그대를 우러르고  
영원히 순결한 마음으로  
그대만을 따르리

위대하고 신성한 품  
영원한 삶의 품  
아, 한없이 귀중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어

## 카륜의 해불

박호범

높푸른 하늘  
신성한 강토  
지금은 모든것이  
우리의것  
우리의 세상  
  
허나  
반세기전 그날에는  
어찌하여  
이 하늘 이 강토가  
침략의 칼에 찢겨

태질하며 몸부림쳐야 했던가  
  
말하라  
짓밟혀 가슴치던 강토여  
그 누가 너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력사의 언덕우에  
높이 오르셨던가  
  
아 그이는  
**김일성** 동지

가도가도 끝없는  
거칠은 황야우에  
혁명의 미래를 안으시고  
찍어가신 거룩한 그 자욱

아 오직 한분

**김일성** 동지

두견새 피울음을 우는  
광막한 하늘에 지퍼올리신  
카륜의 불빛이여

피에 젖은 수난의 역사를  
해불로 불사르시며  
혁명의 진로를 여신  
민족의 구성 **김일성** 동지

세월을 휘어잡으시려는듯  
거연히 손길을 드시여  
주체의 전략을 펼치시여라  
아 누리에 올리는  
카륜의 위대한 선언이여

-홀어지면 모래알로 짓밟히고  
몽치면 거창한 산악으로 솟으리니  
우리 몽치여  
무장을 든 산악이 되자!

력사박으로 밀려났던 인민을  
력사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그 위대한 진리로  
새세기의 누리를 밝힌  
아 카륜의 밤, 카륜의 밤

자주의 닳을 높이 올리고  
조선은 그 밤에  
풍파만리를 헤가르며 떠났나니

그것은 억눌렀던 인민이  
력사의 노를 잡은  
장엄한 흐름이었다

빼앗긴 세상  
저주론 세계를  
모조리 갈아엎는  
걸음걸음 혁명의 진로

강철의 당을 이끄시고  
자위의 무력을 거느리시고  
고난의 천만리를 헤쳐  
영광의 천만리를 펼쳐온  
우리 혁명의 반세기

그 길우에  
사나운 두 제국주의를 거꾸러뜨리고  
자위의 성새로 솟아올랐다  
그 길우에  
지도에서 없어졌던 조선이  
락원으로 솟아올랐거니

위대하신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카륜의 언덕에 오르셨던 그날처럼  
주체조국의 령마루에 서시여  
자주의 새 세계우에  
태양과 같이 그 빛발 뿌리신다

조선이 가고  
온 세상이 가는  
력사의 새시대우에  
아 위대하신 **김일성** 동지!  
그이는 만민의 아버지  
혁명의 중심  
그이는 온 세계이시여라!

## 당에 영광을

문재건

우리는 생활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창한것을 접하게 될 때나 또 평범하게 스칠수 있는 작은것을 대하게 될 때에도 언제나 뜨거운 마음 안고 당을 먼저 생각한다.

길가에 피어난 한송이 꽃을 보아도 언덕에 주렁진 향기 그윽한 과일을 바라보아도 집채같은 기대들이 돌아가는 기계바다 한복판에 서있을 때 도 우리는 먼저 당을 생각한다.

행복한 저녁 온 가정이 텔레비존앞에 모여앉아 영화의 장면장면을 보면서도 깊은밤 구내에 울리는 심야방송의 은은한 선율이 안겨주는 숭고한 감정에 휩싸이면서도 우리는 뜨겁게 당의 사랑을 생각한다.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 우리 옮기는 걸음마다 대하게 되는 이 모든것에 우리 당의 뜨거운 손길이 어려있고 사랑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우리는 당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당을 떠나서는 저 푸른 하늘도 맑은 대기도 우리의것이 될수 없다는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있다.

우리 당이 있기에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궁지도 있으며 자랑찬 기적들로 수놓아진 위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창조물들이 있으며 삶이 빛나는것이다.

우리의 운명도 조국의 번영도 찬란한 미래도 오직 당이 가리키는 그 길에 있고 당이 높이 추켜든 그 기치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것을 당과 결부시키며 제일 먼저 당을 생각하는것이다.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 마침내 《트. 드》의 장엄한 선언으로 우리 당의 첫뿌리를 내리운 화전의 나날들을 생각한다.

이때부터 우리 혁명은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였고 빛나는 투쟁의 년대기우에 우리 당의

새 력사가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하늘이 얼어들고 땅이 어는 그 엄혹한 세월, 주체의 해발로 강토를 녹이시며 인민대중의 깊은 토양에 우리 당의 뿌리를 내리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우에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기록되었다.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간고한 투쟁의 낮과 밤을 거쳐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새우신 밀림의 밤은 그 얼마이며 걸으신 눈보라길은 그 얼마였던가.

끝없는 대자연속에서 하나하나의 샘물을 찾아내어 내물로 합치고 그 내물을 모두어 강줄기로 굽이치게 하여 망망한 바다를 이루듯 한명한명의 혁명가들을 몸소 키우시고 대중을 이끄시여 당이라는 거창한 바다를 이루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 험난한 길에서 한명한명의 혁명전사들을 몸소 품에 안아 우리 당의 골간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품속에서 우리 당의 역센 뿌리가 마련된것이다.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간고한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이기에, 가장 깊은 력사적인 뿌리를 가진 당이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력사의 초행길을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따라 걸어온 당이기에 우리 당은 것처럼 위대하고 필승불패인것이다.

언제나 인민의 심장속에 있으면서 인민의 념원과 기대와 숙원과 지향을 하나로 합치여 그것을 끝까지 풀어주는 당, 것처럼 력사의 요구와 시대의 지향을 투철히 꿰뚫어보고 먼 앞날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조선로동당.

이 강대한 힘을 지니였기에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하는것이다.



참으로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인민은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을 먼저 생각하고 우러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당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한길에서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기록할수 있었고 오늘의 주체조선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얼마전 황주 룡새벌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쌍바위언덕에서 우리와 만났던 한 로인은 말하였다.

《천지개벽이지요.

지난날 하늘만 바라보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이 룡새벌 사람들이 오늘은 기계를 타고 농사를 지어 하늘이 들리게 풍년로적가리를 쌓는 이 땅의 주인이 되였시다. 옛날에서 이런 농사 꿈이나 꾸어보았겠소. 이게 다 우리 수령님과 당의 덕분이지요.》

세상풍파를 다 겪은 로인의 주름 많은 얼굴엔 기쁨이 함뿍 어려있었다.

황금물결 설레이는 만풍의 벌과 벌, 아득히 흘러간 철탑밀로 기적소리 높이 달려가는 전기기관차를 바라보는 로인.

그 어디선가 훨훨 깃을 치며 날아오는 흰 두루미떼와 하얗게 회벽칠을 한 문화주택들이 아담하게 들어선 산기슭 마을을 정겨운 눈으로 바라보는 로인.

그는 고마운 당의 품을 생각하며 래일의 조국을 그려보는가!...

검덕광산에서 우리와 만났던 한 로광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정치적생명도 보람찬 로동도 행복한 생활도 모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이 안겨준것입니다.》

열세살적부터 검덕땅에서 아버지를 따라 오소

리굴같은 막장을 기어다니며 쇠돌을 캔 광부.

그때 이 광부의 머리우엔 푸른 하늘이 없었고 빛나는 별이 없었다. 있다면 오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동발 없는 죽음의 굴이 큰입을 벌리고있었을뿐.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에 얹힌 그들의 등허리와 머리우에 가차없이 내려지는 채찍을 막아낼 그런 힘이 아직 그들에게는 없었다.

아버지는 굴이 내려앉아 막장에서 숨지고 어린 광부-《노예》만이 아버지가 들고있던 어령이를 끌고 막장에서 기어나올수 있었다.

그는 해방후에야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쓰게 되였고 당의 강령을 읽게 되였다.

그는 막장에서 오매에도 흠모하여마지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꿈같은 영광을 지냈고 자기의 충성스런 로동으로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다.

황주 룡새벌의 로인과 검덕의 로광부의 흥분된 말, 그속에는 모든 행복과 승리와 창조의 시원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조선로동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움직일수 없는 우리 인민의 신념이 깃들여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당을 그토록 신뢰하며 당에 모든것을 맡기고 당의 부름에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우리 당은 우리모두의 어머니, 우리모두의 행복.

하기에 우리 인민은 당을 생각할 때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당을 생각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생활에서 스스로 찾은 대답인것이다.

우리는 얼마전에 인민학교 학생이 쓴 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적이 있다.

황해남도 은틀군의 어느 한 인민학교에서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조직하였다.

그중에서 인민학교 3학년 학생이 쓴 글에는 다

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는 언제나 마치고 낮과  
붓을 새긴 붉은 기발에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진 초상휘장이 빛나고있습  
니다.

나는 아침마다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에 모  
셔진 초상휘장을 우러러보며 조선로동당은 아버  
지 **김일성** 원수님, 조선로동당은 붉은 기발이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새겨보군합니다. ...》

이제 열살밖에 안되는 천진한 소년이 쓴 이  
글.

이 글에는 이 땅에 자라나는 어린 심장들에도  
우리 당의 힘찬 맥박이 고동치고있으며 당의 은  
혜로움이 깊이 자리잡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우리 당의 무한대한 불패성과 당당한 권위와 위신은  
오직 혁명의 뇌수이며 심장인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  
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세기와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영원히 해방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는 영광의 반세기 길없는 길들을 앞장서  
내시고 인간이 체할수 있는 그 모진 고통과 슬  
픔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선의 언덕들을 수  
없이 넘으시며 당을 창건하시고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언제나 영광만을 받아안을수 있었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자기 당의 창건자인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  
하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따라 변함없이 나  
아가는 우리 인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이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수 없는 그렇듯 크고 귀중하고 고  
귀한것이다.

오늘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구  
호를 높이 들고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변혁하는 장엄한 진군을 계속하고있다.

우리는 이 길에서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앞을  
가로막아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오직 위  
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  
따라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갈  
것이다.

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  
로!》라는 영광스러운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강대하고 유족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  
의 락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것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 기치 높이 조  
선은 힘차게 앞으로앞으로 나아갈것이다.

달려온 길 보람차고 달려갈 길 또한 영광에 찬  
우리의 진군길.

우리 달려온 70년대를 돌이켜보자.

얼마나 거창한 대건설의 기념비들이 이 땅에

솟아올라 빛을 뿌리는것인가.  
저 마천령산줄기에서 끝없이 쏟아져내리는 쇠  
돌의 폭포를 보라.

저 서해의 기슭에 아득히 뻗어나가 광란하는  
파도를 짓누르며 조국의 지도를 넓혀가는 해상의  
무지개다리, 은물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를 보  
라.

새로 일떠선 화려한 거리들과 속도전의 열풍속  
에 이 땅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태어난 70년  
대!

숨은 영웅들이 충성의 꽃으로 이 땅우에 만발  
하고 주체시대의 참된 영웅들이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처럼 무수히 태어나는 나의 조국.

그 길우에서 덧없이 흐르던 강물도 흐름을 바  
꾸어 당의 구상 따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흘러흐  
르고 아름답리 강철기둥들을 다듬어내는 육중한  
프레스들이 이 땅우에 번쩍이는 강철의 밀림을  
가꾸어가리라.

하기에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을 따라 나  
아가는 우리 인민은 그 길에서 드림없는 그 신념  
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가르침을 무  
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거기에서  
생의 보람을 찾고있다.

당이 안겨준 그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오직 충

성으로 보답하는 그 길만이 자기의 혁명적의리를 다하는 길이며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라는것을 삶의 철리로 삼고있는 인민이다. 때문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맞는 우리 인민은 지금 얼마나 벅찬 감격과 흥분속에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가고있는것인가.

장엄하게 일떠선 대형기계생산기지-대안중기계공장 건설자들이, 조국의 푸른 창공우에 끝없이 나래치는 인민의 희망처럼 푸른 지붕을 아득히 없고 높이 솟은 인민대학습당건설자들이 승리의 함성높이 대축전장을 향해 도도히 굽이친다.

김철과 황철의 강철전사들이, 함흥과, 남흥의 로동계급들이, 안주와 금야의 탄부들이, 열두삼천벌과 채령나무리, 함주벌의 농업전사들이, 온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초소, 모든 단위들에서 《100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이룩한 거대한 창조물들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 혁명의 행군길우에 또 하나의 빛나는 리정표를 아로새기며 이제 달려갈 휘황한 봉우리들을 밝혀줄 우리 당 제6차대회!

온 누리는 지금 조선에서 터져오를 장엄한 축포와 환호의 메아리에 귀기울이며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손길을 보내고있다.

영광, 영광을 드린다. 조선로동당에 빛나는 년대와 년대들을.

불멸의 위업으로 수놓은 조선로동당에 영광을 드린다.

## 해바라기

윤병규

길가에 마당가에  
길길이 우거져  
환히 웃는 환히 웃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웃음이 온통 네 얼굴이나  
얼굴이 그대로 웃음덩이나  
세상 모든 기쁨 다 안아  
타는듯 그리도 밝게 웃느냐

밤이슬로 곱게 마음 씻고서  
솟는 해를 서둘러 반기는 네 모습  
언제 봐도 어디서 봐도  
내 맘같이 깨끗하고 열렬해

비바람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머리들어 머리들어 웃는 너  
태양의 빛발로만 벅차게 숨쉬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 땅 천만꽃보다 더 높이  
태양으로 태양으로  
한마음 불태워 삶을 빛내이는  
내 사랑하는 꽃이여!

아 해바라기 해바라기 한모습에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숨결이, 밝은 얼굴이  
뜨겁게 어리어있네 비끼여있네

## 당의 은혜로운 해발아래 개화발전한 우리 문학의 자랑스런 성과

강능수

오늘 우리 작가들은 승리의 높은 공지와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우리의 주체적문학발전에서 거대한 전환을 가져올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대회에서 밝혀주실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10년,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볼 때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이 기간에 이 땅우에는 그 얼마나 거대한 의의와 심오한 내용으로 충만된 력사적사변들이 굵이쳐간것인가.

우리 당 제5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올린 력사적인 선언, 지난날 락후한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이 땅우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승리에 대한 선언을 격동된 심정으로 받아안던 때가 어제같은데 얼마나 멀리 우리는 달려왔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는 주체형의 새 인간들이 수많은 태어나고있으며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대를 이어 충성다할 열정에 차넘치고있으며 이 뜨거운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동지로, 형제로 불리우며 굳게 뭉쳐여있다.

오늘 발전된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그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공고하고도 강위력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였다.

민족대번영의 자랑스런 새시대가 이 땅우에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이 모든 빛나는 승리와 기적적인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방침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과시하는것이며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시고 발기하신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비할바없는 위력을 시위하는것으로 된다.

또한 그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적과정을 심오하게 통찰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전투적구호로 내놓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이것은 공산주의의 최종목적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가 가장 완벽하게 밝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혁명적기치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은 주체문학, 공산주의문학이라고 밝히고 문학자체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았으며 주체적문학건설의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방도를 제시하여주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주체적문학건설의 독창적인 방침은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가장 완성된 문예리론으로서 창작실천과 문예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462페이지)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대가 제기하는 과업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로정을 걸어

왔으며 소설문학을 비롯하여 시문학과 아동문학, 영화문학과 극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들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하였다.

지난기간 주체적문학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문학예술형태들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이 당의 지도밑에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성황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영화, 가극, 연극, 장편소설들에 훌륭히 옮겨질수 있게 된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지위를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함으로써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총화기간 소설문학에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비롯하여 장편소설 《평양시간》, 《새봄》, 《생명수》, 《갑오농민전쟁》 등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100여편의 장, 중편소설들과 수많은 단편소설들이 왕성하게 창작됨으로써 소설문학의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게 되었다.

소설문학과 함께 우리의 시문학은 서정성을 강화하고 시문학의 특성을 백방으로 살릴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시문학리론을 구현해나가는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시문학분야에서는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 서정서사시 《길이 빛나라 주체의 조국이며》, 서정시 《나의 조국》, 가사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등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총화기간 우리의 아동문학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한 구성부분으로서 자기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아동소설, 동요, 동시뿐만아니라 동화, 우화문학의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아동소설문학이 이룩한 성과가운데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지는것은 《만경대》, 《배움의 천리길》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이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훌륭하게 창작된것이다.

동시에 중편소설 《초순이》를 비롯한 많은 아동소설들과 동화 《다람쥐네 고간》을 비롯한 동화 우화작품들 그리고 동심적서정이 흘러넘치는 동요, 동시 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됨으로써 우리 아동문학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였으며 아동문학이 후대들을 우리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교양육성하는데 더 잘 복무할수 있게 되었다.

총결기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희곡과 영화문학, 가극문학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지난시기 영화와 가극, 연극 혁명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의 기초에는 이러한 문학의 혁신적성과가 놓여있는것이다.

실로 우리 문학의 전면적개화발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제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문학을 빛나는 승리로 힘있게 이끌어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 1

우리 문학에서 주체를 세우며 혁명문학을 건설하는데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문제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킨것이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적문제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문학예술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참담게 아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은 오직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문제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므로써만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문학으로 될수 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이 집대성되어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에 옮기는 사업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며 문학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거대한 력사적위업을 빛

나게 완수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우리 문학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원작이 담고있는 높은 사상예술적 내용을 훌륭히 옮겨놓은 영화와 가극의 빛나는 모범을 본보기로 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장편소설들에 옮기는 거창한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김에 있어서 그것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상특성에 맞게 옮길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문학에 옮기는 거창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킬때에만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은 자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는 혁명문학건설의 원칙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참다운 리론실천적해답을 주었다.

우리 문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문학에 옮김으로써 혁명적문예전통에 대한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도록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문학은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에 옮김으로써 혁명적문학건설의 참다운 본보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우리 문학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결정적인 계기를 열어놓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공산주의문학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로동계급의 문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문학이며 이 문학의 당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그 최고의 표현을 보게 된다.

더우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여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우리의 혁명적문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문학작품에 높이 모시는것은 가장 긴급하고도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문학작품에 모시는것은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열렬한 념원이기도 하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불멸의 업적을 최상의 사상예술적높이에서 형상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길을 빛나게 개척하였으며 우리의 주체문학건설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의 형상창조 문제를 우리 시대 문학앞에 나선 초미의 과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위력한 창작집단을 꾸려주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반영할수있는 장편소설들의 묶음인 총서형식을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이 발기한 총서형식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담긴 내용을 반영함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형식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은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사건을 막론하고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지 않는것이란 없다.

또한 《불멸의 력사》로 이름지어진 총서형식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년대기적순서로 따르면서도 문학적인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형식이다. 그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작품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혁명력사를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성을 가지지만 총서를 이루고있는 매개 장편소설들은 서로 다른 종자와 주제, 사건, 인물들을 선정하고있다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심에 있어서 최대의 정중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형상창조에서 리론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사상가,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풍모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형상하는것은 관건적이며 선차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나누시는 수령님을 형상하는 것은 위대한 사랑과 고귀한 혁명적의리를 체현하고 계시는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풍모를 형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문학은 또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에 의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반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던 역사적내용취급에서 역사적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그 본질을 천명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자료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형상하며 매 역사적시기에서 종자를 잡고 그 해명에 모든 형상들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불멸의 화폭속에 빛나게 모신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비롯하여 《1932년》, 《혁명의 려명》, 《고난의 행군》 등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탄생, 이것은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이 주체문학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불멸의 화폭에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언제나 몸가까이 뵈고싶어하는 인민들의 절절한 시대적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게 되었으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 2

지금까지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어온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세계를 개조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인 주체시대는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를 깨우쳐주며 사람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문학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2권, 573페이지)

새시대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문학은 무엇보다 인간의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주어야 하였으며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주성을 옹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고무하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제로 내세워야 하였다.

우리 시대가 문학앞에 제기한 이러한 문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구현하여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공산주의인간학에 대한 리론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공산주의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의 창조를 근본요구로 하는 새로운 문학이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어야 할 문학에서의 새로운 혁신이며 거대한 변혁이다.

또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새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인간의 운명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근본문제를 제기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새시대의 요구를 가장 투철하게 반영한것으로 된다.

여기에 바로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리론이 로동계급의 문예리론발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게 되는 근거가 있으며 그 위대성이 있다.

과거의 진보적문학의 선진성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인간의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한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세계관적 제한성으로 하여 그를 옳바르게 제기할수도, 해결할수도 없었다.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 자주성을 지키며 그를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을 창조할것을 요구하는 문학인 공산주의인간학은 또한

가장 존엄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보여주는 문학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한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것을 의미하며 자주성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은 곧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을 떠나서 그 어떤 다른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인간의 참다운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여기에 공산주의인간학이 인간의 존엄과 참다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문학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우리 문학은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빛나게 관철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문제를 내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힘있게 고무하는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추동하는 혁명의 무기로 되었다.

특히 우리 시대의 참다운 전형인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게 된것은 우리 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거대한 문학사적사변으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가 거대한 문학사적사변으로 되는것은 다만 과거에 볼수 없던 새로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 성격속에 오늘과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의 인간들을 대표하게 될 인간들의 정치사상적면모와 정신도덕적품모가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어있다는데 있다.

우리의 주인공들의 주도적성격을 이루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인간의 정치사상적면모와 정신도덕적품모를 규제하며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곧 인간의 세계관의 높이와 그에 기초한 인간의 신념과 신조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말해주는 집중적인 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신념화되고 신조화된것이기도 하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력사에서 처

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는 그길에 오늘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다는것을 생활의 신념으로, 신조로 체득하고있다.

이처럼 사상적으로, 생활적으로 체득된 신념, 즉 신념화된 충실성은 우리 주인공들의 성격의 주도적특징을 이루고있으며 그 매력과 정신적높이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리경준을 비롯하여 《민생단》의 루명을 쓴 일행이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좌경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민생단》이라는 루명을 썼을뿐아니라 대렬에서 추방당한 그들의 걸음은 사실에 있어서 한숨과 피눈물로 엮어진 길이였을것이다. 그러나 먹을것을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한채 밤낮으로 눈길을 헤쳐야 하는 그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길이 이처럼 인간의 신념의 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장 숭고한 시적인 이야기로 엮여지게 된것은 그들의 심장속에 소리높이 맥박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깊이있게 해명하였기때문이다. 다감하고 사려깊으며 바느질 잘하기로 소문났던 리경준의 안해 최선금이 담가우에 누워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그 경황속에서도 동지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해방된 조국에 대한 이야기였고 조국땅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것이였다.

최선금은 위대한 장군님 한분만을 믿었기때문에 치욕적인 《민생단》 런루자라는 일신상의 문제도, 지어는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초월할수 있었으며 이처럼 태연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주인공들의 신념화된 충실성은 또한 자기 사업에 대한 굳은 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에서, 그리고 높은 창조성에서 빛나게 발현되고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주인공 리상철, 장편소설 《새봄》의 주인공 김명진 등을 비롯한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이 체현하고있는 성격들의 매력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주도적인 성격



으로 하는 우리 주인공들의 새로운 특징은 우리 시문학의 서정적주인공의 성격을 규정짓는 공고한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 시문학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서의 사상적발전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과 감정을 깊이있게 체현하며 수령과 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 등에서 표현되는 우리 인민의 주도적감정을 풍부하게 노래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이다.

시인이라면 언제인가 한번은 의례히 노래하였을 조국에 대한 노래가 서정시 《나의 조국》에서 것처럼 새로운 감동과 강한 서정적과동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그러잡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서정시에는 조국과 관련된, 이미 우리의 몸에 배인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한 표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표현수법도 매우 다감하고 정서적이다. 말하자면 조국과 관련된 요란한 표현도 시인만이 알수 있는 그 어떤 뜻도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나의 조국》이 사람들을 깊은 사색속에 잠기게 하는것은 행복도, 슬픔도 같이 나눈 조국, 그 과정에 체득한 자기의 신념과 신조를 시인이 깊이있게 노래하였기때문이다.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즉 시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다정하고 이처럼 친근하고 이처럼 자랑높은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었다. 이것은 시인의 누를수 없는 걱정인 동시에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치는 주도적인 사상감정이다.

우리 문학이 새시대의 주인공들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인간의 영생하는 삶은 어떤것이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공산주의자의 인생관문제를 새롭게 천명한것이다.

우리 주인공들이 체현한 주체의 인생관은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한몸의 안락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혁명투쟁

에서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인생관이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리상으로 삼는 인생관이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에서 영생하는 삶을 찾고있다.

장편소설 《생명수》에서 주인공 박대성과 봉숙이, 이전과 다름없이 달빛이 흐르는 들판에서 발로 수차를 돌리면서 속삭이는 장면이 아름다운 화폭으로 안겨오는것은 결코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달빛이나 그 어떤 아기자기한 상봉의 환희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을 위하여, 특히는 봉산벌 농민들의 가슴에 사무친 물에 대한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할것을 약속하며 거기에서 청춘의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비껴있기때문이다.

우리 시대 주인공들이 자기의 참다운 삶의 의의와 가치를 어디서 찾고있는가 하는것은 가사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가 잘 말해주고있다.

산악도 격랑도 넘고 헤치며  
우리는 머나먼 길 걸어왔어라  
수령님 펼치신 영광의 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워가리라

준엄한 날에도 이 길을 가고  
행복한 나날에도 이 길을 가네  
수령님 펼치신 영광의 길에  
찬란한 공산주의 새아침 당겨오리라

우리 시대 인간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에 한생을 바쳐가는 그 길에 있다. 가사에서는 바로 우리 인민의 이러한 긍지, 이러한 결심을 양양된 정서속에서 노래하였다.

우리 문학은 이처럼 주체의 인생관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의 주인공-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정신세계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있게 반영

할수 있었으며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참된 삶의 의의와 가치를 배워주는 말그대로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문학이 새시대의 주인공들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는 또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완벽하게 해명한것이다.

주인공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형상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는 전형화와 관련된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문학이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 하는 그 기본사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어렵고도 중요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였다.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먼저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으로 분석하고 해명하였으며 혁명적세계관형성의 단계들을 생활적으로 의의깊게 천명하였다.

이에 있어서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와 위대한 주체사상이 주인공들의 세계관형성에 미치는 결정적의의를 깊이있게 해명함으로써 고도로 되는 예술적진실성과 사상적심오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참다운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여 갇은 품과속에 시달리며 모대기던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주인공 유철이가 무한한 환희에 가슴을 들먹이며 주체형의 준비된 공산주의자로 장성하는데서 또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불붙는 증오를 남을 대신하여 감옥살이를 하는것으로서밖에 표현할줄 모르던 장편소설 《영원한 미소》의 주인공 오철규가 항일유격대의 어엿한 지휘관으로 성장하는데서 결정적인 힘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이며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전략전술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가를 혁명가로 되게 하는 기본징표이며 또 바로 다름아닌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되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이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위한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우리 문학은 주인공들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그림에 있어서 또한 평범한 인간의 항일혁명투사로서의 성장과 같은 어려운 과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 문학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형상을 그린다고 하면서 나타날수 있는 단일한 창작태도, 즉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자마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곧 혁명가로 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과 같은 창작태도를 극복하고 항일유격대에 입대하여 체험하는 보람있는 생활들,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우는것, 승리에 대한 환희, 연예활동, 군중정치사업 등 항일유격대안에서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과정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되는가 하는것을 예술적으로 천명하였다.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그린다는것은 사람의 사상의식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증오하는가 어느 계급을 지지하고 어느 계급을 반대하는가 하는 계급적립장과 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그린다는것자체가 주인공을 적대적인 계급과의 치열한 투쟁을 비롯하여 사상투쟁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계급투쟁속에서 보여줄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밝혀주신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생활반영의 진실성뿐아니라 인간의 계급적립장과 태도를 통하여 표현되는 그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릴수 있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의 빛나는 창조, 실로 이는 우리 당이 밝혀준 공산주의인간학의 위대한 승리와 그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과시하는것이며 우리 문학이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공산주의문학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상징하는 가장 뚜렷한 징표이기도 하다.

### 3

문학의 주체사상화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어떤 원칙에서 보장하는가 하는 문제는 창작실천상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공산주의문학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는 그 건설과 관련된 원칙

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예술성을 무시하고 사상성만을 중시하면 사실에 있어서 다른 사회의식형태들과 구별되는 문학의 특성을 소홀히 하는것으로 되며 사상성을 경시하고 예술성만을 강조하면 문학의 목적과 사명을 홀시하게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66~67 페이지)

문학은 오직 높은 사상성을 가져야만 고상한 예술성을 담보할수 있으며 또한 고상한 예술성의 의하여서만 높은 사상성을 구현할수 있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그것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이며 혁명적문학작품의 창작과 주체적문학건설의 가장 원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문학이 다른 사회의식형태와 구별되는 자기의 특성을 백방으로 살려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더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현명한 방침을 밝혀주었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문학의 고유한 특성과 그 발전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문학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소홀히 한다면 문학은 다른 사회과학과 구별될것이 없으며 도대체 문학이란 존재가치가 없는것이다.

또한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견지하며 그를 발양시키는가, 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을 발전시키는가 발전시키지 못하는가 하는것을 좌우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과학적인 방침에 기초하여 소설문학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인 묘사를 기본으로, 풍부한 서정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하는 서정시는 그러한 특성을, 아이들의 동심에 의거하고있는 아동문학은 아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였으며 또한 그것을 일관한 방침으로 내세웠다.

오늘 우리 문학이 그 어떤 좌우경적편향에 기울어짐이 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왔고 찬

란한 개화기를 맞이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관계문제는 리론적으로나 창작실천적으로 언제나 날카롭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호상 제약되면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내용을 가진 미학적개념이기때문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진정한 결합은 바로 량자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데 의하여 실현된다.

주체적문제리론은 사상성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예술성을 보장하는것이 사상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담보하고 그 진정한 결합을 실현하는 기본원칙이라는것을 밝혀주었다. 높은 사상성을 떠나서 예술성이란 있을수 없으며 또한 고상한 예술성은 심오한 사상성과 언제나 하나로 결합되어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호상관계, 량자간의 완전한 결합에 대한 해명은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거창한 력사적시기, 정치사상적측면에서나 정신도덕적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투철하게 체현한 새형의 인간들이 탄생하고있으며 일찌기 그 어느 시기에도 있어보지 못한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수없이 제공하고있는 우리의 주체시대를 마음껏 노래하는 문학으로, 그리고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자기의 다양한 개성을 활짝 꽃피우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게 하고있다.

주체적문제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작품의 사상성을 보장한다는 미명밑에 작가의 의도를 직선적으로 표현하거나 이야기줄거리로써 형상을 대신하려는 현상을 비롯하여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우리 주체문학건설방침과는 인연이 없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창작태도로서 견결히 배격하여 투쟁하였다.

작가의 의도는 주관적의도이며 아직 작품의 사상으로 될수 없다. 사상성은 형상을 통하여 구현된 작품의 경향성이다. 따라서 직선적으로 몇마디 정치적개념을 주거나 정치적술어로써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물에 뜬 기름처럼 굳어지기밖에 될수 없는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문학은 생활을 세부화하고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가 없이 사건적인 이야기줄거리에만 매달려 작품을 쓰려는 현상을 반대하여서도 투쟁하였다. 그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줄거리로써 작품을 끌고나가는가, 또는 생활을 세부화하고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를 주는가 하는 것은 작가의 그 어떤 개성이나 특징과 관련된 문제이기전에 생활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로써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는 작가의 근본자세와 관련된 문제로 주체적문학건설의 요구와 우리 시대 인민들의 감정에 맞게 문학을 창조하는가, 또는 낡은 문학의 잔재를 보존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생활의 세부화, 깊이있는 분석적인 묘사는 형상단위를 어떻게 정하며 생활을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화폭적으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고 생활의 의미를 풍부하게 반영하는가 하는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우리 문학은 생활의 세부화, 깊이있는 분석적인 묘사를 보장하는것을 주체문학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 그를 일관하게 관철하여왔다.

오늘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영화문학 《초행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들에 아로새겨진 빛나는 화폭들과 의미심장하고 생동하며 거듭 읽을수록 새로운 뜻과 감흥을 자아내는 생활세부들이 주옥처럼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나오는 윤철녀의 형상만이라도 상기해보자. 언제나 두개의 군용밥통이 매달린 배가 불룩한 배낭, 그리고 너무도 일찌기 머리가 버성겨진 그의 정수리는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것인가. 그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에 대한 그의 충실성과 혁명동지들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보여주고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윤철녀는 《민생단》 혐의를 받기전이나 받을 때나 변함없이 그 배낭을 메고 다니는것이며 지어는 《민생단》 혐의자들과 같이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는 그 영광의 시각에조차 그 배낭을 메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 주시고반으심이 없이도 버성겨진 윤철녀의 정수리와 밥통이 매달린 배낭을 보시고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죄행이 얼마나 허망하고 악랄한가 하는것을 통감하시며 분

노에 잠기시는것이다.

영화문학 《초행길》에서 작가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발견되고 지성적으로 분석된 생활세부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기관단총을 시사하는 장면이 그처럼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이며 숭엄한 화면으로 안겨오는것도 생활세부탐구에 대한 당의 주체적 문예리론이 있고 그 관철을 위한 창작가들의 진지한 사색과 노력이 있었기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으며 또 치열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부상을 입은탓으로 하여 육체적으로도 불편한 주인공앞에는 넘기 어려운 준령도 많았고 참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지어는 생사를 모르던 아들을 만났을 때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가 기관단총시사에서 성공하였을 때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는것이다. 무엇때문이었던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는 오직 그 한가지 생각으로 강의한 투사 김철준은 눈물짓는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 장면이 작품의 절정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우리 시대의 가장 숭고한것과 행복을 상징하는 불멸의 화폭으로 되었던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문학은 사상성을 비속화하는 현상을 배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예술성을 비속화하는 현상을 반대하여서도 투쟁하였다.

예술성을 비속화하는 현상은 결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이 없으며 현실을 미화분식하는데서 표현되었다.

예술성은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독자적인 개념이며 사상성을 떠난 예술성이란 사실에 있어서 무의미하다. 서정을 위한 서정, 생활의 본질의 천명을 떠난 그 어떠한 화려한 묘사도 사실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사상성과 예술성자체를 비속화하는 이러한 현상은 모두가 창작에서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로부터 나온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완전한 결합을 보장하는 원칙을 밝혀주었을뿐아니라 창작실천에서 그것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는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었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는 문제

는 작가의 준비정도에도 달려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창작에서의 작가의 자세이다.

작가의 자세,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무엇때문에 작품을 창작하는가 하는 작품창작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이며 또한 어떠한 립장에서 작품을 쓰는가 하는 작가의 립장과 관련된 문제이다. 창작의 목적자체가 뚜렷하지 못할 때 거기에서 그 어떤 높은 사상성에 대하여 바랄수 없으며 또한 고상한 예술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작가에게 있어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은 창작적목적과 함께 작가의 립장과 관련되어있다. 즉 그것은 작가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작가의 립장은 결국에 있어서 창작에서 발휘되는 작가의 충성심에 귀착된다.

작가의 충성심은 온갖 형식주의, 요령주의, 무책임한 창작태도를 극복하고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완전한 결합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에 관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문학작품에서의 종자에 대한 리론의 창시와 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미학적개념을 밝힌것이다.

종자에 대한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안개속에 잠겨있던 문학작품의 핵이 무엇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작품의 생명이며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의의있는 종자를 잡아쥐고 문학이 무한히 비약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진것으로 된다.

동시에 종자에 대한 리론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또한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문학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준데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고 밝히고있다.

작품의 종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파악된 사상적알맹이이다. 여기에 바로 생활을 추상화하며 개념화하는 다른 사회과학과 문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문학의 종자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 문학작품의 종자는 생동한 생활을 통하여 파악된 사상적알맹이이기때문에 작품내용의 기본으로 되는 동시에 형식의 기초로 되며 그것을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된다.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은 작품이 얼마나 생활의 본질을 깊이있게 일반화하였는가 하는 전형화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아무리 생동하고 흥미있는 생활을 펼쳐놓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화의 수준이 낮으면 의의가 없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개념을 밝힘으로써 작품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무한히 높일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

철학적깊이는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어떻게 생활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였는가. 인간문제, 사람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자주성을 지키고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깊이있게 해명하였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라고 밝힘으로써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었다.

우리 문학은 종자에 관한 리론과 철학적깊이에 대한 리론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참으로 사상성과 예술성의 완전한 결합이 실현된 문학으로 높은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가진 주체문학으로 더욱 개화발전할수 있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주체문학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은 또한 우리 작가들이 당의 믿음직한 작가대오로 끊임없이 성장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이기도 하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믿음직한 작가부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작가대렬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이 혁명적 문학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그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 당이 밝힌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작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혁명적문학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 확고한 담보로 된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작가대오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성의 대오로 믿음직하게 자라났으며 그들의 창작적재능과 개성이 활짝 꽃피어남으로써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는 거대한 혁명적양양이 일어나고있다.

이것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가 주체적인

문학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주체적문학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지난날 우리 문학이 걸어온 로정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것이며 앞으로 우리 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휘황찬란하다.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주체적문학의 앞길에는 더욱 찬란한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모호하다	똑똑하지 않다. 흐리터분하다	목측	눈어림, 눈짐작, 눈대중
모찌브	계기, 동기	목탄	숯
모양말	털양말	목형	나무본
목격자	본사람	몰탈	죽, 반죽
목공공구	목수연장, 목수도구	몽롱상태	어스름상태
목공예	나무공예	묘목	나무모
목교	나무다리	묘사	그리기
목기	나무그릇	묘준	겨누기
목본식물	나무식물	묘준거리	겨눔거리
목선	나무배	묘준하다	겨누다
목저가락	나무저가락	무감각시간	못느낌시간
목전의	눈앞의, 코앞의	무곡	춤곡
목재건조	나무말림	무기명	이름안씀
목재판	나무판	무개차	지붕없는차
목제품	나무제품	무도	춤
목차	차례	무대전환	무대바꾸기

## 우리 당이 창건된 력사의 나날

-당창건사적관을 찾아서-

장윤길

가없이 푸른 하늘에 흰구름이 춤춘다.

못새들이 무리져 날아오른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가로수들도 기쁨에 설레는듯

10월의 아침이다.

뜻깊은 영광의 10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시고 고마운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여 진행되는 여섯번째 당대회를 맞이하게 된 10월,

귀기울이면 당의 숨결인양 쇠물이 끓는 소리 들려오고 바라보면 하늘이 들리도록 쌓아올린 풍년날거리 보이는듯...

《100일전투》의 나날을 넘어 승리자의 더없는 긍지를 안은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영광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끝없이 끝없이 달려오는 이 아침,

우리는 부푼 심정을 안고 당창건사적관을 다시 참관하게 되었다.

벌써 사람들의 대렬이 흘러들기 시작하였다.

어디서 시작된 대렬이 어디서 끝나는것인가. 사람들의 대렬은 당창건사적관으로 한없이 설레며 굽이쳐들었다. 속도전의 진군나팔을 강산에 울리며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던 로동자들, 만선기를 휘날리며 사나운 파도를 헤가르며 바다를 주름잡던 어로공들, 우리 당의 미래의 주인들인 소년단원들, 피부색이 다른 외국의 벗들, 정녕 온 나라 온 세상의 마음들이 여기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해방산기슭 당창건사적관으로 끝없이 흘러들고있는것이다.

주체의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고 우러르며 고마운 생각, 감사의 노래를 안고 당창건사적관으로 들

어서는 우리의 심장은 높뛰었다.

우리는 먼저 제1호실에 들어섰다.

1호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정력적으로 해오신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있었다.

1호실을 거쳐 2호실에 들어선 우리는 해방의 기쁨속에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는 평양시민들의 끝없는 감격의 파도와 새민주조선건설에 떨쳐나선 감동적인 자료들앞에서 강사의 해설을 듣고 제3호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가 정면에 모셔져있는 3호실에 들어서면 실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1945년 10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를 여시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것처럼 갈망하던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던것이다.

실로 우리 당이 창건되기까지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얼마나 많은 파란곡절을 겪으며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왔던가.

일찌기 만경대고향집을 떠나시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신 때로부터 몇몇해가 지났던가. 화전의 등불아래서 주체사상의 횃불을 추켜드시고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 진군로를 열어나가실 때 검은 구름이 뒤덮였던 하늘은 트이고 별이 빛났다.

드디어 조선의 새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펼치시고 새형의 당창건방침을 밝혀 주시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전진하였다.

백두령봉에 뿌리를 내리고 항일혈전의 수천수만리 눈보라길에서 자라난 당,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행세식혁명가들이 저저마다 당창건을 넘볼처럼 뇌까리면서 상층부에 들어앉아 《령도권》을 쥐려고 오르릉대다가 결국 혁명을 망쳐버렸던 역사의 심각한 교훈을 깊이 헤아리시어 먼저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밑에 당의 기층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그리하여 항일의 혈전만리,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수많은 당조직들이 나와 살아 움직였고 수많은 혁명가들이 당의 핵심으로, 골간으로 자라났다.

캄캄한 밤하늘에 활활 타오르는 백두밀림의 우등불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한치한치 툇아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려운 행군길에서 당창건준비로 마음을 쓰시며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는 그 얼마이시었던가.

참으로 주체적인 우리 당의 뿌리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역세계 자라났다...

1945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에서 포악무도한 일제를 패망시키시고 조국에 개선하시었다. 오매에도 그리며 우러르던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인민들은 기쁨에 웃고 감격에 설레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바로 이러한 때 혁명의 배신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저마다 《애국가》, 《혁명가》로 자처하면서 온갖 류의 《주의》와 《로선》을 떠벌이며 인민들의 이목을 끌어당기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설계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구상에 따라 조성된 국내외의 정세를 명철하게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정확한 혁명로선과 투쟁과업을 제시하시고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5년 8월 20일 군사정기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우리 인민과 혁명이 나아갈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한길을 따라 사랑하는 조국땅을 살기좋은 낙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인민들의 거족적인 투쟁기세는 하늘끝에 닿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결기한 인민들을 옹계 조직령도하며 혁명을 가급적으로 촉진시키자면 무엇보다먼저 당을 창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시었다.

강사는 여기서 잠시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이야기를 끊었다가 다시 해설을 계속하였다.

당을 창건하는것은 지체할수 없는 긴급한 문제,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였던것이다.

당을 시급히 창건해야만 충천한 기세로 일떠선 인민대중을 승리로 이끌어나갈수 있었고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수다한 령길을 걷고 험악한 산악을 넘어야 했으며 수없이 가로놓인 암초들을 제거해버려야 했다.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타고앉은 미제는 강점첫날부터 공격의 화살을 공산주의운동을 말살하는데 돌렸으며 공산주의대렬안에 간첩, 파괴압해분자들을 잠입시키고 그놈들을 조종하여 공산주의대렬을 분렬와해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을 인민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공산당이 창건되지 못하고 혁명력량이 결국



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시기 종파분자들 또한 그들대로 날뛰었다. 지난날 종파분자들의 비렬한 책동과 정치적투기행위로 하여 우리 혁명이 그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가.

지난날 혁명의 그늘 밑에서 자기들의 종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 혁명을 음으로 양으로 좀먹던 종파분자들은 해방이 되자 서울에 모여들어 등지를 틀고 저마끔 그 무슨 《공산당》 간판을 내걸고 또다시 추악한 파벌싸움으로 여념이 없었다.

또한 종파주의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은 제각기 자기 파의 지반을 꾸리려고 소란을 피우고 뒤골방에서 음모에 몰두하고있었으며 저마다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직접 진행해오시었으며 그 과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어 미제와 온갖 계급적원수들,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의 파괴책동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면서 당창건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역사적임무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조선공산당을 창건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항일혁명투쟁에서 키워오신 혁명가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주체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해나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와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공산주의 대렬의 형편을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모

든 조건이 유리한 북반부에 강유력한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수많은 항일투사들이 도시와 농촌을 찾아갔다.

여기 제3호실에는 그때 항일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당창건방침을 받들고 전국각지에 파견되였던 주요지역도가 있다.

우리는 그 지도앞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가들을 파견하시고 그들의 사업을 일일이 보살피시면서 밤이 깊도록 찾아오는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시기도 하시였다.

별들도 잠드는 깊은 밤 조용히 정원을 거니시며 앞으로 창건될 당에 대하여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른새벽 이슬길을 밟으시며 몸소 여러 지방에 나가시어 사람들에게 나라의 정세를 설명해주시면서 당창건방침과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하나하나 해설해주시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항일혁명투사들은 당창건을 방해하는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의 책동을 날날이 폭로분쇄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튼튼히 결속시키고 당조직들을 철저히 꾸려나갔으며 인민들속에서 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철저한 준비밑에서 1945년 10월초에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를 진행하시였다.

예비회의에서 종파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자들은 저들의 추악한 본성과 종파적목적으로부터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설을 반대해나섰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혁명적립장과 원칙적이고도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제때에 강한 타격을 줄수 있었으며 당창건을 위한 사업에서 드디어 새로운 결실을 보게 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강선의 로동자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앞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우리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우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5년 10월 9일 꿈결에도 그리시며 잊지 못하시던 고향, 《사향가》 노래속에 안아보시던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바라보시며 력사의 갈림길을 지나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주시였던것이다.

그런데 강선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밤에도 피로를 푸실새없이 당창립대회에서 하실 보고문을 집필하시였다.

1945년 10월 10일 드디어 력사의 아침이 밝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여기 오늘의 당창건사적관 회의실에서 당창립대회를 소집하시고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력사적인 보고에서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시고 주체형의 당, 새형의 당인 우리 당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위업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커다란 사변이었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인 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었다.

우리 당의 창건은 또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그처럼 심혈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백전백승의 **김일성**동지의 당의 위대한 탄생이었다.

뿐만아니라 우리 당의 창건은 국제공산주의운동대렬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촉진시키는데도 정녕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창립대회를 마친후 1945년 10월 14일, 온 나라가 감격과 환호로 활화산마냥 들끓는 가운데 진행된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신 다음에야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고 할아버님과 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과 고향사람들을 만나시였던것이다.

우리는 20여년만에 할머니님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앞에서 마음뜨거워움을 금치 못하며 제4호실로 옮겨갔다.

4호실에는 갓 창건된 당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건된지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벌써 수십만의 당원을 가진 강력한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 강화발전한 놀라운 자료들앞에 오래도록 머물렀던 우리는 다음 호실들을 차례로 돌아보고 사적관을 나섰다.

해방된 조선의 새 력사가 펼쳐졌으며 주체조선의 새길이가 시작된 여기 해방산기슭 당창건사적관을 나선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격동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당, 필승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향도의 빛발따라 나가는 우리 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난다.

우리는 또다시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웅대한 설계도를 받아안으리니 달려가리라 보다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변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따르고 따르리라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결정적담보

류만

오늘 우리 작가들은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혁명적문학건설의 자랑스런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크나큰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얼마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는가. 그리고 그 문학의 화원에는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얼마나 싱싱하고 아름답고 풍만한 꽃들이 활짝 피어났는가.

우리 문학이 이처럼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혁명적문학 건설과 발전을 위한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문학을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여주시었다.

참으로 우리 문학이 이룩한 그 모든 귀중한 성과는 그 어느 하나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떼어놓고 조금도 생각할수 없다.

지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이 시각 우리 작가들은 혁명적문학발전의 자랑스런 로정에 깃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손길을 심장으로 뜨겁게 느끼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당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할 확고한 신념에 가득차있다.

× ×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서의 문학의 본성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성,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사명과 역할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며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이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오직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는 로동계급의 문학을 건설하고 창조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24페이지)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혁명투쟁을 조직하고 령도하는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이다. 조선인민의 운명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전적으로 우리 당의 령도에

달려있다. 당의 정도를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정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공산주의문학건설의 역사적과업을 옳게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도 전적으로 당이 문학예술사업을 어떻게 정도하는가에 달려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공산주의문학예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새형의 인간전형을 그려냄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인간도 사회도 자연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이다.

공산주의문학예술은 또한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이 결합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이며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이다. 그것은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특징지어지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있는 사람들의 사상미학적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문학예술이다.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이러한 문학은 당의 정도를 떠나서 창조되고 발전될수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적문학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현명하게 밝혀주고있으며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끝바른 길로 확고히 인도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과 방침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로정이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그 창조와 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과학적으로 명철하게 주어져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문학창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모든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그러므로 당의 옳바른 정도를 받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에 더 잘 복무하는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의 정도를 강화하는것이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작가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육성하여 공산주의문학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작가들은 당사상사업의 한 전선을 맡고있는 초병들이며 사회주의민족문학건설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이다. 작가들은 자기의 전문지식과 예술적재능으로 사회주의민족문학건설에 직접 참가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새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작가들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하려면 무엇보다도 창작의 주인인 그들자신이 먼저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야 하며 공산주의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창작가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기때문에 작가의 계급적립장과 사상적지향에 따라 창작된 작품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수도 있다.

혁명적인 작품은 오직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혁명적세계관이 철저히 선 작가들만이 창작할수 있다.

그런데 작가들이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자로 준비되는것은 스스로 되는것이 아니다. 작가들은 부단한 사상교양과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는것이다. 여기에서도 결정적인것은 어디까지나 당의 정도에 있다. 특히 사회주의체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작가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야 한다.

당의 정도가 약화될 때 작가들의 머리속에서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자본주의 사상과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자라날수 있으며 따라서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없다.

한편 작가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조직생활을 비롯한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나아갈 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이처럼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만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풍부한 예술적재능을 가지고 모든 작가들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큰 작용을 할수 있는 혁명적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공산주의문학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특히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우리문학을 한계단 추켜세우며 그 전투적사명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혁명적기치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휘되어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온 사회에 숨은 영웅들처럼 누가 보건말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는 불타는 지향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참으로 지금 우리 나라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으며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는 일대 혁명적양양기에 놓여있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오늘의 이 벅찬 현실과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뿐만아니라 문학예술전반을 더욱 발

전시키기 위해서도 문학의 수준을 한계단 높여야 하는것이다.

오늘 작가들과 우리 문학 앞에 나선 이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기본열쇠는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발전하는 현실과 문학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와 방법을 바로세우고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진실하게 반영하고 창작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그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 이바지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또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혁명적문학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그들의 창작적기량을 확고히 따라세워 우리문학을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대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공산주의문학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작가, 예술인들의 조직체인 문학예술동맹들을 구락부화하거나 한편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하지 않고 문학예술사업을 완전히 《자유화》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산주의문학건설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면 창작에서 우여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으며 문학이 심히 저조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본주의복귀의 위험성까지 낳게 된다.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당의 지도가 마치도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을 억제하며 문학발전을 저해하는듯이 떠들면서 창작의 무제한한 《자유》를 부르짖는것은 사실상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부르조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관점의 표현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

의 정도를 거부하는 사소한 요소와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고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령도에 언제나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에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주체적문제사상과 이론을 밝혀주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옳은 지도 체계와 방법에 기초하여 문학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지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역사적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주체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문학건설의 가장 정확한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이론, 작품의 종자에 관한 이론,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에 관한 이론, 혁명적대작창작과 사회주의현실물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이론실천적문제들이 주체의 심원한 진리로 완벽하게 밝혀짐으로써 주체시대 문학건설의 위대한 강령이 제시되고 그 실현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창작의 기초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삼으며 창작과정을 끝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방침 그리고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정연한 사상교양체계를 마련하여주었다. 이것은 작가들을 주체의세계관이 확고히선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더 잘할수 있게 하며 작가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나아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문제사상과 이론이 빛나게 구현되어 우리 문학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을 주체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제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하여 우리 문학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작품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제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며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의 전투적사명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모시는것을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끔으로써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문제를 인류문제사상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품모를 만대에 길이 전할 우리 시대의 력사적과제를 훌륭히 실현하였다. 특히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폭넓게 형상하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공적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실하게 그려낸 혁명적작품창작을 현명하게 지도함으로써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평양시간》, 《새봄》, 《생명수》를 비롯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많은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의 새로운 특징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이 숭고한 높이에서 형상되었으며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발전과정이 깊이 있게 그려짐으로써 혁명적작품창작의 사상미학적요구가 높은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된데 있다.

우리 당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인민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낡은 잔재들을 극복하고 문학형태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소설, 시, 아동문학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형태들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었다.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문학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생활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그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인간의 내면세계와 혁명적세계관의 형성발전과정을 깊이있게 그린 장, 중편소설이 왕성하게 창작됨으로써 소설문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개화발전하게 되었다. 우리의 시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들의 념원과 의지, 신념을 비롯한 주도적인 감정을 심오하게 일반화함으로써 충성의 서정으로 충만한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시문학으로 자기의 면모를 더욱 새롭게 하였으며 서정성이 강화된 반면에 자연주의, 도식과 류형, 산문화와 같은 비혁명적이며 비사실주의적인 경향들이 철저히 극복되게 되었다.

아동문학은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심리정서적특성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됨으로써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되게 되었다.

우리 당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작가대렬을 주체사상이 팍 들어찬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려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인텔리정책과 작가들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오랜 작가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 주체시대의 당당한 작가로 되었으며 로동자, 농민, 근로직인들속에서 새로 많은 작가들이 자라나 우리의 작가대렬은 당의 사상전선의 믿음직한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오늘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창작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는 혁명적작가로서의 높은 긍지와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

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앞장에 서서 관철해나가는 전초병으로서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 우리 문학에 대한 당의 구체적이고도 정력적인 지도의 결과이다.

참으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전로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문학을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며 문학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 ×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며 그것을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을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부문에서도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해야 하며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사회주의 문학예술론》 125페이지)

우리 당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작가, 예술인들이 또한 당의 령도를 성실히 받아야만 문학예술앞에 나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의 목적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한 고리로서의 문학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더욱 혁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더 잘 복무하게 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정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문학예술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반들어나가는것은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다.

작가들이 당의 정도를 높이 반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맡기고 당을 굳게 믿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방침대로만 창작하는 이것이 바로 당에 충실하고 당의 정도를 반들어나가는 작가들의 립장과 태도이다. 이러한 작가들은 언제나 당의 의도와 요구대로 작품을 쓰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자기의 작품창작을 확고히 따라세울수 있다.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정도를 강화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구현하여 작가들이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작품창작을 통하여 당의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작가들이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계속하며 공산주의사회에까지 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깊이 헤아리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인텔리혁명화의 중요성과 작가들의 창작실천의 특성에 기초하여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드는것은 작가들의 혁명화를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것은 그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더욱 훌륭히 창작해내도록 하자는데 있으며 그들자체에 대한 혁

명화, 로동계급화 과정도 힘있게 다그치자는데 있다. 작가들의 창작실천과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밀고나가야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문학예술도 옹게 발전시킬수 있다. 이 두 고리를 분리시키는것은 작가들을 혁명화하는데서나 문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나 다같이 유해롭다.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은 혁명화의 근본요구에 맞을뿐아니라 혁명적문학창작의 본성에도 맞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침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방침의 혁명적본질과 정당성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간다.

작가들은 무엇보다먼저 창작과정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견지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창작의 전기간에 걸쳐 혁명적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하며 투쟁하면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들은 창작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새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적작가로 준비할수 있으며 따라서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의 로선과 방침을 더 잘 관철해나갈수 있다.

당의 정도를 높이 반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창작과정에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갈뿐아니라 또한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창작적성과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을 혁명화하며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새로운 요구이다.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창작적성과로써 충성으로 보답할데 대한 문제는 작가들의 정치적생명과 예술가로서의 숭고한 의무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의 정치적신임은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또한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



는 작가들만이 받을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이며 행복이다.

작가들은 당의 높은 정치적인임에 의해서만 비로소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더욱 빛내어나갈수 있으며 창작가로서의 존재와 가치를 떨칠수 있다.

작가들은 누구나 당의 높은 정치적인임을 받는 작가로 되며 거기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작가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은 말로서가 아니라 작품창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문학작품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바로 보장하는데서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업 체계와 방법을 똑바로 세우는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게 나선다.

사업 체계와 방법을 똑바로 세우는것이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는것은 당이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령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도 체계와 방법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우월성을 옹고 발양시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 문제가 좌우되기때문이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지도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지도 체계와 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현실과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워진 옳은 지도 체계와 방법이 없이는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속있게 보장할수 없으며 문학예술의 정상적인 발전도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지도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확립하고

당적령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문학예술창작의 특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미 과학적인 지도 체계와 방법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우리 당이 내놓은 독창적인 지도 체계와 방법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 체계이며 방법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지도 체계와 방법이 확립됨으로써 우리의 혁명적문학 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을 더욱 빛나게 구현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작가들은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적문학작품들을 더 잘, 더 많이 창작할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이 제시한 혁명적인 지도체계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문예활동과 창작사업에서 그것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당 사상사업의 영예로운 전초선에 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를 받는것은 더없는 영예이고 자랑이며 바로 거기에 보다 찬란한 성과와 휘황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누구나 당의 작가로서의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며 영원히 당이 이끄는 한길을 따라 확고히 나아가야 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도 없이 당의 령도 따라 나아갈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역사적위업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질것이다.

## 고귀한것

백철수

난로우에 놓인 차판이 단조롭게 실실 끓고있는 후덥고 아늑한 실험실에서 몰두했던 실험작업을 밀어놓고 잠시 숨결을 가누며 앉아있느라면 창밖에서 부산을 피우는 흑한의 바깥 정경이 유혹하듯 시선을 이끈다.

응-

부드럽고도 고르로운 음향이 지심깊은곳에서 울려오는듯 거창한 운동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우리 발전소는 가벼운 장막속에 싸여있다. 그것은 수백미터의 높이에서 치달아내려와 발전기를 돌리고 배수구로 솟구쳐나온 세찬 물살이 피워올린 물안개이다.

원경의 산발들에는 성애가 불린 하얀 나무숲들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듯 암전히 서있다. 그러나 강기슭의 나무숲은 소용돌이치는 물살의 랭풍에 쉽없이 설레인다. 빨간 단풍나무, 누르스름한 물황철, 재빛푸른 구름나무... 수력의 힘앞에 몸부림치는 나무들은 갖가지 색으로 물안개와 엉클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한다.

그 몽몽한 장막을 헤치듯 강기슭 오솔길로 한 사람이 걸어오고있다. 솜옷을 걸친 후리후리한 키에 너풀대는 털모자귀덮개가 나무숲사이로 얼쩡거린다. 김명석초급당비서이다. 큰 키가 구부정해보이도록 고개를 수긏하고 걸어오는양은 뭔가 깊은 생각에 골똘해진듯싶다.

(또 누구의 일로 가슴을 태우고있는게 아닐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의 가슴은 이름 못할 친근감으로 후터워진다. 그러자 머리속에 지난 봄 자신이 겪었던 한가지 사건이 생생히 되살아오르면서 창밖의 장엄한 풍경처럼 아름답게 이야기하고싶은 충동이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지난 5월 1일에 있는 일이다.

해마다 5.1절만 돌아오면 전국의 근로자들은

봄철명절옷을 펼쳐입고 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을 즐기지만 나라의 동력기지를 운영하는 우리 전력 생산자들에게 있어선 바로 그날이 제일 드바쁜 날로 되군한다. 전국적인 휴식일엔 발전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기때문이다.

발전소지휘부에서는 점검작업을 긴장하게 짜고들었다. 오전중에 미진한 구석들을 말끔히 가세내고 오후에는 휴식할것을 계획했다.

오후의 반나절을 어떻게 보낼것인가? 문화회관에서는 새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였고 오락실에선 탁구, 장기 등 여러가지 오락경기가 조직된다고 크게 써서 내붙였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날 나의 마음이 끌린것은 물고기잡이였다.

발전기가 멎으면 강물이 흐름을 멈추고 여기저기에 물웅덩이만 남게 되는데 열목어, 산치, 야래 등 민물고기들이 갈팡질팡 헤매는속에 작살을 던져 끌어올리는 흥취란...

동굴처럼 우중충한 타빈날개속에 기여들어가 점검작업을 다그쳐가는 나에겐 벌써 강가를 들고놓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귀전에 설레이고 웃음넘치는 사람들의 즐거운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초급당비서의 기쁨에 젖은 모습이 류달리 선하게 비껴와서 나는 절로 미소가 지어지군했다.

그 전해 9.9절휴식날에 나는 그가 작살질하는 것을 처음 보았었다. 그런데 솜씨가 서툴러서 남들이 대어섯마리씩 찢러올리도록 한마리도 찢르지 못하고 헛탕치면서 참버덩참버덩 물방울만 튀겼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락심하는 빛이 없이 긴장해서 작살질을 해대였다. 그 열성이 은을 내어 어찌다가 열목어 한마리를 찢러올리었는데 그 기뻐하던 모습이란... 작살에 꿰인채 푸들거리는 팔뚝같은 열목어를 기발처럼 높이 추켜들면서 《보란말이요. 나한테도 걸렸소. 이렇게 걸렸단말

이요.》하고 환성을 올렸다. 그 모습이 어떻게든 천천해보이었던지 사람마다 배를 그러안고 웃었던 것이다.

(오늘은 몇마리나 찢러올리고 앞산이 지렁지렁 올리도록 환성을 올릴가...)

나의 이 즐거운 상념은 뜻밖의 목소리로 산산이 깨어졌다.

《이런! 공동현상이 나졌군!》

손전지로 타빈날개를 살살이 훑어가고있던 설비부기사장이 내지르는 허겁스러운 목소리였다. 그의 점점을 용접고급기능공으로 보좌해가고있던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듯싶었다.

《공동현상이라니요?》

내가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자 설비부기사장은 날개의 한 부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화난듯이 말했다.

《발전소의 심장이 잠히였단말이요.》

아니나다를가, 청회색의 타빈날개를 희푸르게 비친 손전지의 불빛속에 우묵히 패인 부위가 드러나보이였다. 손바닥 두개의 너비만큼 패여들어난 가운데엔 콩알만한 구멍까지 뚫리고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자신의 가슴이 맞뚫린듯 숨이 막혀왔다.

공동현상이란 발전기운영과정에 전기화학적현상에 의하여 물흐름통로, 특히 날개바퀴의 금속표면에 잘 생기는 침식현상이다. 그것을 제때에 발견하여 퇴치하지 못하고 발전기를 그대로 돌리면 높은 수압의 충격으로 침식부위가 커지고 날개에 구멍이 뚫리어 종당엔 파국적인 비상사태를 빚어놓게 되는것이다.

불길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공동현상을 살피고 나오는 사람마다 얼굴이 거뭇게 질리였다. 누구도 목격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선 말로 표현하기조차 두려운듯 입을 다문채 말이 없었다.

이럴 때 김명석초급당비서가 나타났다. 창황히 뛰여온 모양 모자를 손에 전채 타빈날개속에 들어가 공동부위를 살피고 나오더니 사람들의 기색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얼굴마다에 비낀 심각한

빛을 찾아본 그때에야 그는 자기가 보고나온 자그마한 공동부위가 얼마나 큰 신중한 문제를 내포하고있는가를 알아차린듯 고개를 주억거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 무엇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듯 머리를 가볍게 젖더니 모자를 꼭 눌러썼다.

《가서 대책을 토론해봅시다. 이렇게들 서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의 태연한 태도가 오히려 놀라운듯 서로 덤덤히 지켜보았다. 설비부기사장은 무거운 눈길로 나를 스쳐보는데 그 기색은 이렇게 말하는듯싶었다.

(다른 일들처럼 쉽게 대책이 세워질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그러나 초급당비서는 조금도 개의하는 빛이 아니였다.

《초상난 집처럼 이게 뭐요. 어서들 갑시다.》

부득부득 등을 떠밀어대여 우리들은 그 자리를 땀다.

얼마후 기사장실에서 발전기를 구원해낼 방도가 토론되였다. 거기서 주동이 된 사람은 수력타빈을 전공해온데다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발전설비일반에 대해서도 막히는데가 없는 설비부기사장이였다. 그의 과학적론증에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세워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론거에 의하면 발전기를 구원할 전망은 암담하기만 할뿐이였다.

공동을 메꾸는데는 열강용접으로 용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하려면 열처리를 위한 로를 건설해야 하고 그 로를 세우려면 줄잡아도 석달은 걸린다. 더우기 발전기를 한꺼번에 열처리한다는것은 그 분야가 생소한 우리로선 조만한일이 아니다. 결국 출로는 한길, 새 발전기를 가져오는 길밖에 없다.

설비부기사장은 그것까지는 까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의도는 불을 보듯 명백했다. 한데 새 발전기를 가져오자면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랴.

사람들은 암담한 사태앞에서 얼굴빛이 더욱 어두워졌다.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리어 침묵하고있

을뿐...

숨막힐듯이 갑갑한 시간이 지루하게 흐를때 오가는 말들을 주의깊이 듣고있던 초급당비서가 입을 열었다.

《들어보니 아주 신중한 문제인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 방도를 찾아내야지... 그래 어떻습니까. 용접면을 쓰고 직접 용접해야 할 동무들의 생각은... 좀 의견을 말해보시오.》

좌중을 쭉 둘러보던 초급당비서의 뜻깊은 눈길이 어찌선지 나에게 와서 딱 멈추어졌다. 그 눈길은 마치 《정호동무, 방도가 없소?》 하고 묻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눈길에 만족한 대답을 줄수가 없어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발전기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잘 안다는 설비부기사장도 방도를 내놓지 못하는데 한갓 기능공에 불과한 내가 무슨 의견을 제기할수 있겠는가. 더더구나 기술공정이 그렇다는데야... 이런 생각으로 송구한 마음을 견잡지 못하고있는데 나의 모습을 보기가 민망했던지, 아니면 기술협의회에 흐름이 마음에 차지 않았던지 초급당비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전소의 주인은 여기 앉은 모든 동무들입니다. 지금 나라의 전력수요가 얼마나 긴장한 때인가. 날을 따라 발전하는 인민경제 모든 분야가 전력을 더 요구하고있고 특히 모내기가 시작되는 농촌에선 양수동력을 만가동시켜줄것을 요구하고있는 이때에 발전기 한대를 멈춰세운다는것은... 아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모내기전에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한결음도 양보할수 없는 당적요구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자도 로동자도 누구나 다 주인이 되어서 창발적인 의견을 내놓아야 합니다.》

초급당비서의 어조에는 어떤 난관을 뚫고서라도 혁명적으로 해결할것을 바라는 기대와 호소가 강하게 울리고있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면 발전기열처리를 위한 로건설같은 공인된 방법은 생각밖에 두어야 했다. 기존관념을 뒤집어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새 방법이 나와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자 나의 머리에 한가지 생각이 번개치

면서 느닷없이 가슴이 울렁거리어었다.

(가열로를 거쳐야 하는 열강용접이 아니라 발전기를 현재대로 두고서 팽강용접을하게 된다면...)

아직 타빈날개에 직접 팽강용접을 적용했다는 연구자료나 경험자료를 읽어본적은 없었으나 나한테는 고강도팽강용접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몇년전 우리 발전소에서 큰 물동을 도맡아 나른 《자주호》 한대가 크랭크축이 부러져 차고에 처박혀있을 때였다. 50만키로 주행을 돌파한 그 《자주호》와 함께 50고개에 들어선 로련한 운전사가 한번 나를 찾아와 사정하듯 말했다.

《우리한테 오는 대형변압기가 정거장에 앉아있다누만. 그건 아무래도 내가 모셔와야겠는데... 크랭크축을 가지러 떠난다면 한주일엔 잘 걸리지. 제 집으로 오는 그 <어른>을 또 한주일이나 정거장에 앉혀두어서야... 그래 생각다못해 자네를 찾아왔네. 용접에선 펴 난다는 자네가 좀 보아주지 않겠나?》

《비행길 태우지 마십시오. 난 아직 크랭크축과 같은 고강도용접에선 날지 못하는걸요.》

하고 거절하자 느슨한 미소를 짓고있던 운전사는 가느스름히 눈을 찡프리고 나를 쳐다보더니 비꼬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듣자니 지금 시대엔 비행기도 용접한다는데... 그래 땅위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도 주무르지 못하고서야... 이자 보니 자넨 줄장불세.》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손상당한 자존심이 어떻게든 가슴을 아프게 찔렀던지 나는 그 날부터 그 일에 착수했다. 집옷방은 실험실로 되고말았다. 십오년간의 용접경험을 밑천으로 고강도용접봉을 만들어 여러차轮的 시험끝에 끝내 성공을 보게 되었던것이다.

크랭크축을 가지러 자동차공장에 다녀온 운전사가 이어놓은 크랭크축을 보더니 《잘했네. 이음새도 알리지 않는걸.》 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차를 정비하고 운행을 계속했다. 그후 3년이 넘도록 크랭크축엔 아무 이상도 생기지 않았다. 나의 기술을 완전히 믿게 된 운전사는 그때 구해왔

던 크랑크축은 이웃 광산차에 넘겨주었던것이다.

크랑크축을 이어놓은 고강도용접방법을 타빈날개의 공동부위에 적용한다면... 아니, 발전기와 같은 거창한 기계에 용접봉을 댔다가 그것이 잘못되는 때엔... 그것은 만회할길 없는 범죄행위로 락인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나의 머리속에 한가지 쓰라린 추억이 등골이 서늘하게 되살아올랐다

...크랑크축용접을 성공한후였다. 나는 자신의 기술을 과신하면서 용접할 일거리가 나지면 아무때도 서슴지 않았다. 발전소에 하나밖에 없는, 발전기에 걸리는 수압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제압기가 터졌을 때에도 나는 용접으로 해결할것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것은 내가 혼자 시험해온 주철용접법을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것이였다.

그런데 그 제압기는 1년만에 다시 터지고말았다. 살펴보니 제압기에 새로 생긴 금이 바로 내가 용접했던 부위를 엇비슷이 스치고있었다.

발전소가 멈춰서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용접에서 잘못된 사고인가, 아니면 다른데 원인이 있는가?...

터져나간 금이 내가 용접했던 부위를 스치고 지나간것만큼 나의 잘못이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고인가를 잘 알고있는 나는 가슴이 얼어붙고 눈앞이 아득해지기만 했다. 나의 새 용접방법이 기술적담보가 없는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럴 때 《무슨 소릴 그렇게 하오?》

하고 강철을 울리는듯한 노기어린 목소리가 정수리를 쳤다. 내가 고개를 들자 초급당비서의 숄불같이 타는 눈길이 장내를 쭉 가르고 지나갔다. 전에없이 엄한 그의 기상앞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있었다.

《제압기에 대한 용접은 처음부터 초급당조직이 지지했던만큼 이 문제는 어느 기술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요. 만약 책임추궁을 받아야 한다면 당조직을 책임진 내가 받겠소.》

비록 낮았으나 천근무게로 울린 그 응글은 목

소리에 나는 눈앞이 확 흐려와 얼굴을 들수 없었다. 흉벽을 치는 세찬 걱정속에 휘말리어 《비서동지!》 하고 이 한마디를 간신히 외웠을뿐 나는 온몸을 사로잡는 오열에 자신을 말갇채 흐느껴울었다. 크나큰 믿음과 신념만이 그런 자리에 나설수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던 나는 초급당비서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후 초급당비서는 일군들을 제압기를 살려낼 방도를 찾도록 불러일으켰다. 하여 발전소자체의 힘과 지혜로 보름만에 제압기를 새로 만들어냈고 기대가 작용을 제대로 하게 되자 되살아난 그 웅심깊은 음향속에 불안한 공기도 번민도 모든것이 다 찾아버렸던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비상사태는 그때의 제압기사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발전기자체에 생긴 공동현상이 아닌가. 기술적으로 보아도 심장부위에 칼을 대는것과 다름없는 신중한 문제인데 어떻게 서둘러 나설수 있단말인가. 더군다나 제압기를 용접했던 일로 하여 그 사고의 혐의까지 받았던 내가 아닌가.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지꼇게 갈마드는 빠저린 추억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리하여 모처럼 떠올랐던 뺑강용접에 대한 생각의 실마리도, 초급당비서가 결연한 어조로 강조하던 모든것을 당적요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한 그 말의 참뜻도 다시 새겨보지 못했다.

(이번 일엔 절대로 나서지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마음다지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뭔가 큰 믿음앞에서 자신의 량심을 속이는것 같은 피로움에 시달리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밤따라 폭신한 잠자리가 왜 그리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찬기운이 감도는 봄철의 밤기운이 무덥고 침침하게 느껴지던지...

나는 피로운 마음을 주체할길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어둠과 정적이 나를 휩쌌다. 발전기가 멎으니 소용돌이치며 소란을 피우던 산골강물도 숨을 죽여버린것이다. 그것이 나의 가슴을 더욱 괴롭게 옥죄여주는것만

갈았다.

어디를 어떻게 걸었던지, 별스럽게 몸이 휘청거리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살펴보니 허궁다리우였다. 발전소가 자리잡은 산밭과 마주선 대안의 주민구역사이에는 허궁다리가 놓여있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허구픈 마음으로 서있는데 허궁다리가 그냥 흔들리지 않는가. 그제야 나는 맞은편에서도 한사람이 허궁다리에 들어섰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목적도 없이 다리우에 서있는 나를 본다면... 하는 생각에 쫓기워 나는 얼른 돌아섰다. 했을 때 마주오는 사람이 인기척을 알아차리고 먼저 말을 걸었다.

《거 누구시오?》

약간 석십한 목소리의 입자는 뜻밖에도 초급당비서였다. 나는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르며 그대로 서있었다.

초급당비서는 대답이 없는 이쪽을 이상하게 생각했던지 빠른걸음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가 앞에 와서 우뚝 서버리자 어망결에 말했다.

《소풍하러 나왔습니다.》

《소풍을? 지금 몇시인데... 좀 있으면 날이 밝을게요.》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얼버무리며 그가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초급당비서는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휘청거리는 허궁다리를 딛고섰기가 불편한듯 두팔을 널찍이 벌리고 서더니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

《마침 두대가 남았군. 한대씩 피우기로.》

《전 켜드립니다.》

《어서 집소.》

나는 권하는 담배를 집어들고 성냥을 찾았으나 어디에 뒀던지 인차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한테 불도 있소.》

초급당비서가 성냥을 켜 먼저 붙여물고 나에게도 성냥불을 내뿜었다. 나는 손을 내들며 넘겨받으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가볍게 물리치며 재촉했다.

《빨리 붙이오.》

나는 담배를 붙여물고 말없이 태웠다. 담배맛이 쓴지 단지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 좀 생각해보았소?》

초급당비서가 기대를 품고 물어보는 말이었다.

《.....》

나는 말문이 막힌채 고개를 수긏하고있었다.

침묵속에 발밑이 휘청거렸다. 초급당비서가 발을 옮겨짚는 모양이다. 눈길을 드니 그는 다리발판을 허궁에 받들고 팽팽히 늘어진 쇠바줄을 잡고있었다. 그의 기색은 어둠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으나 담배만은 숯불처럼 빨강게 타고있었다.

《정호동무는 협의회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문득 초급당비서가 묻는 말이었다.

《기존 리론과 방법대로 열강용접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뒤말을 더 이을수 없었다.

《그래 한 반년이 아니면 1년이 걸려야 하는 방법으로 말이요?!》

《기술적인 요구는 법칙과도 같지요. 그것을 지켜간다고 할 때에도 종종 뜻하지 않는 결과와 부딪칠수 있는데...》

초급당비서는 나의 이런 대답에서 다른 뜻을 읽은듯싶었다. 담배연기를 훑 내뿜더니 저으기 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동무는 아직도 제압기사고매의 일을 잊지 않고있구만.》

나는 고개를 수그리었다.

《일하는 과정엔 곡절이 있을수 있지. 그렇다고 신념을 잃는다면... 신념도 없이 어떻게 살수 있소. 동무한테야 인젠 기술적타산도 일정하게 서있지 않소.》

《.....》

나는 심장이 갈리는듯한 피로움을 느끼며 침묵하였다.

《제압기사고심의 때에도 동무가 간직한 신념과 기술을 믿었기때문에 나는 동무를 옹호했던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잃고 동요하다니... 유감이

요.》

초급당비서는 담배꽁초를 던져버렸다. 담배불은 허궁다리밑에 깊이 도사린 어둠을 직선으로 가르며 아슬하게 떨어져내려갔다.

《동무가 그런 사람이였다면 나는 동무를 옹호하지도 않았을것ियो. 오늘밤만 해도 그렇소. 동무를 믿고 토론해보려고 왔더니…》

초급당비서의 목소리는 갈리어 피로운 숨결속에 찾아버린듯싶었다.

《비서동지…》

나는 변명해보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신념을 굳히고 나서는 사람한테 힘과 지혜가湧솟지만 그것도 없이 바재이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생기지 않소. 기술혁신도 하나의 혁명투쟁이라는것을 잊지 마시오.》

초급당비서는 이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돌아가는것이였다.

나는 화석처럼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초급당비서가 하고 간 말마디들이 되살아오르며 나의 심장을 아프게 조이였다.

나는 왜 그에게 랭강고강도용접으로 타빈날개의 공동현상을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을 못했던가. 그가 랭정히 지적한것처럼 신념을 잃었기때문이었던가. 발전기를 세워두고있는 그 피로움보다도 일신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였으니, 이게 어디량심을 지닌 당원의 행동인가. 그런데도 초급당비서는 나에게 기대를 품고 찾아왔댔다니…

나는 아픈 마음으로 그가 되돌아간 대안을 바라보았다. 희끄무레 동터오는 새벽빛속에 대안의 산발은 여전히 짙은 어둠을 품고 다가서듯 가까와보이였다. 그 컴컴한 산그늘밑에 자리잡은 발전소사무실건물의 2층창가엔 불빛이 어려있었다. 초급당비서실이였다. 사무실로 돌아가 혼자 앉아있을 그의 모습을 보는듯했다. 그는 나에 대한 환멸로 얼마나 피로운 가슴을 태우고있을가.

나는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허비하면서도 그냥 못박힌듯 서있기만 했다. 마음은 달려가서 랭강

용접법으로 해보겠다고 가슴씨원히 터놓고싶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럴만도 한것이 아직 그것은 착안에 불과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것이다.

(더 연구해보고 찾아가리라.)

나는 발길을 돌려세웠다.

집에 돌아가 책상을 틀고앉자 랭강고강도용접법을 적용할 때 제기될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해결방도를 생각해내기 시작하였다. 당적요구, 나의 머리를 지배한것은 그것을 수행하여야 하리라는 의무감박에 없었다. 날이 언제 다 밝았는지 또 하루해가 얼마나 흘렀는지 나는 주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했다. 잡은 실마리를 발전시켜 하나의 체계화된 기술안으로 완성했을 때엔 오후 해도 반나마 기울었었다.

나는 기술안을 걸어안자 초급당비서를 만나려고 내달리였다.

허궁다리를 나는듯이 건너 대안의 큰길에 나섰을 때 달려오던 《자주호》가 코앞에서 급정거하였다. 제때에 세웠으니 망정이지 하마트면 맞짚을번했다.

《왜 그리 헤덤버? 50만키로 무사고주행을 날려 보내지 못해서 그러나?》

운전사가 상반신을 내밀고 성난 어조로 내쏘았다.

나는 번대머리를 감추듯 깊숙이 내려쨌 작업모 채양아래에서 번뜩이는 눈길에 질리어 사죄하듯 말했다.

《미안하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뭐가 그리 급해?》

《멈춰선 발전기를 빨리 돌려야 하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채양밑의 눈길이 저즈기부드러워졌다.

《실마리를 잡았던말이지. 알만해… 어서 가게. 비서동지가 기다릴거네.》

하고 운전사는 흡족한 기분에 싸여 경적소리까지 길게 울리면서 질주해갔다.

(어떻게 내가 초급당비서를 찾아가는것까지

…)

한가닥 의문이 없지 않았다. 하나 나는 그런것에 신경을 쓰고있을 겨를이 없었다. 초급당비서실문앞에 이르자 손기척을 내듯마듯 문을 열고 들어섰다.

초급당비서는 책상앞에 앉아있지 않고 창문가에 서있었다. 내가 들어선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뒤집을 지고 고개를 수긏하고있는 그의 모습은 깊은 생각에 싸여 자신의 존재마저 잊어버린듯싶었다.

(아닌때에 뛰어들었구나.)

자기 기분에 들떠서 응답도 기다리지 않고 뛰어난 자신을 후회하며 주춤거리고있는데 초급당비서가 돌아섰다. 그는 책상앞으로 다가서다가 문가에 서있는 나를 발견하자 의아스러운듯이 눈을 슬쩍거리었다. 그러나 의문에 찬 그 기색은 이내 인정미로 빛나는 부드러운 미소속에 잦아져 버리었다.

《참, 호랑이 제 소릴 하면 온다더니… 난 방금 동무생각을 했더랬소.》

그는 나의 손길을 이끌어 앞상에 다가앉도록 하고 마주 자리를 잡더니 저오기 흥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로동자동무들이 어떤 발기를 해오는지 아오? 오전엔 저 출입문돌쩌귀에 불이 일 지경이었소. 로를 건설해야 한다면 보름을 넘기지 않겠다고… 석달이 걸리는 일을 보름동안에 말ियो. 그렇지 만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었소. 보름이 아니라 닷새안에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고, 했더니 당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런 방도도 찾아보겠다는 것이었소. 한테 그런 방안중엔 열강용접 대신 령강용접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기도 있었소.》

《?!》

나는 바로 자신이 만들어온 기술안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뜻밖이어서 한참동안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나의 그런 기색이 뜻밖인듯 초급당비서는 나를 유심히 지켜보며 말을 뱉다.

《왜 믿어지지 않소? 지금 당원들은 자기생명을 부어넣어서라도 발전기를 소생시켜보려고 애쓰고 있소. 그런 열정을 값있게 보지 않는다면…》

《비서동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결 좀…》

나는 들고온 기술안을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이건 뭐요?》

《령강고강도용접에 대한 기술안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초급당비서는 열정에 불타는 눈길로 나를 뚫어지게 지켜보다가 흥분을 누르듯 짐짓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좀 설명해주오. 덤비지 말구.》

나는 들고온 기술안을 한장한장 번져가며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마주앉은 초급당비서는 두팔을 앞상에 올려놓고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굽힌채 나의 설명을 주의깊이 듣고있었다. 아니, 설명을 새겨듣는다고기보다 기술적문제해결을 위해 바친 나의 고심의 자취를 더듬어보듯 주의력을 집중시키고있었다고 하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설명도중에 어찌다가 그의 기색을 얼핏 살펴보면 열정과 인정미가 그윽히 풍기는 눈길이 쓰다듬듯 나를 지켜보고있는것이였다. 그 눈빛에 고무되어 나는 설명을 마치면서 주저없이 말했다.

《…이렇게 하면 이틀후엔 발전기를 다시 돌릴수 있습니다. 령강고강도용접은 하루동안이면 충분합니다.》

《하루면 된단말이지. 동무의 설명을 듣고보니 기술적으로도 납득이 가오. 옳소. 바로 그것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일본새요.》

초급당비서는 기쁨에 겨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안을 왔다갔다하는데 나는 그렇게 흠족해하는 그를 일찌기 본적이 없었다.

이윽고 그는 앞상을 돌아 나한테로 다가오더니 손을 굳게 잡아주며 말했다.

《나는 동무가 신념을 되살리고 달라붙은것이 무엇보다 더 기쁘오.》

그 억센 손길로 믿음에 찬 은정이 흘러들면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감싸주는것만 같았다.



《동무에 대한 기대는 나만이 아니란걸 잊지 마오. 어제밤 <자주호>운전사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소. 동무가 살려놓은 크랑크축으로 1만키로를 달렸지만 끄떡없다고 그러면서 타빈날개에 생긴 구멍도 동무가 나선다면 아무 손상도 내지 않고 깨끗이 보수하리라는 믿음을 표시하더라말이요.》

순간 나의 머리엔 큰길에서 마주친 《자주호》운전사가 어서 당위위원회에 가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보면 어제밤 초급당비서가 나를 찾아 허궁다리에 올랐던것도 우연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한 당원이 제기해온 일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나선 초급당비서... 그런데 나는 그앞에서 일신의 안전부터 생각하며 주저하지 않았던가. 나의 머리속엔 허궁다리우에서 초급당비서가 피우던 담배를 던져버리던 일이 떠올랐다. 하나 그것은 한순간 얼핏 스쳤을뿐, 어둠속에 아슬하게 사라져버린 그 불씨처럼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어제밤의 모대김, 그 가슴 피롭던 일은 이미 지나간 일로서 나한테 새롭고도 중대한 일이 앞에 놓여있지 않는가.

나의 이러한 심증을 헤아린듯 초급당비서는 기술안을 거두며 말했다.

《랭강용접으로 성공한 경험도 있으니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지요. 곧 기술협의회를 소집하도록 할테니... 나한테 들려준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라구.》

이리하여 나는 전문가들앞에 나서게 되었다. 나의 기술안은 발전기보수기일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대담한 착안으로 처음엔 사람들의 눈을 번쩍 띄워놓았다. 실내는 한동안 술렁거리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는 실무적인 응답이 오가게 되자 흥분은 같았고 차츰 의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용착시 발전기가 받게 될 열전도에 대한 타산이 명백치 않다는등 용착후에 생길 응력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하려는 방법이 순전히 경험에만 의거한 방법이라는등... 창안은 대담하고 또 가치도 있는것이긴 해도 기술적 안받침이 아직 약하다는데로 논의가 흘러갔다. 결국 경험도 있고 일정한 기술적타산이 생긴것만

큼 해보자는 사람들과 좀더 탐구하고 완성해야 실천에 도입할수 있겠다는 사람들로 갈라졌다.

나는 토론이 끝나자 어깨에 실리는 짐을 무겁게 느끼면서 기술안을 주섬주섬 거두고있었다. 그 모양이 동정겨웠던지 설비부기사장이 나의 앞에 다가서며 타이르는것이였다.

《정호동무, 과학이란 욕망만으로는 되는게 아니요. 새도 동지에서 깃을 다듬고서야 하늘로 날아오르오.》

나는 저도모르게 울컥 분기가 치밀어올랐다.

《그렇다고 보구만 있으면 발전기는 언제 돌아갑니까?》

나의 이 항변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놓은듯싶었다.

《누군 책임을 느끼지 않는줄 아오? 깊이 느끼기때문에 동무한테도 하는 말이요. 제압기사고때와 같은 일이 두번다시 되풀이될가봐 걱정돼서 그러오.》

《.....》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사실 제압기 사고실의때 그도 발전설비관리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나와 못지않게 추궁을 받았던것이다.

설비부기사장은 분노가 어린 눈길로 나를 스쳐보면서 다시 말했다.

《그렇게 덤비다간 큰 화가 미치게 되리라는걸 왜 생각지 못하오. 이불깃을 봐가며 발을 꺾어지.》

나는 가슴속에서 불몽치같은것이 확 솟아올라 어떻게 그의 앞을 물러섰던지... 억제할수 없는 반발심에 집으로 돌아오자 책상우에 기술안부터 펼쳐놓았다. 기술협의회에서 제기된 국부적문제들을 타개해보려고 했으나 좀처럼 생각을 모을수 없었다.

(그렇게도 무시당할수 있다니...)

이런 가슴 쓰라린 생각으로 모대기고있는데

《여보,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에요?》

어느사이 들어왔는지 안해가 뒤에서 하는말이였다. 뒤돌아보지 않았어도 나는 저으기 떨리는

그 목소리로 근심겨운 안해의 기색을 보는듯했다.

《발전소에 기술자들이 한돌이라고 하필이면 당신이… 당신이야 고급기능공이라고 하지만 로동자가 아니예요.》

그 순간 날지 못할 하늘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뜻으로 뇌까리던 말이 뇌리를 스치며 나는 책상을 팡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설비부기사장이요?! 누군 뭐 주먹치기루 하자는 사람인줄 아오?》

나의 고향소리에 놀라 눈길을 치뜬 안해의 눈에서 살눈섭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그 눈가에 물기가 핑 돌더니 안해는 고개를 수그리었다.

《전… 전 당신을 생각해서 그래요.》 안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웃고름을 입으로 가져간채 부엌으로 내려갔다.

나는 망연히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가슴속에 들끓던 분기가 갈았기 시작하자 차츰 자기자신을 랭정히 돌이켜볼수 있게 되었다. 설비부기사장이 하던 말도 다른 측면에서 돌이켜졌다.

(사실 이번에 실패를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식은땀이 솟았다.

나는 아무 일도 손에 잡을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엄마-》

문득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둘째아들 경식의 목소리가 프락에서 울려왔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꿀빵 먹었다.》

《그-래…》

《아버지 방에 있나?》

《방에 계셔… 들어가 인사드려라. 유치원에 잘 다녀왔다고.》

《싫어. 아버지 잔 줄만 그으면서 말도 잘하지 않아.》

《윽-》

안해가 그런 말을 하면 못쓴다고 달래는모양이다.

기술적인 해명을 완전히 찾지 못한채 많은 시간을 보낸 나는 손땀이 탁 풀리는것을 느꼈다.

(내가 너무 주관을 앞세우는것이 아닐가? 경험을 믿고 큰 일을 벌려놓았다가 실패라도 한다면…)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감겨돌자 신념이 허물어지는듯했다.

(누가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나의 발길은 저도모르게 초급당위원회로 향하고있었다.

나는 아직 완전한 기술적해명을 찾지 못했다는것, 나로서는 몹시 힘에 부치는 일이라는것을 솔직히 말하고싶었다.

어느덧 당위원회 사무실앞에 이르렀다.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 했다. 그때 방안에서 울려나온 초급당비서의 목소리가 나의 발길을 못박아놓았다.

《나는 기술을 잘 모르오. 하지만 그 동무가 자신의 동요를 극복하고 기술안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 량심과 열정을 믿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겠소. 일부 기사들이 그 동무의 기술안을 긍정하고있지 않소?》

누구와 이야기하고있는지 초급당비서는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있지 않는가. 남의 말을 엿듣는다는것이 떳떳치 못한 일이란것을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나는 어찌선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그루박힌듯 서있었다.

《그 동무가 나한테 기술안을 설명할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소. 당의 기대에 보답하려는 깨끗한 량심과 열정이 그 얼굴에 불타고있었기때문이요.》

나는 가슴을 쿵 찢리우는듯했다.

아, 기술안을 안고 이 방에 들어갔을 때 나의 가슴은 얼마나 큰 열정으로 높뛰였던가! 그런데… 그때 설비부기사의 목소리가 웅글게 울려나왔다.

《비서동지, 저도 그 동무의 열성엔 감복합니다. 그렇지만 발전기는 인정으로 통하는 생물이 아니라 높은 과학성을 요구하는 기계입니다. 저는 기

술자의 량심으로, 아니 당원의 량심으로 제기하는겁니다.》

설비부기사장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결연하게 울렸다. 방안은 한동안 정적이 깃든듯 조용했다.

문득 그 정적을 깨뜨리며 천근의 무게를 띤 초급당비서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원의 량심을 아무데나 내비치지 마시오. 정호동무 역시 당원의 량심으로 이 문제를 당조직에 제기해왔소.》

우리가 말하는 당원의 량심이란 뭐겠소. 당적인 요구앞에서 한목숨도 기꺼이 바칠 가장 깨끗한 마음인것이요. 내 기술문헌들을 뒤져보니 랭강용접을 한다는것이 우리가 처음인것 같지는 않소. 물론 구체적인 기술자료를 낸것은 없지만 난 부기사장동무가 적극 뒤받침해주길 바라오. 노력해보지도 않고 결과부터 채며 주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해나갈수 있겠소.》

이 순간, 나는 자신을 지탱할수 없어 문지방벽에 몸을 기대고말았다. 초급당비서의 비판은 설비부기사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심장을 찔렀기때문이었다.

(내가 바로 후과를 생각하고 비겁하게 이 문앞까지 달려오지 않았던가.)

초급당비서의 흥분을 누른 석싹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혼자 맡겨두지만 말고 집단이 달라붙어 정호동무를 도와야겠소. 좋은 싹도 북을 돋궈주고 살려주어야 훌륭한 열매를 맺는 법이 아니겠소. 잘 생각해보오.》

의논조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나는 눈뿌리가 확 달아올라 그 자리에 더는 서있을수 없었다.

(저렇게 밀어주고있는데 내가 여기에 서있다니...)

나는 어떻게 2층 층계를 뛰어내렸으며 허공다리를 건너갔는지 알수가 없었다. 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린 고리를 풀어 당의 신임과 믿음에 보답해야겠다는 한가지 생각만이 가슴속에 짝 차

오를뿐이었다.

그후 한주일동안 집단의 적극적인 방조와 지철줄 모르는 탐구의 결과로 제기된 모든 기술문헌들이 성과적으로 풀려나갔고 드디어 타빈날개의 공동부위를 메꾸는 보수작업에 달라붙게 되었다. 이날 나의 가슴은 긴장과 초조와 흥분으로 한껏 설레었다. 시험적자료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작 청회색 타빈날개에 용접봉을 대자니 마음이 이상하게 울렁거렸다. 발밑으로 시꺼멓게 내려다 보이는 수구에서는 차고 썰렁한 기운이 풍겨오르는데 어디선가 물떨어지는 소리가 툭툭툭... 미묘한 음향으로 들려왔다. 가슴을 조이며 나의 작업을 지켜보려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술렁대는 목소리가 동굴속처럼 좁고 우중충한 타빈날개속으로 스며들어와 나의 가슴을 더욱 조이게 하였다. 나는 급하게 뛴뛰는 심장의 박동을 지그시 녹작히며 타빈날개의 쇠벽을 지켜보았다.

(과연 이 특수한 고강도재료의 《암반》을 점령할수 있을까?)

그러자 나의 눈앞으로는 설비부기사장의 얼굴이 스쳐지나가면서 그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제압기사고때와 같은 일이 두번 다시 되풀이될가봐 걱정돼서 그러오.》

내가 그것을 잊을수 있을까.

아니 잊을수가 없었다. 그때문에 이번 일은 모든면에서 틈없이 검토하고 실험한것이였다.

나는 지긋게 달라붙는 어지러운 생각을 쫓아버리며 용접고대를 틀어잡았다. 그럴 때 누군가 상반신을 수그리고 타빈날개속으로 기여들어왔다. 그가 초급당비서라는것을 알았을 때 나의 마음은 일순 당황했고 한편 놀라왔다.

《비서동지가 어떻게?!...》

《어서 시작하기오. 용착물 다스리는 일은 내가 하지.》

《예?!...》

그러구보니 초급당비서는 작업복차림에 손에는 다갈망치까지 들고있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여 완강히 거부하였다.

《안됩니다. 이제 이 속에 용접가스가 꼭 찰니

다.》

《동무가 말하는 가스를 내라고 못견디겠소. 이래 봐도 이전엔 나도 수리공 8급이었소.》

초급당비서는 오금을 꺾고 마주앉으며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그 푸근하고 안정감이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나의 귀전엔 문득 기술안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갔을 때 그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동무가 신념을 되살리고 달라붙은것이 무엇보다도 기쁘오...》

끝까지 그 신념으로 이 중대한 사업을 드림없이 감당해나가도록 지금은 조수로 곁에 앉아주는 초급당비서!

나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와 얼른 용접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웬일이요?》

용접면을 얼굴에 댄채 용접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행동이 의문스러운듯 초급당비서가 이렇게 물어본다. 나는 대답에 궁하여 어물거리다가 열결에

《여긴 아직 겨울이군요.》

이런 말을 해버렸다.

《내가 잊었군, 솜옷을 하나 들고 오는걸.》

초급당비서는 큰 실책처럼 중얼거리었다. 그제야 나는 또 공연한 걱정을 끼쳤다는 미안한 생각으로

《그렇지만 비서동지와 함께 있으니 추운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용접봉을 댔다.

붕-

불꽃을 날리며 우뚝하게 패인 공동부위에 용착물이 녹아들었다. 나는 심장속에 굵이쳐흐르는 뜨거운 피를 쏟아붓는 마음으로 상처입은 쇠벽을 용착해나갔다.

...용근 스무시간에 걸친 긴장한 전투가 끝났을 때에야 나는 조크리고 앉은 오금이 못견디게 저려오고 온몸이 땀에 화락하니 젖었음을 깨달았다.

라빈날개속에서 간신히 기여나와 고개를 들자

머리가 핑 돌았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정신을 가다듬고보니 초진장이 풀어진뒤라 몸을 가눌수 없었다.

용착부위를 충분히 식히고 발전기를 돌려야 했으므로 그때까지는 눈을 붙일 시간이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오는 길로 안해에게 아침에 일찍 깨워줄것을 부탁하고는 잠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피곤에 지쳐버린 몸은 파김치처럼 노그라졌던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던지...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창가로 스며든 아침해살이 나의 머리말에까지 기여오른 늦은아침이었다.

나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제때에 깨우지 않은 안해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래도 안해는 조금도 탓함이 없이 나를 정겹게 바라보기만 했다. 그럴 때 나의 호통질에 자라목이 되어 안해의 치마폭에 몸을 숨겼던 경식이가 빠르게 내다보면서 빠기는 투로 말하는게 아닌가.

《아버지, 아버지인 숙보에 크게 났다.》

《?!...》

나는 영문을 몰라 안해를 쳐다보았다. 그제서야 안해는 밝은 미소를 짓고 알려주는것이였다.

《발전기를 돌렸다고 특보가 나붙은걸요. 완전히 성공이래요.》

《그렇소?!》

나는 금시 하늘을 날듯한 기분이었다. 그럴 때 경식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며 나의 다리에 척 감겨붙었다.

《그래 너도 이 아버지를 자랑스레 여긴단말이지.》

나는 아들을 휘딱 들어올려 그 사랑스러운 얼굴에 마구 뺨을 비비었다.

경식은 간지럽다고 짹짹거리며 바시대였지만 나는 저도모르게 뺨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안해도 눈가에 웃고름을 가져갔다. 그러며 돌아서 나가더니 오늘의 나의 기쁨을 축하해주려는듯 푸짐히 차린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울긋불긋

한 당콩이 담승담승 박힌 당콩밥이며 더운 김이 후끈 솟는 늪남비에는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열목어의 살찐 토막들이 부쩍 구미를 돋구었다.

《이 고긴 어디서 났소?》

내가 이렇게 묻자 안해는 자못 즐거운 빛으로 대답했다.

《설비부기사장동지가 다섯마리나 들고왔어요.》

《뭐, 설비부기사장이?!》

나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안해의 얼굴을 덤덤히 지켜보았다. 그러자 안해도 나의 기색에서 심상치 않은 점을 찾아본듯 정색해지면서 말했다.

《설비부기사장동진 당신한테 뭔가 꼭 할 말이 있는것 같아요. 당신이 자고있는 침대결에 앉아 담배만 태우셨어요.》

돌아다보니 채털이엔 담배꽂초가 예닐곱개나 굴러있다.

《당신이 깨어나길 한시간이나 기다리다가 자리를 일면서 절대로 깨워선 안된다고 신신당부하고 갔어요. 꼭 하실 말씀이 있는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은 뭐가 있겠소. 어서 물이나 떠오오.》

나는 너자들이 간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툭 잘라버리고 밥상을 물리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그가 왜 찾아왔을까? 혹시 내가 한 보수작업에서 미흡한 점이라도 발견된게 아닐까. 아니면…)

나의 온 마음은 이렇게 발전기로 달리었다. 빨리 설비부기사장을 만나봐야 했다. 그런데 그와 나는 허궁다리우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왜 쉬지 않고 나오우?》

사품치며 흐르는 강물소리가 골을 메우듯 높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툭툭히 가려들을수 있었다.

《…………》

나는 아무 대답도 않고 그의 기색만 살피었다. 설비부기사장은 좀 어색해하는 빛을 띠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겠다고 속다짐한듯 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뱉다.

《난 동무한테 사죄할게 많소. 기술신비주의에 걸려 동무의 대답한 발기를 밀어주지 못하고 찬물만 끼얹었으니…》

설비부기사장은 말을 잊지 못하고 허궁다리 아래를 지켜본다. 사품치는 골개물… 그의 가슴속에서도 그런 소용돌이가 일고있으리란 생각이 들자 어쩐지 나의 마음은 너그러워졌다. 머리속에 기술신비주의가 들어앉았을 때엔 그렇게도 도고하고 찬바람이 풍기던 그였지만 지내놓고보면 마음바탕은 깨끗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말머리를 돌릴양으로 말을 붙였다.

《이미 그건 지나간 일이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난 부기사장동지한테 인사해야겠습니다. 물고기를 가져왔더군요.》

《그 물고긴 초급당비서동지가 보낸거요.》

《예?!》

내가 놀란 빛을 감추지 못하자 설비부기사장은 저르기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했다.

《동무가 집에 돌아간 뒤였소. 초급당비서동지가 나를 부르지 않겠소. 나는 이번 일을 두고 다시 비판이 있을줄 알고 갔소. 그런데 비서동진 나를 만나주더니 발전기를 돌리기전에 함께 강에 나가보자는것이 아니겠소. 정호동무가 천렵을 좋아하던데… 용접면을 쓰고 꼬박 밝혀서 눈에 피발이 섰소. 우리 고기를 잡아서 정호동무한테 물고기맛이나 보여주도록 하자구… 하더군.》

《아니, 그래서 비서동지와 함께 나갔단말입니까?》

나는 울컥 치받치는 걱정을 이길수 없어 이렇게 내쫓듯 말했다. 초급당비서도 스무시간동안 나와 함께 보수작업에 참가하지 않았던가. 더군다나 그 서툰 솜씨로 작살질을 할 생각을 하다니… 나는 눈뿌리가 확 달아올랐다.

얼마후 나는 초급당비서를 찾아갔다. 그는 내가 랭강용접법기술안을 안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문가에 서있었다.

나는 아님때에 찾아왔다는 자책감도 잊어버리고

《비서동지!》

하고 부르며 다가섰다.

초급당비서가 돌아섰다.

《왜 더 쉬지 않고 나왔소?》

그는 나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이렇게 나무라듯 말하였다.

《전 방금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비서동지는...》

《내 걱정은 마오. 난 몇밤을 잔것보다 더 기분이 좋소... 하하하... 동무도 더 쉴수 없었겠지. 아무튼 잘 왔소.》

그는 버릇처럼 나의 손길을 이끌어 앞상의 자리를 권하고 자기도 마주앉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한 빛이 어리어 부석부석해보였지만 눈만은 정기로 넘쳐 불타듯 이글거려였다.

《정호동무, 한가지 토론해보지요. 동무가 해온 용접봉연구를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겠소?》

《.....》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용접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오. 전국적으로 보면 고강도용접이 요구되는 분야가 얼마나 많소. 우리가 이번에 수행한 용접법을 더욱 완성해서 나라의 용접수요를 푸는데 이바지한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던 일을 계속완성시켜보자는거요.》

초급당비서의 눈빛은 새로운 기대와 열정으로 그윽히 빛나고있었다.

《비서동지 정말... 비서동지는...》

이 순간 나는 그 어떤 고귀한것, 아름다운것에 대한 뜨거운 느낌으로 하여 가슴에 손을 대며 고개를 수그리었다. 눈곱이 젖어올랐다.

끝없는 충성의 길우에 정치적생명을 빛내주고 있는 초급당비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고귀한것인가...

그의 끊임없는 지도와 방조를 받으며 나는 여러가지 새로운 용접법을 연구하여 완성시키는 보람찬 기술혁명의 길을 걸어왔다. 꽃피는 계절에 시작된 우리의 일은 벌써 용접봉생산을 위한 분

공장을 건설할수 있는 경험과 물질적토대를 쌓게 된것이다...

잊지 못할 걱정 of 나날을 더듬고있는데 전화종이 찌르릉 울린다. 나는 실험실 창가에서 물러나 수화기를 들었다. 초급당비서의 석심한 목소리가 나를 찾고있었다.

《제가 정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초급당비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고 되묻는다.

나는 바로 초급당비서에 대한 생각을 하고있던 참이라고 할수 없어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얼버무리었다.

《그럼 됐소. 난 방금 용접분공장을 세울 자리를 돌아보았는데... 맞춤형 자리가 있는것 같소. 동무 마음에 들겠는지... 한번 나와 같이 가보지 않겠소?》

(그래서 이 아침 강기슭을 거슬러 올라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수화기에 대고 목gal린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동지, 이제 곧 가겠습니다.》

나는 솜옷을 걸치고 실험실을 나섰다. 귀뿌리 뺑하게 찬기운이 감도는 대기속에 물안개가 몽실몽실 피여돈다. 그 장막속에 우렛이 드러나보이는 발전소... 부드럽고도 고르로운 음향이 지심깊이에서 울려오는듯한 우리의 대동력기지! 거기로부터 뻗어나간 송전선이 맞은켄 산발우로 아스랑게 넘어갔는데 백설을 떠인 산봉우리엔 해빛이 찬연히 빛나고있었다.

천고의 대자연속에 이루어진 이 신비의 세계... 그것은 당의 손길아래 마련된 위대한 창조물이 아닌가! 당의 숨결로 숨쉬는 인간의 창조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찬연한가!

나는 가슴벅찬 상념에 찬기운을 오히려 시원스럽게 여기며 초급당비서가 기다리는 당위원회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 백두삼천리벌에 밀바다 설레인다

박희구

구름우에 솟은 백두고원에  
밀바다 펼쳐지니  
맑은 하늘 머리우에 한껏 열리고  
웃는 해도 종일 떠날줄 모르는가

목메인다  
바람결에 풍겨오는 난알향기  
가슴젖는다  
하늘에 닿아 철썩이는  
금나락의 물결...

해빛을 안고  
만풍을 안고  
웃으며 일어서는 고원  
기쁨에 떠실린  
백두삼천리벌이어

여기서 시작되는것은  
조국의 땅과 하늘만이라  
이 땅 이 하늘 가득히 물결치는  
금나락의 바다  
만풍의 밀바다

끝없이 일렁이는 백두삼천리벌  
그 어디를 가도  
그 어디에 서도  
뜨겁게 어려있는  
거룩한 사랑의 자욱이어

항일전의 그날  
대오를 이끄시고  
이 고원을 지나실 때  
한줌의 흙 비벼보신  
수령님의 그 뜻을 노래하며  
좌좌-  
하늘가에 설레이누나

머나먼

조국의 이 한끝을  
찾아오시여  
손수 삽을 드시여  
땅을 파보시던 그 사랑 그 은덕-  
고마움에 젖어 걸으니  
억만이삭들이 앞서며 따라서고...

지난해도 이렇게 좋은 가을날  
수령님을  
맞이한 기쁨에  
벌도 어리광칠 때  
  
너무도 기쁘시여  
그리도 만족하시여  
걸고 또 걸으신 수령님  
환히 웃으시던 그 미소  
오늘도 물결치는 금나락우에 어려있어라

백두고원 백두고원  
만풍의 기쁨으로 설레이는 너를  
벼바다 설레는 만풍의 들판에 이어주시며  
수령님 자랑높이 불러주신 그 이름  
아, 백두삼천리벌  
백두삼천리벌

다시 한번 안아보자  
설레이는 밀바다  
다시 한번 걸어보자  
수령님 품에서 영원한 풍년벌로 태어난  
백두고원의 삼천리벌이어

이 벌은 천리천리 또 천리여도  
수령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거니  
설레이라 밀바다  
이 땅 이 하늘 가득히  
영원한 풍년벌로 설레이여라  
구름우에 솟은 백두삼천리벌이어!

시조

## 광부의 말

김철

### 저 하늘아래

하나- 둘-  
사다리를 밟으며  
셋- 넷-  
중단들을 헤아리며  
땅 밑으로 간다  
수직갱바닥으로 내려간다

굽어보면  
별들이 줄지어 내리는듯  
곧추 아래로만 늘어선  
간데라... 간데라...

올려다보면  
놓아준 풍선처럼  
멀어져가는  
파아란 하늘...  
등그런 하늘...

저 하늘아래  
우리모두의 가정이 있고  
저 하늘아래  
우리의 탁아소와 유치원  
고등중학교와 대학이 있어

저 하늘아래  
우리 광산병원이 있고  
광부공급소와 야간휴양소

봄을 맞아 새옴트는 청년공원에  
맨발로만 딛고싶은 잔디밭이 있어

하늘은 멀어져도  
생활은 가깝고나!  
사랑하는 우리의 로동자구여  
너의 품에 꽃피는  
웃음과 노래  
꿈과 소원...  
그 모든것 아니라며는  
우리 무엇때문에  
이 길을 서두르랴

묻지 말자 우리끼리는  
어찌하여 때로는 잠을 잊고  
피로마져 잊었던가를  
어찌하여 차디찬 석수속에서도  
저 하늘아래로  
따스한 온돌방으로 돌아가기를  
저마다 고집스레 사양하였던가를

남이 떠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드림없는 결심대로  
하나- 둘-

내려짚는 사다리 한단한단에  
혁명을 책임진 자각을 실으며



간다, 우리는  
저 하늘아래  
수령님 마련해주신  
땅우의 락원을 빛내기 위해

땅밑으로 간다  
더 깊이 더 깊이  
수직갱을 누르며 내려간다

## 내 눈에는...

내 눈에는  
이 크낙한 산이 온통  
금과 은, 쇠와 구리로 보인다  
이 크낙한 산이 온통  
검은금과 백금  
갓가지 빛을 뿜는  
보석의 덩어리로 솟아나보인다

나서 스무해  
두발로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왜 미처 몰랐던가  
땅밑에도 소중한  
조국의 한부분이 있다는것을

천길지심속  
만년을 잠자던 돌우에  
나의 땀방울을 떨구자마자  
그 모든 돌들이  
일시에 숨을 쉬며 노래부르는것을  
  
귀하여라!  
내 힘 내 땀을 바쳐  
내 손으로 가꾸는 어머니조국이여  
내 만일 평생 땅을 밟기만 하고  
땅을 머리우에 받들줄 몰랐던들  
어찌 그대의 품을 헤아릴수 있었으랴

## 나는야 제대군인

나는야 제대군인  
제대되자 광산에 배치되었네  
오 나의 사랑 기타여  
새고장에 정들이자 기타여

아담한 문화주택 차례졌으니  
늙으신 부모들을 모셔와야지  
오 나의 사랑 기타여  
정들면 고향이지 기타여

깡구길 나란히 걸은 그 처녀

공장대학 복도에서 다시 만났네  
말 좀 하려무나 기타여  
이 무슨 인연인가 기타여

어설픈 일 하도 많아 걱정했더니  
깡장도 영웅도 제대군인이란다  
어 참 그렇구나 기타여  
하면 하는것이지 그렇잖아 기타여

수월하게 차례지는 영예는 싫어  
고난도 시련도 맞받아가리

한번 품은 결심을 굽힌다며는  
그 무슨 사나이랴 그렇지 기타여

몸은 비록 제대되어 여기 왔지만

마음의 군복이야 어찌 벗으랴  
오 노래부르자 노래부르자  
기타여 나의 사랑!

## 아침인사

잘 있었나, 사랑하는 고장이여  
나는 밤교대를 마치고  
지금 막장에서 나오는길이다  
하여 눈이 부시여  
아침해별에 눈이 부시여  
안전모채양을 아래로 당기며  
인사드린다 우리 노동자구여

눈이 왔구나  
이렇게도 많이...  
깨끗하고 소담한 눈  
부드럽고 따스한 눈이...  
조국의 자연도 나를 맞으려  
이렇게 정성껏 단장했는가

두다리 벌려딘고 팔을 쳐드니  
가슴가득 차오르는 샘물같은 공기여  
너는 이래서 좋구나  
로동이어 건강이어  
마음에 티끌만한 그늘도 없는 삶이어

내 인사드린다  
눈길 미치는 모든것에  
한겨울 온실에서 자란 남새를 싣고  
상점매대에 들이닿는 자동차여  
폴안이 들썩하게 기적을 올리며  
저 멀리 벼랑끝을 돌아가는 광석차여

내 인사드린다  
집집마다 높이 세운 텔레비존안테나에도  
저기 당위원회앞에  
방금 차에서 내리는 손님들  
평양에서 찾아온 낮익은 배우들에게도

아, 단 하루밤사이에도  
생활은 얼마나 먼길을 달렸는가  
온 광산 숙보원들이 펼쳐나서  
갱구길에 내붙이는 새 숙보들-  
저 하나하나의 낱말과 수자에서  
격동하는 시대의 맥박이 울리나니  
저 모든것 나를 위하여 있고  
저 모든것속에 내가 사는 기쁨이어

나는 산을 내려간다  
훨- 훨- 활개를 저으니  
침침한 산발들도 우줄우줄 따르는듯  
내 정말  
천만가지 보물주머니를 구름처럼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옛말속의 신선인가

아니여라 아니여  
나는 이 땅우에 넘치는 은정에 겨워  
땅우에서도 땅에 머리숙이고 걷는  
이 광산마을의 보통주민이라네

## 조국의 밤

김두권

밤이 깊어간다  
밤은 깊었건만  
조국의 밤은 잠들줄 모른다

깊어가는 수도의 거리  
잠들지 않는 조국의 밤이  
나를 불러 창가에 세우는구나

달빛을 받아  
가로등은 더욱 은근히 빛나는데  
밤기운에 설레는 버들숲이  
나의 이마를 스친다

달려오고 달려가는 차바퀴소리  
오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소리  
어데로 가는지  
나는 몰라라

그 어디를 보아도  
나의 눈길은  
보여오고 들려오는 모든것이  
신기롭기만 하여라

저 밤하늘에  
불빛 쏟아지는곳은 어디인가  
나의 눈을 이끌어 놓질 않는  
아, 황홀한 건설장이여

사람들도 움직임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다그치는 마치소리 기계소리  
떠들썩 말소리 웃음소리  
왜 이렇게도 정답게 들리는것인가

이름도 알길 없는 사람들이건만  
만나면 허물없이 나를 껴안아주고  
뜨거운 가슴을 맞대이며  
반겨줄것만 같은 마음이어

침없이 흘러간 이런 밤이었구나  
잠들줄 모르는 조국의 밤이었구나  
바로 이런 밤에  
조국은 높이높이 일떠섰구나  
바로 이런 밤에  
조국을 떠받들며  
숨은 영웅들은 싸우고있구나

모든것이 놀랍고  
모든것이 신기롭고  
모든것이 정겹고 아름다운  
어머니 나의 조국

낮과 밤이 없는  
투쟁의 해와 달로 세기를 밝히며  
한량없는 사랑의 품으로  
사람마다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생각하노라

세월도 산천도 그 품에 안겨  
목메이누나  
깊은 밤에도  
눈부신 빛발로 솟아오르는  
조국의 건설이여

지난날  
일떠서는 천리마거리의 기적에  
놀라고놀라던 내가  
오늘은 수도의 한가운데에 높이 솟는  
인민대학습당  
휘황한 건설장의 저 불빛에 놀라며  
잠 못 이루거니...

밤은 깊어가건만  
잠들지 않는 조국의 밤이여  
나는 잠들수 없는 창가에서  
숨은 영웅들과 함께  
이 밤을 지새운다

## 어머니당에 인민은 감사를 드린다

윤시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일러 우리 인민은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다함없는 심정으로 감사를 드린다.

어머니당이란 이 말은 가장 친근하고 가장 고귀한것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며 세상에 태어난 그 시각부터 어머니의 사랑과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성장한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끝이 없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다.

바로 그로하여 누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진 고통을 당할 때면 먼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당이라는 이 말속에는 세상사람 누구에게나 간직되어있는 사랑의 감정과는 다른 보다 본질적이며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사랑의 감정과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

이 교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것을 사람들을 위해 복무하게 하며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적극 발양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을 규정하신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근본원칙을 견지하시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몸소 당건설의 진두에서시여 우리 인민모두를 마치 어린 자식을 돌보시듯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새생활창조의 보람찬 길에 내세워주시고 수백만 근로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당당히 세워주시였다.

나는 얼마전에 로력영웅이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어느 한 방직공장의 녀성초급당비서를 만난 일이 있다. 그는 남반부에서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 여덟살의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아이보게노릇을 하면서 모진 구박과 천대를 다 받아왔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어머니를 잃고 폭격에 의식을 잃은 채 흙속에 묻혀있던 그는 인민군전사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해 구원되었으며 전사들의 배당에 없혀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기구한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이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저는 초등학교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복과 기쁨만을 알고 자랐습니다. 당은 저를 영광스럽게도 조선로동당의 대오에 세워주었고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자래워주었습니다.》라고 감동에 겨워 말했다.

그가 직포공 로력혁신자로서 제2차전국천리마 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 참가한 날이었다. 그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자기를 찾으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이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다리고계신듯

《…동무가 왔구만… 어서 여기 와 앉소.》하고 그의 손을 잡아 옆자리에 앉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설명해드리는 기계순회방법을 일일이 알아보신 다음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며 《남반부에 고향을 두었다지. 거기 누가 있소?》하고 물으시였다.

아버지는 일찌기 돌아가고 어머니 한분만 있었는데 후퇴시기 서로 헤어졌다는 그의 말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어디 살아계시는지 모르겠구만.》하시며 낯색을 흐리시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진정한 당의 참된 딸, 당이 길러낸 혁명가의 한사람이라는 분에 넘치는 평가와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더러 이제 공장에 돌아가면 후비를 서너명 더 양성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그는 로력영웅이 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큰 공장의 초급당비서로까지 되었다. 남반부에 있었다면 한갓 강가에 덩구는 조약돌과 다름없이 못발길에 짓밟혔을 그,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겨우 목숨을 연명했을 그, 세상에 피어나기도전에 스러져버렸을 한떨기 애처로운 꽃에 불과했던 그였다.

이러한 그를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자랑스런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국사를 의논하는 대의

원으로, 당을 받들어 큰일을 하는 초급당비서로 키워주시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성장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한들 어떻게 제가 받아안은 사랑을 다 안겨줄수 있으며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꿈엔들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끔 어린시절이 떠오를 때마다 오늘의 영광과 보람찬 생활이 꿈만같이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는 로력영웅이며 초급당비서인 그 녀성에게만 있는 드문 사연이 아니다.

나는 가릴처절했던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와 해방후 우리 당의 창건을 선포한 그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역사적나날에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이끄심에 의해 당의 품에 안긴 사람들을 적지 않게 알고있다.

그들중에는 오랜 혁명투사들, 국가의 간부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이름난 혁신자들, 예술가들도 있다.

이들 혁명투사들, 과학자들, 이름난 예술가들, 로력혁신자들은 그 누구나 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바다의 깊이로도 산의 높이로도 헤아릴 길없이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당의 품에 안겨 성장한 감동적이야기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가슴속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그것은 한 인간에게 육체적생명을 안겨주는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과는 비할수 없는 무한대한 크기의 용력과 무게와 깊이를 가진것이다.

그 믿음, 그 사랑은 정녕 우주를 밝게 비치며 만물을 성장케 하는 태양의 크기와 뜨거움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렬한것이다.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은 그늘진 구석을 남기지만 어머니당의 사랑에는 구석이 없다.

당이 걸어온 영광의 역사와 함께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변혁들, 짧은 역사적시기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일, 온갖 낡은것을 깃부셔버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나가는 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의 창조, 민족문화예술의 눈부신 개화발전, 이 모든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와 슬기를 백배 천배로 키워주시어 역사적위훈을 떨치게 하여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령도와 사랑이 무궁함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희천에서 공작기계 1만대생산의 봉화가 타올랐을 때 공장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집단적혁신운동의 선두에 나선 6명의 기술자들에게 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주신 이야기와 대안의 설계원을 만나시어 몸소 입당보증을 하여주신 이야기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젊은 과학자의 연구성과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시어 숨은 영웅이라고 불러주시며 몸소 박사칭호를 수여해주시고 조선로동당당원증까지 수여해주시는 영예를 안겨주신 이야기는 세기를 두고 길이 전해질 아름다운 《전설》로 되고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전설》들은 신천과 재령, 열두삼천리의 농장벌에도 있으며 황철과 김철의 용해공들, 무산의 광부들속에도 있으며 또한 주체예술의 화원을 꽃피워나가는 작가, 예술인들속에서도 수없이 전해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의 이야기로 아로새겨진 그 하많은 아름다운 《전설》들을 짧은 글속에 담는다는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 땅위의 어느 도시, 어느 마을, 어느 논벌, 어느 공장과 어느 산골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와 사랑이 미치지 않은곳이 있으며 우리 인민 어느 누구의 가슴에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자애로운 사랑에 의해 새로 태어난 감동적이야기가 깃들어있지 않으랴!

오늘 그 아름다운 《전설》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에 의해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풍만해지고있다.

실로 그 아름다운 《전설》들로 하여 우리 당은 위대하며, 수천년동안 역사무대의 아득한 수평선 뒤에 밀려나 현대문명과 담을 쌓듯해온 락후한 식민지나라 조선은 기적과도 같이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섰으며 우리 인민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존엄있고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다.

우리들은 다함없는 충성의 열정을 담아 위대한 어머니당을 노래하며 높은 공지와 자부심, 무궁한 힘을 지니고 신심에 넘쳐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달려나간다.

어머니당여, 길이 번영하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이끄는 승리의 한길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린다.

## 무리등

## 황영도

강변으로 향한 방직공장 여자합숙 창문가에 두 처녀가 서있었다. 한 처녀는 박창희라 불렀고 다른 처녀는 오명실이라고 했다. 그들은 방금전에 직장에서 돌아온참이었다.

저 멀리 소나무숲이 무성한 산마루우로 떠가는 조개구름은 노을빛에 물들었고 강기슭에는 열음이 채 풀리지 않은 강물이 흐르고있었다.

두 처녀는 창밖에 눈길을 줄뿐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문득 복도에서 토닥토닥 탄력있게 울리는 잦은 발걸음소리가 울리더니 창밖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터졌다. 어린 처녀들의 그 즐겁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라도 한것처럼 팔짱을 끼고섰던 명실이 얼굴을 돌렸다.

《…창희, 난 정말 네가 그 일을 맡게 될줄은 몰랐어…》

조용하던 방안에는 여무진 처녀의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명실은 참아오던 말을 하는듯 팔짱을 풀고 손바닥을 펼쳐보이기까지 하였다.

《결국 우린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됐지…》

《…………》

창희는 명실이의 말을 듣기만 했다. 명실이의 말문이 열리면 돌쩌귀 빠진 대문처럼 단길줄 몰랐다. 그럴 때에 그와 이야기를 주고받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창희는 손에 쥔 자그마한 수첩을 안타깝게 주물뿐 금시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혀끝으로 아래 입술만 추기였다.

《난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지만…》

명실이의 목소리는 실꾸리가 풀리듯 거침새없이 흘러나왔다.

《…직장에서는 나보구두 이젠 옥양공을 하면서 양성공을 키우는게 어떤가구 물었어. 그러나 난 첫마디에 거절했어… <직장장동무, 난 정방공으로 그냥 일하고싶어요. 난 꼭 새 기록을 돌파하

고야말겠어요!> 하구 말했어… 너하구 무리등밀에서 한 말이 생각나서 그랬지. 그런데 넌 나보구 제일 가까운 동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무슨 우정이니…?》

《명실이…》

창희가 처음으로 순진해보이는 눈을 들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명실이의 음성처럼 쟁쟁하게 울리지도 않았고 거침새없이 술술 흘러나오지도 못했다.

가슴속에 하고싶은 말이 가득 피여있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어하는것 같았다. 자주 동강이 나는 그의 부드러운 입귀는 가늘게 떨리기만 했다.

《너두 알았겠지만… 난 며칠전에…》

창희는 점차 말머리가 잡히자 직장장 박기철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그때 직장장동무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것을 생각했어…》

이제는 창희도 하고싶었던 이야기의 굵을 단단히 틀어잡은듯 마디마디 사개가 들어맞는 말을 했다. 보매 그도 속에 품고있는 심정을 목새기기만 하는 아련한 처녀는 아닌상싶었다.

《물론 나두 네 심정을 모르지 않아. 난 개인의 기록을 무시하는게 아니야. 그것두 중요해… 그러나 지금 우리 공장 형편에서는 양성공들을 빨리 키워 많은 사람들을 혁신자로 되게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뿐이야. 이속에서 우리의 보람도 더 커질것이고…》

《넌 또 그 말이니?》

명실이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차츰 서운해하는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창희는 진작부터 그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것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알근해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창희는 다른 작업반에 배치된 양성공들까지 더 받아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실이는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넌 자기가 그런 결심을 한것으로 만족해할지

몰라도… 자기 동무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리라는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아…》

《…?》

《만일 내가 앞으로 새 기록을 세웠다 하자, 그래 그때에 넌 내 마음이 기쁘리라구 생각하니?…》

《넌 어쩌면 그런 생각까지…》

《좋아. 난 더 말하고싶지 않아. 우리 둘사이가 이렇게 쓰랭쓰랭해지리라곤 생각못했어…》

《명실이.》

창희는 자기가 정방기를 타지 않는다고 해서 명실이의 새 기록 창조에는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을것이며 더우기 두사람사이의 우정도 더 깊어지리라는데 대해서 말하였다. 그러나 명실이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더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 창희를 상대하지 않겠다는것을 선언이나 하듯 잔주름치마에 바람을 일구며 방에서 나갔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다. 저녁노을이 비졌던 강변에서는 랭기 품은 바람이 불어치며 앙상한 나무가지를 휘젓고있었다.

어설퍼지는 마음을 다잡고 창가에서 물러난 창희는 책상앞에 마주앉아 수첩을 펼쳐놓았으나 글줄은 눈에 밟히지 않았다.

《네가 내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럴수 없어 …》

명실이가 남기고 간 이 말은 즐겁고 유쾌하던 견습공시절 북천강의 물결우에 불기둥을 드리우고 현란하게 빛을 뿌리던 무리등밀으로 창희의 상념을 이끌어가는것이였다.

…정방공실습기간이 끝나가던 어느날, 창희는 명실이와 함께 강변길을 거닌적이 있었다. 봄밤이였다. 두 처녀는 무리등이 매달린 8각형 아름드리 기둥에 어깨를 가지런히 기댄채 꿈꾸듯 생각에 잠겨있었다.

《명실아, 넌 왜 정방공이 되었니?》

《나말이니?》

명실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두눈을 빛냈다.

《내가 정방공으로 된데는… 영화에서 받은 충동이 컸다구봐.》

《그래?》

《난 졸업을 앞두고 <정방공> 영화를 보면서… 문득 나두 정방공영웅이 되구싶지 않겠니?》

《…어쩌문 그렇게두… 신통히…》

《그럼 너도?…》

두 처녀는 손을 맞잡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강물이 넓은 바다로 흘러가듯 보람찬 로동생활에 들어서는 두 처녀의 리상과 포부는 이처럼 그 단순성과 천진스러움으로 아름다웠었다.

《명실아, 우리 꼭 다기대공혁신자가 되자, 응?》

《그래, 정말 정방공영웅이 되자!》

창희와 명실이의 《경쟁》은 이렇게 약속되였다. 그들은 그 무리등밀에서 가슴을 설레이며 땀은 경쟁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였고 정방공으로 첫발을 떼면서부터 다기대공으로, 정방기고속도화의 명수로 줄곧 쌍둥이혁신자로 불리워왔었다. 같은 빛갈의 머리수건에 새로 나온 옷을 함께 사입고 신발까지 똑같은것을 신고 가지런히 출근길에 오를 때면 그들의 사이를 잘 알고있는 공장 지도일군들은 《신통두 하지… 결혼식도 한날에 할거요…》 하고 말하곤했었다.

이렇게 이 두 처녀는 류달리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했다. 아마도 그것은 실낱이공정에서는 헤침기대공이며 빗질기대공, 련조공, 권사공들이 다 자기 몫을 잘해야 하지만 정방공이 실생산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기때문에 그런지도 몰랐다. 어쨌든 공장에 찾아오는 기자나 사진사들도 소면직장이나 권사직장의 혁신자들보다 다기대정방공부터 찾는것이였다.

창희와 명실은 사람들의 관심이 크면 클수록 더욱 분발하였다. 그들은 벌써 제2차7개년계획을 작년말에 앞당겨 끝내고 지금 당제6차대회전으로 그 10년분과제를 넘쳐할 목표를 내걸고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앞에 양성공들을 하루 빨리 키워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천생산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작년가을에 신입로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실습을 마치고 기대에 배치되었지만 아직 기능이 높지 못하기때문에 정방기 대당실적이 오르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을 다기대공으로 빨리 키우는것은 개별적인 몇사람의 혁신자들이 생산을 높이는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어느날 창희는 직장장의 부름을 받았다.

《…창희동무, 공장에서는 동무가 옥양공을 하면서 작업반장사업을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창희는 직장장의 말을 몇번이나 곱씹어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도 명실이처럼 개인기록을 창조하고싶다고 뻔뻔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방기를 계속 타고싶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집단보다 자신의 명예, 양성공들의 기능보다 개인의 기록만 내세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창희였다.

(명실이기도 이해할 때가 있겠지…)

창희가 작업반 양성공들의 준비정도와 기대의 특성에 맞게 순회로를 그려보고있을때였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명실이네 작업반의 양성공처녀 최채옥이가 들어섰다.

《아니 네가 어떻게?》

《언니 요즘 영화보려도 안다녀요?》

채옥은 손에 들고있던 목란꽃이 새겨진 편지봉투를 내밀었다.

《아이, 어서 열어보시라요. 엿보지 않을테니…》

《그래 이 편지때문에 영화두 안보구 우야 왔니?》

《언니두 참 별스럽게 구네… 언니가 눈이 까매서 기다리겠는데 그냥 가겠어요?》

《기다리다니?》

《난 이 편지가 어떤 편지라는걸 알거던요. 어머니가 나이찬 딸에게 어떤 편지를 한다는것쯤은 나누 안답니다.》

《뭐?!》

누가 뭐라면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곧잘 수집어하던 채옥이한테 그런 능청스러운데가 있을줄은 정말 몰랐다.

《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호호호.》

한동안 방안에서는 다감하고 웃음 해폰 처녀들의 즐거운 말들이 오고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채옥은 웃음을 거두고 얼굴에 신중한 빛을 띠우더니 부지중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언니, 난 웬일인지 요즘… 잠이 안와요…》

채옥은 창희의 얼굴을 언뜻 쳐다보며 귀엽게

생긴 입술을 오무렸다.

《나두 언니처럼 다기대공이 되구싶어요. 언니, 나두 언니네 작업반에서 일하게 해줘요… 예?》

《우리 작업반에… ?》

창희는 저도모르게 눈시울을 치켜올렸다.

《채옥이, 채옥인 잘못 생각하고있는것 같아… 작업반을 마음대로 옮길 생각을 하다니…》

《저두 그런건 알아요. 다만 언니네 작업반 양성공들처럼 빨리 기능을 높이구싶어서 그래요…》

《명실이가 널 담당했다지…? 우리 직장에서 명실이를 따를만한 기능공이 얼마나 되겠기에… 물론 제 정방기를 보면서 양성공을 배워주자니 좀 더딜수야 있겠지…》

창희는 친절한 어조로 타이르려고 했으나 채옥은 그 어떤 기대가 허물어지는듯 실망한 눈길을 살며시 내려깔더니 《그래두 난 언니가 내 심정을 이해할줄 알았는데…》 하고 한마디 섭섭한 말을 남기고 방에서 훌쩍 나가버렸다.

…며칠후 월말생산전투가 한창 벌어지고있을때였다. 창희가 작업분공을 끝내고 옥양통을 정리하고있는데 뒤에서 풀먹인 옷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명실이가 다가섰다. 진보라색바탕에 포도송이무늬가 돌친 달린옷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명실이를 바라보는 순간, 창희는 그가 간단치 않는 말을 하려고 한다는것을 인차 느끼였다. 아마도 그것은 명실이의 얼굴에 어린 다정한 표정보다 그가 입은 옷차림에서 그런 느낌을 더 받게 되는지도 몰랐다. 그것도 그럴것이 그가 입은 옷은 정방공으로 처음 배치받은 날 백화점에 함께 가서 사입은 옷이였다. 그때 창희는 은근한 맛이 있는 수박색옷에 마음이 끌렸지만 명실이가 하도 조르는데다 그리 긴치도 않는 일로 해서 동무를 섭섭케 하고싶지 않아 그대로 응해버렸다.

그리하여 그날 그들은 포도송이가 다문다문 박힌 깃없는 옷을 똑같이 사입고 어깨나란히 사진도 찍었다. 명실은 바로 그 옷을 잔지게 다림질하여 허리주름이 부풀게 손질해입고 그앞에 나 타났던것이다.

《창희, 요즘 일이 힘들지…?》

명실이의 눈빛과 음성에서는 창희의 마음을 움직여보려는 지긋은 의도가 다분히 어려있었다.

《작업반경쟁도표를 보았어… 난 네가 맡은 작



업반의 실적이 더 오르지 못하고있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네가 정방기를 계속 탔으면 이럴수야 있겠니?》

명실이의 말은 조리가 있었고 그만큼 반박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하면 창희는 애대로 쓰면서도 보람은 있을상싶지도 않는것이다.

《얼마간이겠지…》

《얼마간이라구? 네가 양성공들을 붙어잡구 씨름하느라 시간엔 다 가… 넌 왜 이걸 생각 안하니. 얼마 안가서 7개년계획의 10년분과제를 끝낼수 있는 네가…》

《명실이… 나두 네 심정을 알만해… 그러나 난 물러설수 없어… 어서 너나…》

《나 혼자 혁신자가 되구 영웅이 되란말이지? 그러면서두 내 심정을 안다구?》

명실이의 얼굴에 어렸던 정겨운 표정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대신 숨결소리가 높아졌다.

《다들 뭐라구 말들 하는지 넌 듣지 못하니? 창희 자기 명예보다 집단을 위하는데 이 명실은 개인기록만 세우려고 한다구… 그런데 넌 내 마음을 안다는거지… 좋아, 아무렇게나 생각들 하라지… 그렇다구 난 내가 새 기록을 돌파하고싶다는것을 숨기진 않아… 그래 내 말에 의견이 있니? 넌 언제나 내 말을 처음엔 반대하곤했지… 옷을 사입을 때두…》

《웃살 때…?》

창희는 문득 반문하면서 약간 놀라는 눈빛을 띠었다.

《창희, 이제 정말 알만해… 지금은 그 약속을 하던 때의 마음은 다 식어서 내 의견도 데데하게 여긴다는거지…?》

《뭐? 마음이 식다니?》

《그럼?》

《아니야, 명실이, 난 아직두…》

《그만뒤!》

명실은 창희의 말을 더 들어볼것이 없다는듯, 몸을 곧추 세우고 앞만 바라보면서 정방기사이로 지나갔다.

초점이 흐려오는 눈길로 정방기사이로 사라지는 명실이의 포도송이웃을 바라보던 창희는 어설피퍼지는 마음을 다잡기라도 할것처럼 인차 일손을

잡았다. 그는 밤교대에서 인제받은 정방기에 다가서서 다 감긴 실꾸리들을 쥘쥘 뽑아 옥양통에 담아넣기 시작했다. 한쪽 손으로는 실토리를 뽑고 다른손으로는 빈 실토리들을 꽃아나갔는데 다섯손가락잡에 끼운 한뿔기장의 종이실토리는 쥐기바쁘게 가락에 꽂히었다.

정방작업반에서는 보통 20여명가량의 처녀들이 일하고있는데 그중에서 옥양공은 기능도 있고 일손 채고 책임성도 있는 처녀들을 시키려 한다. 옥양시간을 단축해서 정방기의 대당실적을 높이려고 하는데만 있지 않았다. 옥양공들은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도 정방공들을 도와줄수 있는것이다. 작업반장이 정방기를 타지 않고 옥양공을 겸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양성공들은 정방공이 되고싶어하며 이미 있던 정방공들은 옥양일을 선뜻 맡아하러 하지 않는다. 옥양작업이 정방일보다 못지않게 드바쁘기때문만도 아니였다. 아무리 옥양에서 혁신을 일으켜도 생산실적은 정방공들의 이름에 붙어다니고 영예게시판에 나는 사진도 정방공들이 태반을 차지한다.

옥양을 다 끝낸 창희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이마에 내뻐 땀을 팔소매로 훔쳤다. 이제부터 정방기가 실을 감을 때까지 창희는 양성공들을 가르쳐줄수 있었다. 굵은 실은 20분, 가는 실은 1시간이상 걸린다.

《금주…》

창희는 어깨가 좁고 목이 성큼한 처녀가 고무굴개에 감긴 숨을 뜰어내는것을 보고 다가섰다.

《갈구리는 두손으로 이어잡아야 한대두…》

창희는 칼끝처럼 뽕죽하고 끝이 굵은 갈구리를 넘겨받아쥐며 금주가 무안을 느끼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한손으로 잡으면 일손도 더디구 고무굴개에 흠집도 생길수 있어.》

《습관이 안돼요…》

《이제 돼. 그런데 넌 또 청소솔을 안가지구 일하누나… 이 실면지때문에 단사가 생긴단다…그리구 정방공은 적어도 한발자국을 옮길 때에 열두가지를 한눈에 살피게 돼야 해. 조사토리로부터 쟁김굴개, 고무띠, 실유도기… 가락에 이르기까지…》

《알겠어요…》

금주와 헤어진 창희는 옥희의 기대로 그 다음은 혜순의 기대로 이렇게 차례차례로 양성공들을 만나면서 가락이 떨릴 때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고 달리개가 불량하면 실이 어떻게 끊어지는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일깨워주었다. 경험에 의하면 기능공과 무기능공과의 차이란 그닥지 않는 몸동작 하나에서 나타나군하는데 그것으로 양성공과 혁신자의 실생산실적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는것이였다. 나이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같지만 양성공처녀들은 저마끔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있었고 눈썹미 또한 같지 않았다. 어떤 처녀들은 좀 덤비며 일손이 거친가 하면 꼼꼼하고 착실한 처녀들도 있었고 한번 말해주면 인차 행동으로 옮기는 처녀가 있는가 하면 열번을 반복해서 대주어도 순회로를 제대로 타지 못하는 처녀도 있었다. 창희는 정방공으로 일할 때에는 미치느끼지 못했던 이런 간단치 않은 일을 자기가 꽤 해내겠는지 근심도 없지 않았다.

창희가 이런 생각에 잠기여 복실이의 기대앞으로 다가설 때였다. 양성공처녀들중에서 그중 몸이 실박하고 일손이 굵든 복실이가 잠깐사이에 끊어진 실을 다섯오리나 붙이는것이였다.

(아니, 복실이가?!…)

언젠가 정방공을 그만두겠다고 하던 복실의 말이 떠올라 창희의 기쁨과 놀람은 더욱 컸다.

《정방미립이 이렇게 빨리 티는걸 처음엔 무슨 생각이 나서 억지를 썼니?》

창희는 복실의 토실토실한 불을 손가락끝으로 가볍게 튕겨주며 즐겁게 웃었다.

《언니가 우리때문에 너무 고생하는게 미안해서 그랬지요 뭐…》

《?!…》

알고보니 속이 깊은 처녀였다.

일손이 굵프다고 제일 미심쩍게 여겼던 그가 오히려 남보다 먼저 실잇는 미립을 띄운것도 놀라왔지만 그속이 한량없이 깊는데 창희는 더욱 감동되였다.

《복실이!》

창희는 굳턱이 질사한 복실이의 얼굴을 사랑겨운 눈매로 바라보며 말했다.

《며칠후에 실잇는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자신

있어?》

《얼마문 합격이예요?》

《1 분동안에 20개 이상…》

《아이, 난 열개도 이을것 같지 않는데…》

《그래서 자꾸 익히라는거야…》

《그런데 언니… 아침에 명실언니와 무슨 얘길 했어요?》

《…?!》

《우린 정방기뒤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옮기면 못써…》

말은 이렇게 스스럼없이 하였지만 창희는 또다시 명실이에 대한 애모쁜 생각으로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어쩌면 다시는 더 명실이와 가깝게 지내지 못할수도 있게 되리라는 생각이 무겁게 갈마들었다. 그런 피로움을 묵새기지 못해서인지 창희의 얼굴빛은 창백해지였다. 그러나 창희는 명실이와의 사이가 버성겨지는 일이 아무리 가슴쓰려도 양성공들을 키우는 일을 등한시할수 없었다. 그는 양성공들을 가르쳐주다가도 옥양시간이 되면 실토리를 부리나케 뽑아 밀차에 담아실고 저울앞으로 달려가군하였다. 것처럼 분과 초를 쪼개가며 일손을 다그쳤지만 애쓴 보람이 없이 작업반실적은 더 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교대시간이 거의 다가올무렵 창희는 실습을 받을 때 순회길을 단축하기 위해 애쓰던 생각이 떠올라 명실이를 찾아갔다.

《창희, 어떻게?…》

명실이는 정방기를 보지 않고 실을 제격 이어 붙이면서 말했다. 아마도 그런 숙련은 명실이를 내놓고서는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것이였다.

《자…명실이, 일하는데 안되긴 했는데 명실이 두 처음엔 량면순회를 다 익힌 다음에 <8>자형을 도입 했지?》

《그건 왜?》

《양성공들에게 대뜸 <ㄱ>자를 익혀주자니까.》

《그래서 날 만나러 왔니?》

명실이의 두눈에는 방금전과 달리 의혹의 빛이 점점 짙게 어렸다.

이때 명실이네 작업반 운전공이 저쪽에서 급히 다가오며 흡입관이 메서 굴개에 벨이 나오는데 무얼 하는가고 성을 버럭 냈다. 그러나 명실이는

운전공의 말을 태연스럽게 받으며

《운전공동무, 뭘 그렇게 떠들어요?》

하고 한마디 툭 내쏘았는데 그 눈빛은 《내가 그걸 모르는줄 아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는 속대사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창희는 명실이앞에 더는 서있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명실이는 너그러운 얼굴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창희가 묻는 말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헤어지기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창희, 어서 양성공들을 잘 키우라구... 내가 잘못 생각했을수도 있어... 다만 나는 네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뿐이야...》

창희는 정방기사이로 멀어져가는 명실이를 이윽도록 바라보면서 그를 찾아온것이 잘못이었으며 양성공을 키우는 문제를 놓고 그와 진지하게 의논하기는 틀렸다는것을 깨달았다.

《반장동무... 일이 힘들지...?》

직장장 박기철이가 다가서며 물었다.

창희는 고개를 수긏하고 형클어진 실꾸리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혼자서 기록을 낼 때 하곤 다르지?... 집단적 혁신이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다구 할거요.》

기철은 양성공들을 다 혁신자로 키우자면 그중에서도 앞선 동무의 모범을 창조해서 일반화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이것은 창희가 미처 생각못한 문제였다.

《실잇기내기를 한다든가 해서말이요.》

《저두 그걸 생각은 하구있는데...》

《벌써 생각은 했단말이지?...》

기철은 창희의 생각이 자못 대견하여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담았다.

《참 그리구 반장동무도 기능을 높일 때에는 수예실에 자주 다니던것 같던데...》

기철이의 일개움은 창희로 하여금 아직도 자기 사업에서 빈구석이 많았다는것과 무엇인가 더 할수 있는 일을 못하고있다는 자책감에 싸이게 했다.

창희는 그 이튿날 작업반 양성공들의 《실잇기경기》를 조직했다. 그런데 작업반 처녀들의 경기는 창희가 예기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두었다. 양성공처녀들모두가 10오리를 이어나마나 했는데

그중에서 창희가 제일 미흡하게 생각했던 복실이 18오리를 붙이었던것이다.

창희의 기쁨은 그가 거의 3초동안에 한오리씩 붙이었다는데만 있지 않았다. 그의 실붙이는 동작과 방법이 자기가 배워준것과는 다르다는데 있었다. 창희는 끊어진 실끝을 집게손가락 첫마디 끝에 대고 붙이곤했는데 복실이는 둘째마디로 약간 올려밀면서 손목만 놀리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실수가 없었고 정확했다.

창희는 자기의 몸에 익은 동작을 양성공들에게 고려도 없이 가르쳐준 뉘우침과 함께 자기도 모르고있었던 새 방법이 창조된데 놀라며 그로 해서 가슴이 설레이었다.

(...복실이 방법을 일반화해야지...)

창희는 더 지체하지 않고 새 실붙이기방법으로 양성공들을 가르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매듭 실잇기방법은 은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양성공들의 대당실적은 날을 따라 높아갔다. 직장속보판에는 양성공들의 이름이 나붙기 시작했다.

그런데 창희는 자기가 바라던 일이 눈앞에 붉은 글씨로 빛나면 빛날수록 그리고 양성공처녀들이 손목에 매여달리며 《언니, 고마와요.》 하고 다정하게 속삭이면 속삭일수록 마음은 여전히 가벼워지지 않았다. 자기 작업반 양성공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때면 채옥이가 찾아왔던 일이가슴에 맺혀왔고 그를 너무 푸접없이 대한것만 같았다.

복실이 대당실적에서 거의 기능공들의 수준에 오른 날 저녁이었다. 창희는 명실이가 먼저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함속으로 향했다. 그런데 공장구내길옆에 줄지어 늘어선 수양버드나무사이에서 뜻밖에 청년남녀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한대의 구내등이 희미하게 비치는 분수터에서 곡괭이질소리와 삽질소리가 어울리며 땅파기작업이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무슨 작업인가요?》

《무리등기초를 팝니다. 온 구내가 환해질겁니다.》

《그래요?!》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창희는 허리까지

잠긴 흙구덩이안에서 삽질을 하고있는 처녀에 시선이 멈춰졌다.

《아니, 너 채옥이가 아니냐?》

창희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놀란 표정을 짓고 그에게 다가갔다.

《난 뭐 이런 일도 못해요?》

웅천데가 있는 목소리였다. 창희가 한발 더 앞으로 다가서도 채옥은 허리를 갑작이면서 삽질만 계속했다. 창희는 일부러 뿔머리를 쓰는 그가 응석받이 동생과 같은 살들한 정이 들어 담썩 품에 안아주고싶었다. 그는 저도모르게 기초구덩이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채옥이와 함께 삽질을 하였다.

이윽고 기초과기작업을 마무리한 창희는 채옥이의 등을 밀다싶이하여 직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채옥이를 정방기앞에 세워보고싶었다.

《눈이 좀 나쁘다지?》

《그걸 누가 말해요?》

《누가 말하긴? 한직장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지낼가...》

창희는 채옥이와 함께 일하는 동무들에게서 귀결에 들은 말이어서 얼버무렸다.

《명실언니가 말했지요? 자기도 그 정방기를 말아볼 때에는 나보다 더 단사를 내구서두...》

채옥은 어이없다는듯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내 눈은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 난 그믐밤에도 바늘귀를 꿰요.》

창희는 더 묻지 않았다. 처녀의 가슴속에 한번 웅천 매듭이 쉬이 풀릴수 없을것이였다.

《저... 언닌 양성공들에게 수예실에 가서 수놓이도 배워준다지요?》

한동안 말없이 걷던 채옥은 어지간히 마음을 녹쫓힌듯 방금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직장장동무가 명실언니에게 했는지... 내 기능을 높여주겠다고 수예실에 오라는거지요... 정말 수놓이를 하면 실잇는게 빨라져요?》

창희는 채옥이가 정방공일에 애착을 느끼고있으며 그 일에 익숙되려고 무척 마음쓰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방직은 예술이라고 하시었어...》

창희는 실을 뽑고 천을 짜는것은 단순한 로동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조하는것과 같다고 하였다.

《오리오리에 정성을 담아야 하거던... 그러자면 수놓이처럼 손놀림이 재면서두 정확해야 해... 정방공은 그래서 수놓이를 배운단다.》

《그런걸 난... 수놓인 시집갈 준비나 하는것 같아서...》

《넌 정말... 그렇다 해두 나뻘게 있니?...》

《아이... 난 모르겠어요...》

창희는 채옥이의 말을 들으면서 웃었으나 어린 처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부끄러워했다.

채옥이가 말아보는 정방기앞에 다가선 창희는 《ㄱ》자형 순회에서 지켜야 할 몇가지 동작과 눈길이 옮겨져야 할 순서에 대해서 설명했다. 채옥은 시험관앞에 선 학생처럼 긴장한 걸음으로 기대사이를 누벼나갔다. 그런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의 뒤를 따르던 창희는 저도모르게 무춤 섰다. 처음엔 재빠른 동작으로 실을 잇군하던 그가 돌아올 때에는 자주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것이였다.

《채옥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해. 정방공은 오직 앞으로, 앞으로만 걸어가야 해...》

《언니, 그렇게 안돼요...》

채옥은 얼굴빛을 흐리우며 안타까와했다.

《지나온것이 아물아물하면서... 언닌 안그래요?》

《그래?》

창희는 의아해하며 채옥이앞으로 걸어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희는 뜻밖의 사실에 부닥쳤다. 창희자신이 채옥이처럼 눈이 아리아리해지며 뒤를 돌아보게 되였다.

《무엇때문일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며 조명등의 위치와 간격을 가늠해보기도 하고 배경판의 색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이 기댄 네가 자진해 말았니?》

《명실언니가 이 정방기때문에 실적이 자주 떨어진다구 하길래...》

《그것봐, 자진해 말았으면 더 주인답게 일해야

지... 힘들다구 작업반까지 옮길 생각을 했으니  
넌 정말 비판을 좀 받아야겠다...》

창희는 양성공들을 키우던 나날을 더듬으면서  
복실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기능공들한테서 배운다구 그대로 본따선 안돼  
... 복실이처럼 제 머리를 써서 새 방법을 탐구해  
야지...》

《알겠어요, 언니...》

이때 등뒤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총알같이 빠른 음성이 귀전을 때렸다. 채옥을 찾  
아 달려오는 명실이었다. 원래 걸음새가 날렵하  
고 몸동작이 세련된 명실은 무슨 급한 일이든가  
좀 기분상한 일이 있으면 앞만 곧추 바라보는 버  
릇이 있었다.

《채옥아, 넌 여기서 뭘하고있니?》

명실은 창희를 언뜻 바라보며 말하였는데 그의  
입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수예소조실에 들리라구 그만큼 말했는데... 자  
기 기능공을 허술히 보아도 분수가 있지... 그러  
니 사람들은 내가 널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  
할게 아니겠어...》

노여움이 어린 가차없는 꾸지람이었다. 일단  
약속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예누리없는  
명실이고보면 성낼만도 하였다.

했지만 채옥인 신발끝을 내려다볼뿐 한마디도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다.

《명실이, 날 욕해... 내 잘못으로 채옥이가 예  
까지 오게 되였어...》

창희는 명실이가 정방기를 말아보면서 채옥이  
의 기능을 높여주려고 하는것이 마음에 썩여 진  
심으로 말했다. 자기 경험을 보아도 정방기를 타  
면서 양성공들을 한두사람 말아키운다는것은 웬  
간한 결심이 없여가지고는 엄두도 못낼 일이다.

그러나 명실이의 생각은 창희와 같지 않았다.  
그는 채옥이가 수예실에 나타나지 않는것보다 창  
희와 함께 정방기앞에 있다는 사실을 더 참을수  
없여하는것 같았다.

《창희, 난 네가 무엇때문에 채옥이까지 담당하  
려는지 리해가 안돼... 이게 네가 말하는 새로운  
경쟁이니?》

《명실이...》

《차라리 사람들앞에서 이 명실이가 양성공들을

의식적으로 배워주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는게 낫  
지...》

고개를 들고 두 기능공의 얼굴을 겁먹은 눈으  
로 살피던 채옥은 금시 울음이라도 터뜨릴듯 몸  
돌바를 몰라했다.

《명실언니... 이러지 마세요 네, 앞으로 꼭 고  
치겠어요...》

《고치겠다구?》

명실은 모가 선 말로 반문했지만 그의 두눈에  
서는 이미 뱅뱅한 빛이 사라지고있었다.

이날밤 호실에 돌아온 창희는 인차 잠자리에  
들수 없었다. 양성공처녀들이 텔레비존에서 영화  
를 보고 와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그는 조용히 있고만싶었다.

그 이튿날 교대시간이었다.

실토리들을 가득 담은 옥양통들을 밀차에 싣고  
앉은 거울앞으로 다가서던 창희는 처녀들이 떠들  
어대는 소리에 주춤하고 서버렸다.

《최고기록이야 최고!》

《창희언니가 세웠던 기록보다 12키로나 더 높  
아...》

《창희언니가 이걸 알면 어쩔까?...》

명실이가 오늘 교대에서 공장조업이래 최고기  
록을 낸것이였다. 명실이가 그런 기록을 돌파할  
수 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던 창희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한순간 놀람과 부러움, 아쉬움이 한테  
어울려 비끼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창희의 선이  
부드러운 입술사이로는 이런 말이 숨새어나왔다.

《아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떠들기만 하니-  
축하해줄 생각은 안하구...》

《누구말이에요?...》

《누군 누구겠니. 명실이의 기록은 우리 공장의  
자랑이야...》

떠들썩 교아대던 처녀들은 창희의 상기된 얼굴  
에 눈길을 모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했  
다.

...한편 명실이는 련이어 꼬리를 물고 달려오는  
사람들의 물결에 휩싸여있었다. 직장지도일군들,  
생산과와 계획과, 기술과의 지도원들, 모든 사람  
들이 명실이의 뜨겁게 달아오른 손을 잡아흔들며  
공장의 영예를 떨친 채옥선수를 축하해주듯 찬사  
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장에서 보기드문 회계

과 출납원처녀까지 명실이의 예쁘장한 얼굴에 자기의 불을 가져다댈것처럼 바투 다가서서 《명실이가 제일이야.》 하고 속삭이였다. 그렇게도 몸가짐이 단정하고 침착한 명실이였지만 파아란 머리수건이 어깨너머로 흘러내리는것도 알지 못했다.

《한대건너 <ㄹ>자형하구 량면순회를 합리적으로 배합했어요... 그리구 앞공정과와 련계도 각별히 주의를 돌렸어요...》

명실은 뒤미처 달려온 공장신문 통신원에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사람들속에서 창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것이 마음에 췌였다. 신문통신원과 말하는 자기옆에 창회가 있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불시에 떠오르기도 하고 양성공들을 혁신자로 키운다고 정방공을 그만둔 창회가 측은해지기도 했다.

(그와 함께 신문에 났으면... 글썄 무엇때문에 양성공들을 키운다구 소문만 내구... 자기의 월등한 생산실적을 작업반에 얼버무렸어...?)

명실은 창회가 자기앞에 나타나지 못하고있는것이 자기에게 말한대로 양성공들을 키워낼수 없기때문에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서라고 생각했다.

(무엇때문에 철딱서니 없는 어린 처녀들속에 파묻혀버렸니...? 그러나 이젠 늦었어... 넌 자기의 무분별한 욕망이 가져다준 쓴맛을 좀 봐야 해...)

명실은 승리자의 쾌감을 느끼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허우룩해지는것도 어쩔수 없었다.

이때 교양실쪽으로 난 통로를 메우며 때아닌 꽃물결이 흘러들었다. 창회네 양성공처녀들이 꽃다발을 안고 달려왔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명실언니, 언니의 새 기록은 우리들을 더 고무해주었어요...》

처녀들은 마치도 명실이가 세운 기록에 손색이 없는 꽃다발을 안긴다는듯 아름이 별게 명실이의 앞가슴에 꽃뭉음을 안기였다.

《명실이, 축하해. 빈손으로 오고싶지 않아서...》

창회는 오래간만에 명실이의 손목을 잡아보는 기쁨으로 해서인지 인차 놓고싶지 않아했다.

《명실이, 이 꽃다발은 우리의 새 경쟁을 위해

주는거야. 우리 양성공들은 오늘 네가 세운 기록을 뛰어넘을것을 다짐했어. 놀라지 말어. 이젠 정말 한두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집단이 달라붙어 새 기준을 창조할 때가 됐어... 우리 함께 새 기록을 창조하는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넌 아직두 새 경쟁이니?...》

명실이는 창회의 말꼬리를 나꿔채면서도 당황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어리었던 얼굴빛은 다시 도고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내 기록이 마음에 안든다는거지?... 난 네가 그럴줄 알았어... 그렇다구 내가 실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명실이...》

《난 네가 오히려...》

두 처녀의 이야기는 나팔을 불며 쟁과리를 치며 다가오는 기동선전대원들로 하여 아귀를 짓지 못했다.

이날저녁, 명실은 공장구내길을 혼자서 천천히 걸었다. 한낮에는 즐편하게 녹았던 땅거죽이 해가 저물자 다시 찢찢하게 얼어붙어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생각할수록 창회가 한 말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자신이 있으면 어디 뛰어넘어보라지...)

공장합숙으로 향하던 명실은 회관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수예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웬일인지 조용한 분위기에 잠기고싶었다.

수예실은 언제나 애젊은 처녀들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즐거움이 넘쳐나는곳이기도 했다. 그것도 그럴것이 수예소조에는 눈썰미있고 착실한 20대의 처녀들이 태반을 차지하고있었다. 책상보 네 귀에 쌍을 맞춰 함박꽃을 수놓는 처녀들, 옷장과 베개모를 수놓는 처녀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간막이를 세운 사이사이에는 두리상을 마주하고 마음에 드는 처녀들끼리 모여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50이 가까와오는 수예지도원은 은테안경을 코허리에 느죽하니 걸고 간막이사이마다 활기있게 나들며 처녀들을 책망도 하고 조언도 주곤하였다. 길거리를 다닐 때에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눈까지 어두워 인사를 해도 못알아보고 지나군하는 그가 수예실에 들어서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 그렇게도 활기를 띠우며 후비양성에 정

력을 쏟아붓는지 명실은 알수 없었다.

《명실이… 참 오늘 새 기록을 세웠다지?》

명실을 알아본 수예지도원이 옆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명실은 별로 대꾸할 말이 없어 칸막이 한쪽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가 일감을 내놓은 두리상은 창희와 늘 마주앉아 똑같은 실로 똑같은 나비를 수놓던 상이었다. 창희가 한뼘한뼘 새기는 꽃잎이 실물처럼 보여서 얼마나 시샘질을 했던가…

(…더 생각해 뭘해… 이젠 다 지나간 일인데…)

명실이가 수실을 바늘귀에 꿰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을 때였다.

문득 칸막이너머에서 귀에 익은 창희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누가 채옥일 혁신자가 되지 못한다구 할 사람이 있겠어? 명실이도 채옥일 배워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아…》

창희의 언니다운 일깨움은 명실이의 가슴을 높여주었다. 책상보를 수놓으려던 명실이의 손은 굳어져 더 움직일줄 몰랐다.

꽃송이에 날아와 앉은 나비와 수염을 수놓던 검은 색실이 꽃줄기에 감겨서 실을 다시 뽑지 않으면 안되었다.

《채옥이, 나두 처음 정방기를 놓을 때에는 정말 생각이 많았단다. 그런데 어머니 내 편지를 받아보구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면 끝장을 봐야 한다구 하지 않겠니…》

창희는 어느날인가 채옥이가 가져다준 어머니의 편지이야기를 하였다.

《그 편지가 그런 편지였군요… 그런걸 난 무슨 혼사말이라도 했는가 했네…》

《이 애가 정말…》

처녀들과 간격을 두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창희에 대해 생각하면서 명실은 문득 그와의 사이가 점점 버름해지고있으며 그 모든것이 그의 새 발기로 해서 빛어졌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이것 봐!》

갑자기 창희의 흥분에 북받친 음성이 들려왔다.

《정방기 배경관색을 붉은 색으로 칠하면 실이 인차 눈에 띄이겠구나…》

명실은 칸막이를 에돌아 창문곁으로 다가섰다.

창희는 처녀들속에 둘러싸인채 둥그런 수놓이판을 들고 전등불에 비쳐보이고있었는데 그속하던 그의 두눈이 정기있게 빛을 뿜었다. 진분홍, 청색, 옥색, 보라색, 각가지 수실을 손에 들고 창희를 바라보는 어린 처녀들의 얼굴에도 한결같이 복숭아빛이 어려있었다.

《배경관색을 붉은 색으로, 알겠니… 붉게 칠해야겠어…》

창희는 이처럼 단순한 리치를 왜 진작 알고있지 못했는가 하는듯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배경관색을요?》

《직장에 가서 빨리 토론해봐야겠다.》

창희는 들가방안에 벌려놓았던 일감들을 서두르며 모아넣기 시작했다. 그는 어찌도 흥분되었던지 채옥이가 함께 가자고 따라서는것도, 처녀들의 뒤에서 다가서는 명실이도 알아보지 못한채 수예실을 나섰다.

…며칠후, 출근길에 오른 처녀들은 공장구내에 세워놓은 속보판의 특보란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떠들썩 고아댔다.

《오복실이란 누구니? 처음 특보에 나는 이름이구나…》

《양성공이 한달안에 4대를 맡아본다, 대단한데…》

그러나 처녀들의 관심은 그 속보들보다 새로 써붙인속보판에 더 눈길이 쏠리는듯싶었다. 아직 풀칠한 자리가 마르지 않은 종이장에는 오늘부터 양성공들의 기능급수 시험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나붙었는데 《…리론과 작업성적에서 우수한 동무들은 3급공이상도 사정받을수 있다.》고 쓴 대목에는 밑줄까지 쳐있었다.

명실은 처녀들이 모여선 뒤로 다가서려다가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언제 출근했는지 채옥이가 넘적 붓을 들고 배경판에 빨간 색을 칠하고있었다.

《아니 누가 너보구 이런걸 바르라고 했어?》

명실은 실꾸리를 전부 풀어놓고 색칠에 여념이 없는 채옥이의 등뒤로 다가서며 빠른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의 두눈에서는 아카시아가시처럼 예리한 빛이 번뜩이었다.

《누가 이런걸 바르라고 승인했는가말이야…?》

허리를 펴고 돌아선 채옥은 도색통을 전채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만뒤! 그런 도색칠이 기록을 낸다면 누구나다 기록창조자가 되겠다… 이게 뭐니…온통…》

《언니, 언닌 왜 그렇게 성내세요…》

채옥은 갑자기 그저 숙어들수만 없다는듯 눈살을 세우며 오돌차게 말했다.

《창희언니네 양성공들이 기능공들을 따라잡는걸 못봐요. 이 배경판색을 다시 칠해서 실이 더 잘 눈에 띄는건 사실이 아니예요… 언닌 이 도색이 뭔가구 시답잖게 말하지만 창희언닌 이 도색을 언니의 기대에 벌써 칠해주고싶으면서도… 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하구 망설였어요… 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 지나 앓을가 해서말이에요. 그런데 언닌 왜 그런 언니를 외면하세요, 네?》

《내가?》

《그래요! 언닌 너무 도고하구… 차요. 좀 너그럽게 대해줘요. 기능이 높다구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전 언니가 그럴 때면 정말 섭섭해요…》

채옥이의 두눈에 물기가 핑 돌더니 가랑가랑 이슬방울이 맺혔다. 자제력이 강한 명실이였지만 이 순간 단정하던 몸자세를 흐트리며 마른침을 삼키었다.

《왜 언니는 정방기를 타고싶어하면서도 양성공들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창희언니의 심정을 몰라줘요. 창희언닌 언니의 기록창조를 위해서 양성공들을 더 말아 키우겠다고 했어요. 이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많은 사람들을 다 혁신자로, 영웅으로 키우기 위한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언닌 우리보다 이런걸 더 잘 알고있으면서 왜 그래요?》

《내가 잘 안다구?》

《그래요. 언닌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기능이 높은 언니가… 전 정말…》

채옥은 말을 채 마무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그의 두어깨가 잔물결치기 시작했다. 명실은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가슴속에서 걸잡을수없이 차오르는것을 느끼며 두눈을 습벽이었다. 형

광등에 어린 채옥의 파아란 머리수건과 진달래빛 달린옷이 한색으로 흐려왔던것이였다.

이날부터 명실이의 청높은 음성은 어디에서나 들을수 없었다. 그는 누가 무엇을 물어도 고개만 끄떡이고 돌아서곤했다.

《명실동무, 이젠 새 기록을 더 갱신해야지?》

《…?》

명실이는 공장직관원이 다가서며 하는 말을 새겨듣지 못한채 떠름하니 바라보았다.

《왜 보기만 하오- 이번엔 특보판에 그림까지 받쳐서 널려구 하는데…》

《…절 놀리세요?》

《뭐? 놀리다니?… 이거 명실이가 어떻게 된거요?》

직관원은 아무것도 리해할수 없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며 잠시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지나갔다.

명실은 하루종일 자기 정방기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채옥이가 기능급수시험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도 몰랐다.

《언니, 전 언니가 잘 도와줘서 리론시험에서는 1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채옥이가 이렇게 말해서야 명실은 오늘이 실지 기대앞에서 작업동작시험을 치는 날이라는것을 알았다.

《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

명실은 전혀 몰랐던 말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처럼 눈섭을 약간 치켜올리며 당황한 빛을 얼굴에 띠웠다. 그리고는 채옥이의 손목을 잡아끌고 정방기앞으로 다가섰다.

《채옥이… 정방기를 순회할 때 중요한것은 뒤를 절대 돌아다보아서는 안된다는거야…》

명실은 자기만이 알고있었던 비결을 숨김없이 말한다는듯 활기를 띠었다.

《오직 앞으로! 앞걸어, 정방기만 바라보며 전진해야 해… 그리구 실을 잇고 한발자국을 옮겨놓을 때마다 눈길은 조사결개로부터 고무굴개… 금속로라, 고무띠, 실유도기… 한눈에 적어도 열두가지를 쫓 더듬어야 해…》

《언니…》

문득 채옥이가 명실이의 말중간에 끼여들며 약



간 미안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건 다 알고있어요…》

《알다니?!》

《창희언니가…》

《그래?》

명실이의 음성은 이미 활기가 없었고 눈빛도 총명한 빛을 뿜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기록을 창조하기 위해 있는 정력을 다 쏟아붓고있을 때 창희는 자기 작업반의 양성공들뿐아니라 채옥이의 기능까지도 훌륭하게 키워주었다는것을 미처 생각못했던것이었다.

명실은 이 순간 창희는 자기보다 몇배나 더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하여왔으며 그전보다 더 많은 새 동무들과 사귀고있다는것, 발은 동무가 없는것은 오직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쓰러왔다.

교대시간이 거의 가까와올무렵이었다. 직장장 기철이가 어느때없이 흥분된 얼굴로 다가왔다.

《창희네 작업반 복실이가 4시 현재 431키로요!》

《네?!》

명실은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있는지 아리송하기만 하였다.

정방기앞에 선지 1년도 되나마나한 애어린 처녀들이 자기가 네해이상이나 걸려서 창조한 기록에로 육박해오고있다는것을 명실은 믿을수 없었다.

《…새로 들어온 양성공들의 기세가 대단하거든… 채옥이두 복실이를 따라잡겠다고 뛰고있소… 이제 다 기능공들의 역할이 컸기때문이 아니겠소…》

기철은 검은 눈섭을 뜻있게 치켜올리며 련조방 직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명실은 그가 교대시간까지 련조조사를 떨구지 않고 보장해주기 위해서두른다는것을 느끼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 명실이가 할수 있는 일이란 정방기에서 끊어진 실을 이으며 기대를 순회하는 일외에 아무 일도 더 할수 없다는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날저녁 공장 문화회관에서는 공장에 들어온 양성공처녀들의 혁신적성과를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다. 짧은 기간에 수많은 어린 처녀들이 다

대공으로 새 기록 창조자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던것이다. 그중에서 복실이, 채옥이, 금주랑은 3급공으로 대뜸에 기능공으로 뿔뿔이 자라났다.

축하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들의 어깨우에 둥근 꽃목걸이를 걸어주었고 눈부신 꽃보라와 색종이마리들을 뿌려주었다. 그런데 꽃목걸이를 걸고 꽃보라를 뒤집어쓴 양성공처녀들이 약속이나 한듯 주석단에서 내려서자바람으로 관람석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창희앞으로 밀려가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명실은 그들이 창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가늠하지 못했다. 또다시 꽃보라와 색종이마리들이 날아오르고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명실은 지금까지 것처럼 요란한 박수소리가 오래도록 울리는것을 들어본것같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들고있을수 없었다.

《…창희언닌 정말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숨은 영웅들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어요… 우리가 기능공으로 빨리 자라날수 있는것은 창희언니의 도움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어느사이에 연단에 뛰어오른 복실의 토론이었다. 그의 열정에 북받친 목소리는 명실의 가슴을 쌍방망이질하였다…

명실은 모임이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다.

누구인가 자기앞으로 다가오며 《명실이가 키운 처녀들도 있겠지?…》 하고 물었을 때에야 명실은 자기 혼자 의자에 앉아있다는것을 느끼었다.

은테안경을 낀 늙은 수예지도원은 명실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뜻있는 표정을 지었다.

《명실이… 수예실에 자주 들리라구… 창희는 양성공들과 함께 늘 오는데…》

자신의 수예창작보다 후비를 키우는데서 더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있는 경험이 많은 늙은 수예지도원의 말에 명실은 몸둘바를 몰라하다가 서두르며 밖으로 나왔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명실이의 포도송이무늬 옷자락을 흔들었다. 자기 생각에 깊이 파묻혀 걸음을 옮기던 그는 공장구내 정원의 분수곁에서 울려오는 처녀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수천갈래로 뿜어오르며 흰 물안개를 일으키는 분수옆에는 아름답리 기둥이 높이 솟아올랐는데

충충이 내려쬰친 기둥머리에서는 수많은 전등불이 주위를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그 어느날인가 퇴근길에 채옥이와 창희네들이 기초를 팠다는 바로 그 무리들이었다. 류달리 밝은 빛으로 하여 분수열을 거니는 처녀들도 록음이 짙어가는 버드나무들도 그리고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며 당대회에 값높은 선물을 드리자고 부르는 구호들도 더 선명하게 돋보이는것이였다.

《아이 참, 좋은 밤이예요.》

《정말 그래... 그전에는 한개의 구내등이 희미하게 비치더니... 오늘은 얼마나 환해요. 언니, 이젠 우리와 함께 정방기를 다시 타요네?》

《정말 그러자요. 우리와 함께 경쟁하자요...》

《어서 약속해요, 언니...》

《난 벌써 그런 약속을 했단다...》

생각에 젖어 울리는 창희의 부드러운 음성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다만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많은 처녀들이 아니라 친한 동무와 단 둘이서 약속했을뿐이지... 생각해보면 그때 우린 너희들보다 더 어렸어... 나이두 생각하는것두...》

갑자기 등뒤에서 자동차들의 경적소리가 울리더니 땅을 구르며 먼지를 말아올리며 공장에서 생산된 갖가지 천과 실을 가득 실을 짐차들이 려달아 명실이의 옆으로 휩휩 지나갔다. 그 자동차들의 동음은 거세찬 속도전의 열풍을 일으키며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로 치달아오르는 조국의 벽찬 현실을 안겨주는듯싶었다. 그런데 명실은 한오리두오리 합쳐져 흐르는 비단물결속에서 떠밀려나온 군오리처럼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것이였다.

《창희!》

무리등의 불빛이 자석처럼 끌어잡아당기기라도 하는지 명실이의 발걸음은 처녀들앞으로 향해졌다. 그러나 정작 창희앞에 바투 다가서자 명실은 가슴을 터놓고 많은 말을 할것 같으면서도 웬일인지 자물쇠를 채워놓기라도 한것처럼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명실이 자기는 무엇때문에 정방공을 그만둔 창희를 것처럼 고까와하였으며 양성공들을 키우는 일을 달가와하지 않았던가?

정말 북천강의 무리등밑에서 우정을 속삭이며

다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던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면서도 진실은 아니었다. 명실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것을 더는 숨기고싶지 않았다.

그것은 창희처럼 공장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다기대공 혁신자와 겨뤄야 경쟁할맛도 있고 또 이기나 지나 자기의 이름이 항상 더 빛날수 있다는 그 리기적이고도 명예욕에 들뜬 생각이였다. 자기보다 기능이 어리고 이름도 없는 경쟁자를 이긴들 무엇이 그리 대단하랴. 그래서 명실은 창희와 개인경쟁을 계속 하고싶었던것이다.

그런데 이 밤 무리등의 환한 불빛은 그의 가슴속 한구석에 웅크리고있던 마지막 그날까지 깨끗이 가셔내주는듯싶었다. 창희가 내세운 높은 목표, 양성공들을 키워 혁신자로 만들려는 그 불타는 지향속에 깃든 정방공의 마음이 얼마나 값높은것이었던가를 가슴뜨겁게 안겨주는것이였다.

사람들의 우정도 저 무리등처럼 집단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야 할것이다.

명실은 이 모든것을 창희에게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선뜻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창희...》

《명실이...》

창희는 반갑게 명실이를 꺼안기라도 할것처럼 한발 더 바투 다가서며 두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명실이의 가슴속에서 어떤 자책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있으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고고도 하지 않는것 같았다.

《글쎄 이 애들이 래일 사진을 함께 찍자는구나...》

《...?》

명실은 창희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인차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네 생각이 다 옳아》

이날 저녁 무리등밑에서 명실이가 창희에게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이미 어린 처녀들앞에서 어떤 말을 삼가야 한다는것쯤 잘 알고있는 나이에 이른 처녀들이였다.

무리등빛발이 어린 분수에서는 밤무지개가 아름답게 피어나고있었다.

## 행복의 창가에서

김시권

아담한 방의 활짝 열린 창문으로는 따스한 가을별이 눈시게 흘러든다. 우주의 한끝까지 껴비칠듯 가없이 푸르른 하늘, 가벼이 불어들어 두볼을 쓰다듬는 부드러운 가을바람... 밖을 내다보는 나의 마음은 저절로 들뜨기만 한다. 그도 그럴것이 명절일색으로 단장한 거리풍경이며 아마트창가마다에 피어난 소담한 꽃들이며 대고 소고에 맞추어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소년단대오며 창너머로 보이는 모든것이 류달리 청신하고 정서깊으며 환희롭기때문이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의 날이 하루하루 박두해올수록 나의 가슴속에서는 흥분의 파도가 더욱 높아가기만한다. 그저 기쁘고 즐겁고 생각이 깊어져 잠시도 진정할수가 없다. 몸은 비록 침상우에 놓여있지만 마음만은 끝없이 훨훨 날기만한다. 아니 나의 날개돋친 몸이 그대로 어디로든 원하는곳마다에 날아가닿는듯싶다.

나에게 정치적생명을 주고 청춘을 주고 꿈과 희망을 주었으며 보람찬 생활과 행복을 안겨준 조선로동당-나의 생명, 나의 생활의 모든것을 안겨준 어머니당의 력사적인 대회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것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속에 것처럼 간절히 바라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간직하게 된 나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당대회인 것이다.

자식들은 철이 들고 나이를 먹어야 어머니의 사랑을 헤아린다고 한다. 당의 사랑과 배려를 일상 마시는 공기처럼, 늘 입는 옷처럼 그저 응당 한것인듯 범상히 받기만한 나역시 머리에 흰서리가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저 무심히만 이 사랑을 받게 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결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나의 마음은 뜨겁기만하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삶의 년륜을 덧새겼는가.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격전터에서 원쑤의 흉탄에 치명상을 입은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침상우에서 30년, 보람있는 삶과 투쟁을 두고 안타깝게 모대기던 그날로부터 문학의 길에서 자기 삶의

가치를 찾고 창작적모색속에 흘러간 긴긴 나날도 이제는 아득한 옛일처럼만 생각된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의 온몸에, 심장 깊은곳에 고이 간직되어 생생한 감격과 느낌으로 남아있는것이다.

청춘의 피가 약동하는 애젊은 나이였지만 몸이 자유롭지 못하여 침상에 누운채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었던 그때 나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토로하여 《창을 열어다오》란 시를 썼었다.

창을 열어다오

오랜 날을 병상에 누운 나에게

친우들!

나는 풍요한 대지가 보고싶노라

.....

그대들결을 떨어져선 살수 없나니

그대들 땀으로 오곡 가꿀 때

내 노래를 지어 그 오곡 춤추게 하리

.....

나의 모대김, 나의 열렬한 지향을 누가 먼저 알아주었던가? 나를 침상에서 받들어일으켜 대지의 향기를 맡게 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발걸음소리를 듣게 한것이 누구였던가? 한없이 고마운 당이었다.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던 나를 소생시켜주고 자나깨나 어루만져 보살펴주면서 기쁨이면 제일 큰 기쁨을, 행복이면 더욱 큰 행복을 안겨주고 보람찬 삶의 길로 이끌어준것이 누구였던가?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한몸에 체험한 가장 자애롭고 고마운 우리의 어머니당이다.

불러보아 목이 메고 다시 불러 가슴젖는 이 말-더 다른 말로 표현할수만 있다면 그 말의 천공을 보태고 만공을 다듬어도 부족할 아 어머니당인것이다!

당은 나의 자그만 창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오곡이 물결쳐 설레이는 소리를 들을수 있었고 우리 농민들과 같이 들판을 거닐기도 했고 쇠물이 끓는 용광로앞에도 설수 있었으며 충충이 솟는 우람찬 건설장에도 달려갈수 있었다. 몸은 비록 침상에서 한발자국도 뜰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디로든 자유롭게 날았다.

아름답고 류창하지는 못하나 진정이 담긴 나의 목소리는 시의 구절구절이 되어 함께 싸운 전우

들에게도 들려갔고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노래로 올려갔다.

회고해볼수록 행복하기만 한 지난날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나의 전우들은 총을 잡았던 손에 삽과 곡괭이를 들고 로동으로 창조의 열매를 무르익혀갔다. 그러나 나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자기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채 대오에서 물러난 병사인 나에게는 조국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자기 삶을 보람있게 바쳐갈 투쟁의 무기가 없었다.

생물학자가 되어 조국의 산야를 주름잡으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실한 열매를 가꾸리라 꿈꾸었던 희망, 그래서 전쟁전에 해주교원대학 생물학부에 입학하여 자연과학의 지식을 탐욕스레 머리속에 채워넣었던 나의 노력과 꾸민 꿈이 가뭇없이 사라지는가싶었다. 부상당한 상처의 아픔보다 더한 정신적고민속에 모대길 때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준것은 어머니당이었다.

당에서는 영예군인인 나에게 인삼, 록용을 비롯한 세상에 값진 보약을 아낌없이 보내주어 잃었던 생명력과 건강을 다시 찾아주었으며 시인이 되려는 소망을 헤아려 힘과 고무와 뜨거운 방조를 아름답게 안겨주었다.

나의 생활의 창문은 활짝 열리었다. 이때부터 나는 삶에 대한 희열과 투쟁의 신심 드높이 한편 한편의 시로써 전진하는 시대에 발걸음을 맞추는 시대의 가수가 되었다.

사실 내가 시를 썼으면 얼마나 좋은 시를 썼겠는가. 다만 욕망과 마음뿐 오히려 당에 근심만 끼쳐드리고 한일없이 사랑과 배려만 받아온 평범한 병사-시인이었다.

오랜 병원생활을 마치고 당에서 배려해준 아담한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오늘부터 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며 무슨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물으시는것이였다. 어쨌든 나는 남과 같이 출근하는 심정으로 웃도 깨끗한 새옷을 입고 수업도 말쑥이 밀고 침상앞에 원고지뭉치를 놓은 다음 만년필을 잡았다. 병사시절 돌격을 앞두고 무기를 틀어쥐던 그때처럼...

그렇다! 나는 투쟁의 무기를 잡은것이다.

시를 창작하면서부터 나는 자신을 단한번도 불구로 여기지 않았으며 침상을 혁명초소로, 불구를 몰아치는 전호로 생각하며 쓰고 또 썼다.

나의 시들이 출판물에 발표되기 시작하자 당에서는 나의 창작과 생활에 대하여 더 다심하게 특별히 보살펴주었다. 라지오라면 제일 좋은 라지오가 나의 침상옆에 놓여졌고 변변치 않은 시 한편을 완성해주기 위해 이름있는 시인들이 자주 나를 찾아주었다. 나의 침상 그것은 나의 창작실이었으며 학교였다. 이제 내가 바란다면 무엇을

더 바랄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당에서는 나의 창작을 마음껏 꽃피워 주려고 문학대학통신 입학통지서를 안겨주었고 대학을 졸업한후에는 과분하게도 작가동맹 정맹원의 자격을 안겨주었다.

현실이 그림졌다고 최신행 텔레비존을 보내주고 수도의 한복판에서 시대의 벽찬 맥박을 느끼라고 제일 경치좋은 대동강가의 새 아파트로 집을 이사시켜준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 건강을 추세우라고 달마다 보내주는 높은 보조금과 보약값 그리고 이들이 멀게 찾아오는 다정한 의사들, 나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인민반사람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한 장사인들 어떻게 1년이나 10년도 아닌 30년세월을 침상에서 떠나지 않고 살수 있으며 또 랑만에 넘쳐 창작을 해나갈수 있단말인가!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며 나의 줄기찬 생명도 아니다. 지난날도 그랬지만 오늘도 나는 당이 준 불사의 생명력으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으로 살고있으며 래일도 그렇게 살것이다.

당의 은덕을 생각하매 그저 눈굽이 뜨겁기만 하고 당을 받들어 한일이 너무도 적은것에 얼굴을 붉힐뿐이다.

참으로 이제 내가 바란다면 무엇을 더 바랄수 있겠는가. 때때로 마음속에 파고드는 생각이 있다면 한가지, 나도 혁명의 전위부대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대오속에 자랑스럽게 들어설수 없을까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삼한번 쥐여보지 못하고 건설장에 벽돌 한장 날라보지 못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랄수 있단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스스로 자신의 외람된 마음을 질책하곤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1973년 2월 18일, 나는 이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원고지를 펴놓고 시를 창작하고있었다.

그런데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가동맹의 한 일군이 창작실동무들과 함께 들어오는것이였다.

얼마전에 제출한 시작품을 합평하러 왔나보다 생각하였다. 그런데 작가들의 얼굴에는 합평을 하러 왔을 때와는 다른 그 어떤 엄숙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그들이 나의 침상앞에 모여서자 작가동맹일군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김시권동무를 우리 당의 당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시권동무를 조선로동당 당원으로 입당시킬데 대한 당중앙의 지시를 받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흥분된 목소리였다.

아, 이것이 과연 정말인가! 내가 꿈을 꾸는것

이 아닌가! 이 순간 가슴을 치밀며 몽클 솟구치는 걱정으로 하여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당중앙의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에 그저 고마움과 감사의 정만 앞서 오열이 터졌고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나의 침상을 둘러싸고 입당문제를 취급하는 세 포총회가 열리었다. 어떻게 회의가 흘러갔는지?

...행복의 정점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 행복밖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법이다.

당중앙의 한없이 높은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의 대오에 들어서게 된 나의 가슴은 기슭을 모르는 바다의 물결처럼 끝없는 감격으로 출렁이였다.

그후 어느날 당중앙에서는 나의 입당진행정형을 일일이 알아보고 내가 당원이 된것을 기뻐하며 빨리 나에게 당원증을 안겨주도록 하라는 크나큰 배려를 또다시 베풀어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영광스러운 전위대오 조선로

동당의 한성원으로 될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벌써 여러해가 지나갔지만 나는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그날의 감격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어제이런듯 생생히 돌이켜보군한다.

오, 당이여, 은혜로운 내 삶의 어머니여!

남모르는 고심속에 이 아들을 키워

행복과 희망과 웃음 그 모든것을

나의 가슴 가득히 안겨주니

내 무슨 말로 다 노래하리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당이여

비록 침상에 누운 불편한 몸이지만 나는 당이 준 불사의 생명으로, 당이 준 영원한 열정으로 오늘의 시대를 마음껏 노래하며 벅차게 살아갈것이다.

## 수필

# 참된 당원에 대한 생각

배헌평

추억이란 참으로 아름다운것이다. 준엄하던 시절에 대한 추억, 보람차던 나날에 대한 추억... 어쨌든 추억이라면 누구나 불쾌하던 일들과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피하게 되는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한생에서 추억할 일이 많은 사람은 시대앞에 뚜렷한 일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시대앞에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해보라. 그 인간은 얼마나 쓸쓸할것인가!

때문에 사람들은 후날에 추억으로 남을 오늘의 순간과 순간을 귀중히 여기는것이다.

나에게도 지난날을 추억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자주 기억을 불러내곤하는것은 입당하던 그때의 추억이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하겠지만 나역시 긍지를 가지고 그때를 돌이켜보군한다.

나는 병사시절에 야영훈련장의 천막안에서 입당청원서를 썼다. 천막안에 야전용 조불을 켜놓고 당원들이 모여앉아 나의 입당문제를 취급하였다.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도 엄숙한 분위기를 느껴본적이 없었다. 한 당원이 일어나 나에게 본인의 결함이 무엇인가고 질문하였다. 나는 당황하게 되었다. 자신의 결함에 대하여 언제 한번 찾아본적도 없었고 더우기는 자신이 훈련에서나 군무생활에서나 남들에게 지지 않는다는 우월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나는 떠들떠들 몇마디 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가지고있는 본질적인 결함이라고 말할수 없는 부차적인것뿐이었다.

그 당원은 나의 결함에 대하여 벼알고르듯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동무의 기본결함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공명주의이라고 생각한다. 동무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집단보다 먼저 자신을 생각하는 반드시 고쳐야 할 그릇된 견해가 지배하고있다. 실제로...

나는 진땀을 뺐다. 그 비판은 심본 옳은것이였다. 하지만 나는 전혀 나에게 그런 결함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당원들은 나의 생활과 사업을 이모저모로 살펴보고 나를 당원으로 키우기 위해 애를 써왔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당조직이란 그렇듯 세심하게 사람들의 내심을 들여다보고 힘과 용기를 주어 장점은 발전시켜나가고 결점은 극복해나갈수 있도록 따스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어머니의 품임을 나는 가슴속깊이 느끼게 되었다.

결함에 대해서는 언제나 준절하고 가차없으면서도 한없이 아끼고 따스이 보살펴주는 당조직의 품속에서 당생활의 나날은 흘러갔다.

같은 내용의 결함으로 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던 때는 얼마나 많았던가!

때로는 눈물도 흘렸고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느새인가 비판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그 누구의 비판이

쓰겁거나 또 누구의 충고가 불쾌한 것이 아니고 답다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언제나 못다한 일과 할 일을 두고 모자라는 마음에 대한 자신의 불만속에서 한생을 바치는 것이 당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비단 나 자신의 생활에서뿐 아니라 다른 당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생활에서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생활에 참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영예는 없으며 그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

당원-이는 혁명가의 영예로운 칭호이다. 혁명가의 삶이란 자각된 삶이며 투쟁에 자신을 바치는 삶인 것이다.

나는 몇해전에 대동강발전소건설장에서 한 일군을 만난 일이 있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며 2중로력영웅이었다.

60에 가까운 몸이었지만 줄사다리를 타고 썩성 오르내리며 가물막이전투를 지휘하고있었다.

《그 나이에 참 용하십니다.》

아찔하게 솟은 언제우에서 간신히 땀을 흘리고 난 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작가선생두 언제와 함께 운명을 같이한다고 생각해보시오. 그때엔 하루라도 언제를 내릴수 없을겁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언제를 바라보시고 당의 보살핌속에 언제가 솟아오르기때문이지요.》

얼마나 뜻이 깊고 체험에서 우러나온 생활의 진리인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이 요구하는 것을 심장에 받아안고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쏟아붓는 바로 거기에 삶의 보금자리가 있고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생활적으로 이야기하고있는 것이다.

한평생을 조국땅 그 어디나 찾아다니며 언제건설로 보내는 그예겐 고향처럼 정든 도시들이 한둘이 아니다.

독로강, 서두수, 강계, 압록강... 그 모든 건설장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왔고 그 언제나 당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 속에서 보람찬 삶을 빛내이고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어버이수령님의 신임을 떠난 자신의 존재가 있을수 없고 언제건설장을 떠난 자신의 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그에게는 언제건설이 곧 혁명투쟁이며 필생의 과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를 일떠세우는 바로 거기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의 헌신성이 표현되고있으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나타나고있는 것이다.

《이것 보시오. 선생, 이제 한주일동안에 가물막이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있는 설비, 있는 로

력을 총동원해야 할 이때에 3호언제기중기를 다른 건설장에 소환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어찌면 좋소?》

정말 그의 말대로 딱한 사정이였다. 3호언제기중기를 떼내고나면 제 날자에 가물막이공사를 끝내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뻔드러운 일이다. 때문에 몇몇 일군들은 가물막이공사를 끝내고 보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고 한다. 나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십분 옳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말없이 3호언제기중기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원들입니다. 혁명의 전반적전지에서서 자기의 초소,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하지요. 당이 의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흥정해서야 혁명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나는 3호언제기중기를 제때에 떼내보내고 다른 방도를 찾자는 것입니다. 힘있는 우리 로동계급이 이런 자그마한 난관앞에 동요해서야 안될 일이지요.》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한 당원으로서의 참다운 자각과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읽으면서 한참동안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같은 당원이지만 그와 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놓여있는 것인가.

나는 그의 심장속에 무엇이 간직되어있길래 한평생을 변함없이 언제건설장에 튼튼히 서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성실히 받들어가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30여년간의 당생활, 준엄한 시련과 간고한 투쟁의 나날을 거쳐 트림없이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받들며 거기서 자신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찾는 그에게는 언제나 당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이 순간도 떼여놓을수 없는 생활로 되고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이것이 바로 그를 참된 당원으로 되게 하였고 혁명에 자기의 한생을 다 바치려는 그 높은 자각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원으로, 2중로력영웅으로 자랄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 당원의 영예란 참다운 당생활에 있으며 못다한 일과 모자라는 마음에 대한 탐구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당원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투쟁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혁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당원은 그 삶이 언제나 떼떽하며 투쟁이 보람찬 것이다.

당원의 삶-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원은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품에서 혁명과 운명을 같이하며 사는 것이다.

당원들이여, 삶에 대하여 추억해보라. 그러면 자신이 투쟁속에서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투쟁이란 것은 얼마나 보람찬 생활이였는가를 감회깊이 느낄수 있을 것이다.

## 높은 열정, 자랑찬 결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서른다섯해가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게 된다. 당 제5차대회이후의 10년은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과 승리로 아로새겨진 력사에 빛날 자랑찬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었으며 문화와 예술에서도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그 면모를 일신하여 진실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참다운 문학으로 꽃피날수 있었다.

편집부는 얼마전에 당 제6차대회를 빛나는 창작성공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있는 열정과 지혜를 다 쏟아붓고있는 우산장창작실 소설가들을 만났다.

아래에 소설가들과 진행한 좌담회를 소개한다.

**편집부**-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소설가동지들이 참가하고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공과로 맞이하고있을 때 소설가동지들은 왕성한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새 작품 창작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작품을 창작하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영근**-최근 우리 소설가들의 창작에서는 그 어느 시기에 비할수 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만도 벌써 수십편의 장, 중편소설이 출판되어 독자들의 손에 들어갔고 지금 초고가 끝나가는 소설이 또한 20여편이나 됩니다.

이런 성과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작가들의 창작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기때문입니다.

또한 당정책이 빛나게 관철되는 우리의 현실 그자체가 벅차며 내용이 풍부한것과도 관련됩니다.

**윤시철**-웁습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우리 작

가들에게 창작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을뿐만 아니라 크나큰 신임을 주고 용기와 힘, 재능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작가들이 거둔 창작적성과의 밑바닥에는 당중앙이 우리들에게 돌려주는 두터운 신임과 한없이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는것입니다.

**편집부**-윤시철동진 이번에 장편소설 《태양의 아들》 제2부의 초고를 끝냈는지요.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를 주인공으로 형상한 그 소설의 내용에 대하여 좀 이야기해주시시오.

**윤시철**-예, 당대회를 맞으며 저로서는 단단히 결심하고 많은 정력을 쏟아부어 초고를 끝낸것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이번 2부에서는 주로 유격근거지생활을 취급하였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혁명로선을 받들어 갓 창설된 유격근거지를 말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는 일제침략자들과 용감하게 투쟁하며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온갖 어중이며중이들의 반혁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이 모진 시련을 겪고있을 때에도 오직 수령님의 로선과 명령지시를 끝까지 지켜 견결히 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투사입니다.

혁명투사의 전형을 훌륭히 형상하는것과 유격근거지생활을 다양하게 그린다는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편집부**-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문학작품을 통하여 훌륭히 형상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우리 작가들에게 지워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리병수동지도 해방전 북부지대화전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그들이 장군님의 품에 안겨 참다운 삶을 찾고 투쟁의 보람을 찾는 새 장편소설을 썼는지요?

**리병수**-허허... 이제 방금 초고를 내놓다보니 아직 설익은데가 많은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작품을 추고하고있는중입니다.

**편집부**-꼭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해주시시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고 사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일제의 착취와 압박이 어떤것이였으며 지난날의 생활이 어떤것이였는지 방불히 펼쳐보여주십시오.

**고병삼**-사실 지난날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살아온 주인공의 성격을 잘 그리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오늘의 행복을 지켜싸우는 훌륭한 인간의 성격적바탕을 해명하는데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을 쓰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농민영웅인 저의 주인공 역시 이런 성격적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엽**-고병삼동무가 소박하고 근면한 우리 농민의 영웅적성격을 형상하였는데 저도 장군님의 품에 안겨 진정한 삶을 찾고 투쟁으로 자기의 한생을 빛내인 한 농민영웅을 주인공으로 삼아 새 장편소설을 쓰고있습니다.

김제원농민이 살던 재령벌에 나가 그곳 농민들과 가깝게 지내며 친숙해지니 이제는 나 자신도 농민이 된것 같은 심정입니다.

**편집부**-당중앙의 방침을 받들고 생활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니 써내는 작품에 기계기름내와 흙냄새가 풍길것은 당연한 리치인것 같습니다.

애국농민 김제원을 원형으로 한 그 장편소설을 훌륭히 써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편소설 《해빛만리》를 탈고한 류벽동지가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가 큼니다.

**류벽**-뭐 사실 전 독자들앞에 먼저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욕심을 크게 먹고 시작을 땀것은 오래지만 이제야 그 소설의 제1부를 완성했으니 말입니다. 제목이 그러한것처럼 만리이역땅인 일본에도 우리 동포들의 가슴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해빛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며 또 있어보지 못한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을 미숙한 재간으로 작품에 담아보자니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완성한 1부의 초고에서 남반부에 고향을 둔 주인공이 민족적 멸시와 생활의 풍상고초를 겪던끝에 마침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을 안게 되며 진정한 조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제일조선동포들에게 있어서도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입니다.

**리영규**-작가자신이 체험한 생활이고 더우기 작가가 커다란 흥분속에 쓴 작품이니 장편소설 《해빛만리》가 나오면 독자들도 그렇게 흥분시키리라 생각합니다.

**편집부**-리영규동지는 장편소설 《평양성사람들》

의 초고를 며칠전에 끝냈다는데 이제는 마음이 가볍겠습니다. 력사소설을 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자료연구수첩을 보고서도 잘 알수 있었습니다.

**리영규**-그건 옳은 말입니다. 력사소설 한편을 쓰기 위해 그보다 더 두툼한 자료수첩이 생겨나는것은 나 하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박태민동지도 앉아있지만 사실 체험해보지 못한 머나먼 과거의 생활을 그것도 있는그대로 생동하게, 진실하게 그려낸다는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창작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력사소설을 쓰고있는 많은 작가들이 신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쓰고있습니다. 바로 그 신심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당중앙에서는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력사소설을 쓸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었으며 창작방도도 명백히 밝혀주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쓴 소설은 임진조국전쟁당시 왜적들의 침입을 반대하여 평양성을 지켜싸운 평범한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이야기입니다. 봉건 착취배들에게 짓눌려 살던 그들이지만 일단 왜적이 침입해들어왔을 때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인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습니다.

김용서장군을 비롯한 평양열장사들도 인민의 이러한 힘을 대변하였기때문에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력사를 더 잘 알게 하고 우리 인민들의 슬기로운 애국투쟁에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도록 계속 력사소설을 쓸 생각입니다.

좌담회에서는 변희근, 김보행, 정창윤, 김재규 등 많은 소설가들이 금후 자기들의 창작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당의 품속에서 새로 자라난 젊은 작가들인 주유훈, 김문창, 박찬은, 김영길, 한웅빈 등 많은 소설가들이 또 한 새로운 창작결의를 다지였다.

많은 작가들이 불같은 충성의 열정을 안고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적문학은 더욱 자랑찬 결실을 이룩할것이다.